3883
2401912

Ⅰ.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硏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共同 硏究報告書임.
Ⅱ.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硏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辺環境硏究

周辺情勢에 聯関된 台湾의 將來

The Future of Taiwa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

共同硏究 鄭種旭 (서울大學校 教授)
金達中 (延世大學校 教授)

刊行責任 鄭富洛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總 目 次

第一部： 綜合報告 ……………………………………………(鄭種旭)……………1

第二部：台湾問題解決에 関한 各種類型과 그에

関한 極東情勢変化 ……………………………………(鄭種旭)…………37

第三部：美・中共関係 正常化와 日・中共 平和友好条約

締結에 따른 台湾의 将来와 韓国의 安保(金達中)………111

o 英文要約文(Summary) ……………………………………………………187

第一部 : : 綜 合 報 告

鄭 種 旭

(서 울 大 教 授)

目　　次

一. 序　論 5

一. 美・中国交正常化 : 문제의 背景 6

一. 美・中国交正常化의 類型 : 日本方式 9

一. 바네트方式 및 그 類似型 11

一. 레이 크라인方式 및 그 類似型 13

一. 国交正常化의 影響 18

一. 日・中共平和友好条約締結과 韓半島 23

一. 台湾의 国内政治 26

一. 台湾의 将来 31

一) 序　論

台湾문제가 韓国安保에 중요한 変数라는 사실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韓国과 台湾間에는 国際力学上 많은 共同点이 存在하여 台湾문제의 해결이 東北亜에 있어서의 国際秩序形成에 決定的 要因이며 따라서 台湾문제의 向方이 韓国의 安保에서 가지는 重要性은 결코 過少評価할수는 없는 것이다.

台湾문제를 分析하는 데에는 많은 変数들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대체로 国内的 変数와 国際的 変数로 나누워볼 수 있다。国内的 変数로서는 国民党政府가 안고있는 政治経済的 문제와 이와 관련해서 台湾独立運動을 생각할 수 있고 国際的 変数로서는 美国과 日本과의 関係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台湾의 将来와 韓国의 安保라는 研究課題를 委嘱받은 延世大学校의 金達中教授와 서울大学教의 鄭鍾旭教授는 本課題를 国際的 側面과 国内的 側面으로 나누어 分析했으며 本綜合報告도 같은 順序를 따른다.

二) 美·中國交正常化 : 문제의 背景

美国과 中共間의 国交正常化문제는 台湾문제의 解決을 그核心으로 하고있다.

美国이나 中共은 모두 両国間의 国交를 正常化해야한다는 점에서 共通되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中共側의 立場에서 보면 中蘇紛争이 持続되는 限 美国과의 友好関係가 所望스런 것이라는 政治的 고려와 四個近代化計劃의 推進에있어 美国의 科学技術을 導入해야 한다는 経済的 必要때문에 美中関係正常化를 支持하고 있다. 美国의 立場에서 보면 첫째 中国共産党이 中国大陸을 1949년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統治하고 있는 政権国体이며 둘째 1972년의 上海共同声明에 規定된 美中関係正常化의 実現을 가능한 범위에서 早速히 推進해야하며 셋째 美中関係正常化가 東北亜 国際秩序의 安定에 중요한 要因이될 수 있으며 넷째 中蘇紛争과 中共内의 政治的 与件을 고려할 때 正常化를 遅延시킬 경우 美中間의 데탕트에 逆効果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점 등이 正常化를 推進하는 적극적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1977년 9월과 10월에 걸쳐 美国下院의 国際関係委員会 亜細亜 및 太平洋分科委員会가 主管한 美中国交正常化에 관한 聴聞会에서도 参席者 会員이 正常化 自体에 관해서는 肯定的 反応을 보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美中関係正常化는 이미 正常化의 当為性이 문제가 아니라 그 条件이 문제라는것을 알 수 있다.

正常化의 条件은 台湾의 将来문제와 直結되어 있다. 美下院의 聽聞会에서도 参席者 会員이 正常化 自体에는 찬성하면서도 台湾의 将来에 대한 適切한 保障이 隨伴되는 条件付 正常化이여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台湾의 将来를 保障할 条件의 內容에 관해서는 参席者들이 意見을 달리했다.

中共이 내세우는 正常化의 条件은 세가지이다. 첫째 美国은 台湾의 中華民国과 外交関係를 断絶해야하며 둘째 台湾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을 撤收해야하며 셋째 美国과 中華民国間의 相互防衛条約을 廃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条件中 첫째와 둘째는 비교적 쉽게 成就될 수 있다. 1972년 이래 美国과 中共은 北京과 워싱턴에 連結事務所를 設置, 法的은 아니지만 事実上의 認定(de facto necoguition)을 하고 있으며 美国과 中華民国은 大使関係를 維持하고 있어 相互 法的 認定(de gure necoguition)을 하고 있다. 그러나 駐美中華民国大使는 中共의 反応을 우려한 美国政府의 態度로 인해 後任大使가 赴任하지 못해 自身의 任期를 넘기면서 그냥 워싱턴에 駐任하고 있는 実情이며 1978년 5월 蔣経国新任総統의 就任式에는 美国政府의 高位使節이 오지 않았고 오히려 就任式과 때를 맞춰 브레진스키大統領安保担当補佐官이 北京을 訪問하므로서 美国이 中華民国을 認定한다는 것이 하나의 法的虚構라는 印家을 남겼다. 따라서 美国이 台北의 大使館을 廃鎖하고 北京에 大使館을 新設하므로서 逆으로 北京을 法的으로 認定하고 台北을 事実上 認定한다고 해도 그다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또한 大使舘의 廃鎖나 新設은 美国内法上 大統領의 権限에 属하는 것으로 議会의 法的 節次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루워질 수 있다.

台湾으로부터 美軍을 撤収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 美国은 1972년 이후 이미 駐台湾美軍을 大部分 撤収시켰으며 현재는 약 1천4백명 미만의 非戦闘要員들이 남아 있을뿐이다. 海外駐屯美軍이나 基地의 撤収도 美国内法上 大統領의 権限으로 大統領이 発하는 行政命令에 의해 断行될 수 있다.

문제는 1954년에 締結된 相互防衛条約의 廃棄이다. 台湾과 기타 中華民国이 事実上 占領하고 있는 隣近 島嶼(金門, 馬祖 除外)에서 外部의 侵攻으로 인해 戦争이 発発할 경우 美軍의 参戦을 規定한 防衛条約은 台湾에 대한 美国의 防衛公約을 明文化한 것으로 이의 廃棄는 적어도 法的인 의미에서 美国의 台湾防衛公約의 廃棄를 뜻한다.

中共은 以上의 세가지 条件을 国交正常化를 위한 讓歩할 수 없는 前題条件이라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美国側의 立場에서 보면 中華民国과의 防衛条約을 廃棄하는 대신 台湾에 대한 防衛公約을 어떠한 形態로 持続시키느냐 하는게 関心의 焦点이다. 따라서 美中共国交正常化의 類型도 美国과 中華民国間의 相互防衛条約이 廃棄된 상태에서 台湾의 安全을 어떻게 保障하느냐하는 方法에 따라 区分될 수 있다.

三) 美·中國交正常化의 類型 : 日本方式

美中国交正常化에서 가장 많이 논論되고 있는 解決方式은 이른바 日本方式이다. 1972년 美中共間의 事実上의 関係樹立에 이어 中共과의 国交正常化를 断行한 日本은 中華民国과의 正式外交関係를 断絶하고 北京에 大使館을 新設했으며 中共을 中国의 唯一合法政府로 承認했다. 同年 9月 田中首相의 北京防問끝에 발표된 日·中共共同声明은 9個項으로서 ①両国間에 存在하는 一切의 非正常状態를 終息하며 ②日本은 中共을 中国의 唯一合法政府로 承認하고 ③日本政府는 台湾이 中国의 不可分의 一部라는 中共側 立場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⑷両国間에 外交関係를 樹立하고 大使를 교환하며 ⑤中共은 戦争賠償請求를 포기하며 ⑥平和五原則과 유엔憲章原則에 따른 恒久 平和友好関係의 確立에 合意하고 ⑦両国은 어느 쪽도 亜細亜 太平洋地域에서 覇権을 추구하지 않으며 第3国 혹은 第3国家群에 의한 覇権樹立도 반대하며 ⑧平和友好条約을 締結할 것에 合意하고 ⑨ 貿易, 海運, 航空, 漁業의 諸協定 交渉에 合意했다.

日·中共共同声明의 調印 직후에 있은 記者会見에서 太平外相은 1952年 中華民国과 맺은 平和条約이 廃棄되었으며 台北에 있던 日本大使館을 廃鎖한다고 発表했다.

그러나 日本은 台湾과 正式外交関係를 断絶했을뿐 그후에도 非公式的 関係를 계속 유지해왔다. 東京과 台北에 駐在했던 両国의 大使館이 廃鎖되긴 했지만 日本은 台北에 「日本交流協会」를, 中

華民国은 東京에 「東亜細亜関係協会」를 設置, 断交前의 大使館職員들을 대부분 그대로 配置, 事実上의 領事業務를 담당토록 했다. 따라서 断交후에도 両国間에는 交易을 中心으로하는 非公式的 関係가 持続되었으며 交易의 경우 断交前에 비해 오히려 그量이 増加했다.

다시말해서 日本方式이란 政治的 関係를 断絶하면서도 経済的 関係는 非公的으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台湾과의 関係에 있어 美国과 日本사이에는 重大한 差異가 있으며 그것은 곧 日本과 台湾사이에는 軍事的 要素가 없었음에 비해 美国은 台湾에 대해 防衛公約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美国과 中共사이에 国交가 正常化되고 台湾과 美国사이에 公式的인 政治関係가 断絶된후 台湾과 美国間에 交易등의 非政治的 関係가 持続되는 것을 中共이 反対하지 않는다고 하드래도 日本方式에 의하면 軍事的 関係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欠点이 있다.

四) 「바네트」方式및 그 類似型

이러한 日本方式이 지니는 欠点을 補完하기 위해 「브루킹스」研究所의 先任研究員인 「도크 바네트」는 다음과 같은 方式을 提示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美国은 中共이 提示하는 3個 条件을 모두 受諾하여 台湾과의 相互防衛条約을 廃棄하되 이와 併行해서 또는 相互防衛条約의 廃棄直後에 美国大統領이나 議会가 単独으로 또는 共同으로 一方的인 声明書를 発表하고 美国政府가 台湾의 防衛에 계속 関心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台湾에 防衛目的의 武器를 계속 供給할 것이라고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서 美国은 中共이 내세우고 있는 3個 条件을 充足시켜주는 동시에 台湾에 대한 防衛公約을 사실상 持続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바네트」方式에 대한 類似型도 여러가지 있다.
첫째 「랄프. 클라프」(「브르킹스」研究所 先任研究員)의 提案으로 美国大統領이나 議会가 単独으로 또는 共同으로 発表하는 一方的 声明은 그 法的 効果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美国은 相互防衛条約을 廃棄하고 駐台湾美軍을 完全撤収하고 台北의 美国大使館을 廃鎖하는 동시에 台北에 領事館이나 連結事務所를 設置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이것은 이른바 「잭슨」方式을 一部 修正한 것으로 領事館이나 連絡事務所와 같은 制度的 장치로서 美国과 台湾의 関係를 계속 維

持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둘째 類似型은 「하바드」大学의 「로스.태릴」교수가 提案한 것으로 領事館이나 連結事務所의 設置에 中共이 反対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相互防衛条約廃棄 直後에 美国의 大統領이나 기타 高位官吏가 台湾을 訪問하므로서 台湾에 대한 非公式的인 防衛公約을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셋째 類似型은 「캘리포니어」大学校의 「스칼라피노」교수가 提示한 案으로 相互防衛条約을 廃棄하는 대신 美国은 中共으로부터 台湾문제해결에 있어 武力使用을 포기한다는 具体的 約束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相互防衛条約을 廃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美国이 中共과의 国交를 正常化하는 경우 台湾을 中国의 一個省으로 認定하는 法的 効果가 発生하며 이런 상태에서 美国이 台湾에 대해 武器提供등 防衛公約을 持続하면 이는 主権国家의 国内문제에 干渉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中共이 台湾을 併合하기 위해 武力이나 기타의 方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美国이 台湾에 대한 防衛公約을 持続시키는 것이 現実的으로 매우 어렵다는 이유때문에 더욱 重要性을 띄고있다.

五) 「레이·크라인」方式및 그 類似型

「조지 타운」大学校 戰略国際問題研究所 研究部長인 「레이 크라인」은 美国이 中共의 3個 条件을 受諾해서는 안된다고 主張한다. 中華民国은 1949년 이후 台湾을 事実上 統治하고 있는 政府이며 따라서 美国은 中共을 中国本土를 支配하는 合法的 政府로 認定하고 外交関係를 樹立하는 동시에 中華民国을 台湾의 事実上 政府로 認定할뿐 아니라 이를 中共과 別途의 独立된 政府로 受諾해야한다고 한다. 따라서 美国은 台湾과 外交関係를 断絶해서는 안되며 中共이 中国 全体를 代表하는 唯一 合法政府라는 主張을 認定해서도 안된다는 主張이다.

「크라인」方式은 名分論과 現実論의 두가지 立場에 서있다. 中共이 中国大陸에서 8억이상의 人口를 支配하는 事実上의 政府이며 이를 承認하지 않는 것이 非現実的인 것과 마찬가지로 中華民国 역시 台湾의 1천7백만 人口를 支配하는 事実上 政府이기 때문에 이를 認定하지 않고 中共의 唯一合法政府論을 받아드린다면 現実의 한쪽만 보는 결과가 되어 名分論上 受諾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크라인」에 의하면 国交正常化를 필요로 하는 쪽은 오히려 中共이라는 것이다. 中蘇紛争이 데탕트의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四個近代化計劃을 추진하고 있는 中共은 美国의 科学技術 및 資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美国이 中共의 3個 条件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美国이 中共을 中国大陸을 統治하는 合法

政府로 認定하는 限 国交正常化가 이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크라인」方式과 類似한 方式으로는 「펜실바니아」州立大学校의 「패리스 창」이나 「메릴랜드」大学校의 「홍.다.츄」같은 사람들의 제안이 있다. 이들에 의하면 中共이나 中華民国이 모두 中国을 代表하는 唯一合法政府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中華民国을 台湾의 独立国으로 認定할 수는 없으며 그대신 美国은 台湾이 中国의 一部라는 主張을 認和하고 中華民国을 台湾을 統治하는 事実上 政府로만 承認해야 한다는 것이다. 台湾이 中国의 一部라는 主張을 認定한다는 것이 이를 承認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主張을 中共과 中華民国이 다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認知(take note of)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中共을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하는것이 아니며 後日에 台湾을 다시 独立国으로 認定하거나 또는 中国의 一部로 認定할 수 있는 餘地가 남게된다고 한다.

以上 소개한 美中国交正常化의 諸方式中에서 「크라인」方式은 현재의 中共의 立場에 비추어 가장 実現可能性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中共은 이미 数次에 걸쳐 3個 条件이 国交正常化의 必需条件이라고 밝혔다. 防衛条約을 廃棄하는 条件으로 武力使用을 抛棄하라는 主張도 中共의 内政干渉이며 第3者인 美国이 曰可曰否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中共은 「現在 台湾의 特殊한 事情을 考慮하여」 台湾문제를 解決하겠다는 것이다. 中共이 「現在 台湾의 特殊한 事情을 考慮한다」는 말의 뜻은 애매한 점이 많으나 대체로 中華民国이 台湾을 30年 가까이 事実上 支配하고 있

다는 점과 台湾解放을 위해 中共이 武力行使를 企図한다면 여러가지 복잡한 国際的 문제가 야기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含蓄的으로 示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台湾이 中国의 一部라고 主張하는 中共의 立場때문에 武力使用의 抛棄를 公式으로 発表할 수는 없으나 現在状態에서 中共은 台湾問題解決을 平和的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바네트」方式을 主張하는 人士들도 바로 이점을 상조하고 있다.

첫째 台湾문제는 美国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法的문제가 아니라 中国사람들에게는 主権国家로서의 民族的 感情의 문제이며 따라서 政治的 利害関係를 超越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現実的으로 中共은 中蘇紛争이나 国内経済発展計劃의 必要등에에 의해 美国과의 데탕트가 持続되어야 할 입장이며 따라서 美国의 反対를 무릅쓰고 台湾解放을 위해 武力行使를 断行해야할 現実的 必要性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 現在 中共은 軍事力에서 中華民国에 비해 優位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台湾解放을 위해서는 台湾해협을 건너 上陸作戦을 감행해야하며 中共은 現在 그러한 渡河上陸作戦에 필요한 輸送能力을 가지고 있지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美国이 防衛条約을 廃棄하고 中共이 武力使用抛棄를 公約하지 못한다 하드래도 台湾이 당장 軍事的 威脅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国交正常化가 日本式方式을 따를것이 바람직하며 台湾문제 해결에 있어 台湾의 特殊한 事情을 考慮하겠다는

등소평의 発言은 中共이 내세우는 3個 条件에 의해 国交正常化가 이루어진 후 美国이 台湾에 대해 交易을 계속하고 武器供給을 계속해도 中共이 黙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는 가능성을 示唆하는 것이라는 主張이다.

台湾의 経済成長이 계속되며 美国의 武器供給에 의해 台湾의 防衛가 保障되는 限 防衛条約이 廃棄되고 美中共間의 国交正常化가 成就된다고 해도 台湾의 将来는 事実上 政府로서 保障을 받게 되며 美国은 中共과 台湾間에 自律的인 関係正常化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므로서 台湾将来의 解決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美中共国交正常化와 함께 台湾에 美国의 領事舘이나 連絡事務所를 設置한다는 「클라프」方式이 「바네트」方式과 「크라인」方式의 折衷으로 상당한 長点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中共은 1977년 8월 「밴스」美国務長官이 北京을 訪問하고 바로 이方式을 提示했을 때 이미 拒否한바 있다.

결국 現在까지 밝혀진 사실들에 의하면 「바네트」方式이 中共側의 立場에 가장 가까운 것이며 美国側의 立場은 「클라프」方式이나 이의 変型을 主張하고 있다. 「바네트」方式에서 문제점은 正常化이후 美国이 台湾에 대해 계속 武器供給을 할경우 中共이 이를 準外交関係의 持続으로 看做할 것이냐하는 점인데 「바네트」교수에 의하면 武器供給을 美国籍会社가 직접 하지않고 第三国籍会社를 통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네트」方式과 달리 「스탠포드」大学校의 「빅터 리」교수

같은 사람은 段階的 方法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의 의하면 美国은 반드시 中共의 3個 条件을 同時에 受諾,正常化를 시도할 필요가 없으며 우선 가능한 것부터 段階的으로 하자고 한다. 그는 美国이 一方的으로 台湾에 駐屯하고 있는 残餘 美軍을 撤収하고 中共을 法的 認定,外交関係를 正式으로 수립하고 北京의 反応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台北의 美国大使館은 連結事務所나 領事館級으로 格下될 수도 있고 아주 廃鎖될 수도 있지만 그자체가 重要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문제는 相互防衛条約인데 中共과 外交関係가 正式으로 樹立되었다고 해서 美国과 中華民国과 사이에 締結된 防衛条約이 自動的으로 廃棄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주장한다. 中華民国은 台湾을 統治하는 事実上 政府이며 美国은 事実上 政府와 条約関係를 維持해온 前例가 있다는 것이다.

防衛条約이 中共과의 外交関係樹立과 台湾과의 外交関係廃棄(de-recognition)로 인해 自動廃棄되느냐 하는 문제는 学者에 따라 法律的 解釈을 달리하지만 「빅터.리」의 주장은 반드시 自動廃棄되는 것이 아니며 美国은 中共의 反応과 事態発展에 따라 이를 廃棄할 수도 있고 계속 維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防衛条約의 地位가 不分明한 상태에서 中共의 国交正常化에 응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 「빅터.리」의 주장은 美国이 美軍撤収와 中共認定을 一方的으로 断行하므로서 中共이 相応하는 措置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六) 國交正常化의 影響

美国과 中共間의 国交正常化가 미치는 影響은 물론 正常化가 어떤 条件下에서 이루어 지느냐 하는데 따라 달라진다.

만약 美国이 「바네트」方式에 의해 中共의 3個 条件을 모두 受諾하여 台湾과의 外交関係를 断絶하고 美軍을 撤収하고 防衛条約마저 廃棄하는 경우에는 台湾은 軍事的 威脅을 보다 강하게 느끼게될 것이고 美国의 武器供給이 期待以下로 내려갈 경우나 中共이 台湾에 대해 好戰的 政策으로 나올 경우 아마도 核武器의 必要性을 강하게 의식하게될 것이다. 台湾은 현재 상당수의 核発電所를 保有하고 있으며 必要하면 核武装을 早速한 시일내에 実現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물론 현재 台湾이 必要로 하는 核燃料는 미국에서 供給받고 있으나 美国이 核燃料의 供給을 거부하는 경우를 가상하여 우라니움生産国인 南아프리카共和国을 承認했을 정도로 核武装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台湾의 核武装은 東北亜의 国際秩序에 상당한 波瀾을 몰고 올 가능성이 짙다. 우선 台湾의 核武装은 日本의 核武装을 促進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日本은 台湾의 가장 중요한 交易国으로 台湾의 全体貿易量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中共과 日本 및 台湾은 近海油田開発에 서로 競争的 位置에 있으며 中東産石油를 포함한 日本의 対中東交易이 台湾近海를 지나 輸送되므로 台湾의 核武装이 日本의 安保에 미치는 영향은 直接的이고

即刻的이다.

中共의 입장에서 보면 台湾의 核武装은 台湾解放을 더할수 없이 복잡하게 만들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台湾의 核武装이 既定事実化하면 先制攻撃을 해서라도 이를 阻止할 가능성이 全無한것은 아니다.

台湾의 安保가 防衛条約의 廃棄와 그이후의 事態発展에 의해 威脅당할 경우 台湾이 蘇聯과 某種 関係를 樹立, 軍事的 側面에서 蘇聯에 依存할 가능성도 역시 전혀 排除할 수는 없다. 물론 美国의 立場이나 蘇聯의 立場에서 보면 이러한 最悪의 事態가 実現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軍事的 同盟까지는 가지않는다고 하드래도 台湾과 蘇聯의 関係가 現在以上으로 発展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특히 蘇聯의 立場에서 보면 中蘇紛争이 계속 悪化하는 경우 台湾과의 接近은 中共에 決定的인 打撃을 주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蘇聯極東함대의 印度洋進出이나 日本海 接近에 重大한 寄与를 하게 된다.

美国이 「바네트」方式에 의해 中共과의 国交正常化를 断行하는 경우 이러한 事態発展의 가능성을 전혀 無視할 수는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바네트」方式에 의한 国交正常化에 重大한 制限이 있다. 또한 「바네트」方式에 의한 国交正常化는 美国과 台湾間에 상당한 法的 문제를 提起할 것이다. 「바네트」方式에 의해 外交関係가 断絶되고 相互防衛条約이 廃棄되는 경우 현재 美国과 台湾間에 発効하고 있는 「友好, 交易 및 航海協定」(Friendship Commerce

Navigation Agreement)도 廢棄될 것이며 그런 경우에는 両国間의 交易등 非公式的 関係의 法的 地位가 애매하게 된다. 더욱 台湾과의 外交関係를 断絶하는 경우 法的으로 台湾은 中共의 一部로 취급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경우 台湾은 美国의 立場에서 보면 두가지 문제를 提起하게 된다.

첫째 一国과의 外交関係断絶은 美国의 国内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美国에 대해 「友邦国으로서의 地位」(Qriendly statns)가 喪失되는 것을 의미하며 別途의 立法措置에 의해 救済되지 않는 이상 美国의 援助나 最恵国待遇(Most Favored Notions Treatment)나 심지어 輸出入銀行의 借款에 있어서도 상당한 制約을 받게 된다.

둘째 台湾과의 外交関係断絶과 함께 台湾이 中国(中共)의 一部로 看做되게 되어 台湾의 法的 地位의 変動이 発生하게 되며 그런경우 共産国과의 通商에 있어 各種 制約을 規定하고 있는 「잭슨」修定案의 適用을 받게돼 美国과 台湾과의 法的 関係에 各種 制限이 딸리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中共은 国交正常化와 함께 対美関係에서 상당한 恵沢을 입게될 가능성이 짙다. 우선 国交正常化와 함께 凍結財産(Frozen assets)에 대한 解決이 뒤따를 것이며 이와 함께 그동안 凍結財産문제 때문에 制限되었던 民間레벨의 交易이 상당히 活発해질 것이다. 또한 外交関係의 樹立과 함께 中共은 最悪国待遇와 美輸出入銀行의 借款의 恵沢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짙으며

따라서 당장 급격한 增加는 없을지라도 両国間의 交易이 상당히 活発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四個 近代化計劃을 활발히 推進하고 있는 中共은 엄청난 外国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고 있으며 美国과 国交正常化가 実現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日本이나 西欧의 欧州共同市場国家(EEC)로부터 이를 들여오고 있는 実情이다. 「하바드」大学의 「퍼킨스」같은 교수는 여러 가지 経済的 要因들 때문에 国交正常化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美,中共間에 급격한 貿易増加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主張하지만 正常化가 両国의 貿易을 증가시킬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国交正常化는 台湾의 安保문제가 保障되고 台湾의 核武装과 같은 事態発展이 惹起되지 않는한 韓半島의 情勢変化에 肯定的 要因으로 作用할 가능성이 濃厚하다. 国交正常化는 中共과 美国과의 関係를 密着시키므로서 蘇聯의 極東進出에 대한 牽制役割을 하게되며 東北亜의 地域的 勢力均衡을 現状으로 維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日.中共의 接触拡大와 함께 美中共国交正常化는 韓半島를 비롯한 東北亜에서의 平和維持에 肯定的 役割을 하게되며 中共의 近代化計劃의 推進이 美国資本技術協力과 密着되므로서 中共은 東北亜의 現状維持에 直接的인 利害를 갖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中共과 美国.日本의 密着이 北韓의 利益을 희생시키지 않는 한 北韓과 中共의 関係는 당분간 적어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

며 中共이 韓半島에서 紛争発生을 바라지 않는 한 中共과 北韓의 密着은 韓半島 平和維持에 肯定的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中共은 北韓의 統一政策을 그대로 支持하고 있으며 大韓民国에 대해서는 外面的으로 融通性없는 硬直한 態度로 一慣하고 있으나 이는 北韓의 対蘇転向을 막기위한 政治的 配慮로 이해되며 韓半島문제의 平和的 解決을 바라는 中共의 立場에는 큰 変化가 없다고 판단된다. 中共과 美日의 関係가 密着되는것을 北韓이 利用하여 対美, 対日 接触을 기도할 가능성이 濃厚하며 韓国政府의 立場에서는 美中共国交正常化 이후 中共을 등에 업은 北韓의 対美, 対日接近의 가능성에 対備해야 하는 것이 政治的 当面 문제이다.

七） 日・中共平和友好條約締結과 韓半島

오랜 協商끝에 1978년 8월에 締結된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은 東北亜国際秩序에 있어 매우 중요한 意義를 갖는다. 1972년에 調印된 日・中共関係正常化로서 日本과 台湾間의 政治的 関係가 이미 決定되었기 때문에 日・中共友好条約이 台湾의 将来에 대해 가지는 政治的 意義는 重要하다고 볼 수 없다. 全文 5条로 구성되어있는 이 条約은 第1条에서 両締結国이 主権과 領土保全의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内政에 대한 相互不干渉을 규정하고 있을뿐 台湾에 대한 言及은 찾아볼 수가 없다. 日本政府의 立場에서 보면 1972년 9월의 日・中共共同声明에서 日本은 台湾이 中国의 不可分의 一部라는 中共側 立場을 理解하고 尊重한다고 했을 뿐 台湾이 中共의 一部라고 認定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台湾과의 非政府間 接触이 友好条約 第1条가 規定한 中共의 内政干渉이나 領土保全의 原則에 어긋난다는 게 아니다. 台湾과 日本과의 関係는 台湾 自体나 美国과 台湾間의 関係에 큰 変化가 없는 한 日・中共友好条約에 의해 영향받지는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日・中共間의 経済協力増加가 逆으로 日本과 台湾間의 経済協力을 阻害할 가능성이 全無한 것은 아니지만 現在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다.

그러나 日・中共友好条約은 日本과 中共間의 経済協力을 増進시키며 日本의 対蘇接近에 상당한 制動을 걸 것이며 아마도 北韓과

日本의 接近을 어느정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日本과 中共은 이미 1978년 2월 両国間의 8個年(1978~1985)民間貿易協定을 締結하여 往復 2백억달라규모의 貿易에 合意한바 있다. 이 協定에 의하면 中共은 日本으로부터 프랜트, 특히 製鉄, 製鋼부분의 프랜트를 輸入하고 그대신 石油와 石炭을 日本에 輸出하기로 되었다. 中共이 輸入할 日本의 프랜트中에서 가장 규모가 큰것은 上海부근의 宝山綜合製鉄工場으로 1982년까지 完工될 예정인 이 프랜트는 部属品까지 합쳐 30억달러에 상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民間貿易協定은 両国間의 友好条約이 締結되지 않은 상태에서 調印된 것이여서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특히 民間商業베이스에서 日本의 資本이 中共에 進出할 기회는 友好条約의 締結을 기다려야 했다.

따라서 友好条約締結과 함께 8個年 民間貿易協定이 13個年(1978~1990)으로 延張되고 交易量도 4倍이상 증가해서 8백억달러 내지 1천억달러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뿐만아니라 日本輸出入銀行이 제공하는 年利 7.25퍼센트의 商業用 借款이 이러한 막대한 経済協力을 財政的으로 뒷받침해 주게 되었고 中共의 近海油田開発에 日本이 参与하게될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그밖에도 経済的 側面에서 中共의 日本依存度는 友好条約締結을 계기로 급속히 深化되고 있으며 軍事的 交流까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日・中共友好条約은 日本의 対蘇接近에 적어도 당분간 상당한 制動을 걸게 된다. 中共이 日本과의 友好条約締結을 서두른 것은 中共의 国内的 要因도 크게 작용했지만 中蘇紛争을 의식한 中共이 日本의 対蘇接近을 牽制하기 위한 것이였다. 70년도 初 日本과 蘇聯間의 시베리어開発에 관한 経済協力이 中共의 反対로 日本이 参与를 거부하므로서 決裂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日・中共友好条約이 日・蘇関係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동안 日・中共友好条約의 協商이 지연되었던 것도 中共이 反覇権条項의 삽입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이였다. 友好条約의 第2条는 日本과 中共이 아시아 太平洋지역에서 覇権을 追求하지 않으며 覇権을 確立하려는 他国 또는 他国家集団의 企図를 反対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第4条에서 友好条約이 締結国과 第3国間의 関係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애매한 규정을 하고 있어 日本으로 하여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第2条의 反覇権 規定이 蘇聯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은 自明한 사실이며 蘇聯이 이를 反対하고 있다는 것을 日本政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 시베리어 開発을 포함한 日蘇経済協力이나 日本 北方 4個 島嶼에 대한 返還交渉이나 漁労協定交渉등은 成功의 가능성이 희박해 졌고 蘇聯은 日・中共 密着을 牽制하기 위해 日本近海에서의 軍事的 示威를 포함한 各種 圧力手段을 動員할 것으로 예상된다.

八) 臺灣의 國內政治

台湾의 政治発展은 6段階로 나누어진다. 제1단계는 1945년 부터 1949년 까지로 日本統治가 終結된 다음에 야기된 政治経済的 혼란을 수습, 질서를 수립하고 国民党 統治를 위한 재조정의 시기였다. 제2단계는 1950년 부터 1958년 까지의 시기로 国民党政府가 台湾으로 옮겨온 후 도시개혁을 단행하고 정치적으로는 대륙 본토인들의 反発을 무마, 새로운 統治의 기초작업을 끝낸 시기에 해당한다. 제3단계인 1959년 부터 1965년까지는 제2단계에서 다져진 정치경제질서를 발판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이 시작되는 시기로 1965년에는 台湾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가 중단될 정도로 台湾의 經済는 급속한 성장을 기록했다. 제4단계인 1966년 부터 1969년까지는 제3단계에서 이룩한 경제의 高度成長을 持続하는 동시에 国民党政府가 台湾本土人들의 政治参与要求를 수용하기위해 国内政治制度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時期이다. 제5단계는 1970년 부터 1975년까지로 미국과 중공사이에 데탕트가 이루어지면서 派生된 国際政治上의 문제, 특히 対外関係의 再調整의 時期라 하겠다. 끝으로 1976년 부터 현재까지의 마지막 단계는 蔣介石総統이 죽고 蔣経国이 사실상의 통치자로 君臨하는 이른바 蔣経国의 時代로 제5단계에서 解決되지 않았던 外交上의 諸問題를 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国内政治改革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6단계로 나누어진 台湾의 政治発展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国民党政府의 台湾土着化라 経済発展이다. 台湾土着化문제의 核心은 台湾人의 政治参与要求의 受容문제인데 이것은 国民党政府組織改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현재 台湾을 統治하고 있는 国民党政府는 1947년 中国本土에서 制定된 憲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組織構成도 이 憲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本土에서 実施한 総選挙에 의해 行해졌다. 그후 国民党政府가 台湾으로 옮겨왔을 때에도 1949년에 構成된 政府組織을 그대로 옮겨왔고 議会에 해당하는 国民大会나 그밖의 代議機関인 監察院 立法院등의 議員들도 1947년 本土에서 選出된 人士들이 대부분 그대로 따라왔다.

国民党政府가 台湾으로 옮겨온 후 적어도 1950년대 초반까지는 台湾을 머지않아 있을 本土収復을 위한 잠정적인 基地로 看做했으며 따라서 本土에서 構成된 政府組織을 그대로 維持할 수 밖에 없었다. 国民党政府가 中国全体를 代表한다는 主張의 法的 根拠가 바로 1947년 選挙에 있었고 만약 台湾에서 再選挙를 実施하는 경우 이러한 法的 主張이 修正 또는 弱化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土収復의 目標가 점점 遥遠해지고 이에 비례해서 国民党政府의 台湾勢権의 長期化가 不可避해지자 1947년 選挙는 政治的 神話로 変貌했다. 台湾에서의 再選挙의 必要性은 1947년에 選出된 国民大会, 立法院 및 監察院 議員들이 老齢과 疾病등으로 인해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므로서 더욱 상해졌다. 그러나

1947년 選挙는 神話라는 측면이외에도 現実的 側面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現実的 이유 때문에 国民党政府는 再選挙를 가능한 한 지연시켜왔다.

이러한 現実的 이유란 바로 台湾人들의 政府参与要求의 受容문제이다. 台湾에는 「한레」族의 原住民 外에도 16세기초부터 本土 주로 広東과 福建省에서 건너오기 시작한 本土人들이 흔히 말하는 台湾本土人의 絶対多数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1949년 国民党政府와 함께 건너온 本土人들과 区別된다. 따라서 台湾을 統治하는 国民党政府가 1947년 本土에서 行한 選挙에 기초하고 있는 한 台湾全体 人口의 絶対多数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台湾本土人들의 政治参与要求는 受容하기 힘든 現実이다.

国民党政府는 政治, 軍, 経済의 要職을 장악, 台湾社会를 엄격히 統制하고 있으며 台湾人의 政治参与는 가능한 한 統制되어왔다.

1968년에 台湾에 거주하는 本土人들이 出身省別로 選挙에 참가하는 補欠選挙가 실시되어 国民大会와 立法院 監察院등의 一部 欠員이 채워졌고 그후 두차례의 補欠選挙가 더있었다. 이 選挙와 그밖의 地方選挙에서 台湾人들의 進出은 상당하지만 이들 台湾人들이 대부분 国民党党員들이기 때문에 国民党統治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国民党政府의 台湾人의 政治参与要求에 대한 受容程度는 最近 상당히 拡大되었으며 그것은 対外的 与件의 변화, 台湾独立運動의 性格変化 및 国民党政府内의 変動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첫째 対外的 与件의 변화라함은 1972년의 美中共데탕트 및 日中共国交正常化에 따른 台湾의 国際的 弧立과 이에따른 本土収復의 現実的 不可能化와 国民党政府의 台湾勢権長期化가 不可避해 졌다는 점이다.

둘째 台湾独立運動이 50年代와 60年代 初의 過激한 反国民党政府의 立場을 버리고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온건한 改革運動으로 그 性格을 変貌시켰다는 점이다. 台湾独立運動은 50년代初 国内를 中心으로 하던 것이 国民党政府의 弾圧으로 점차 国外로 그中心地를 옮겼고 美国과 欧羅巴에서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이들 海外의 台湾独立運動団体들도 自体의 内紛과 異質的 이데올로기등의 要因들 때문에 球心点을 発見하지 못한채 散発的인 反国民党데모만 몇차례 벌였을 정도였다. 특히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中共과 美·日本등 西方国家들 사이에 데탕트가 実現되면서 国民党의 存立은 물론 台湾의 存立자체가 위협당하자 이들 台湾独立運動団体들은 대부분 国民党政府의 점차적 内部改革을 통해 台湾人의 政治参与를 拡大하는 方向으로 運動의 성격을 変貌시켰다.

셋째 蔣介石総統의 死去와 1978년 5월의 蔣経国新任総統의 就任을 들 수 있다. 対共産闘争으로 政治的 生命을 받친 蔣介石前総統과는 달리 蔣経国新任総統은 台湾人에게 政治参与門戸를 가능한한 開放하여 国民党政府의 台湾土着化에 本格的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台湾人出身인 謝東閔前台湾省長이 蔣経国総統에 의해 副総統

에 任命된 것이 台湾人의 政治参与를 적어도 상징적으로 代表해주고 있다 하겠다. 물론 実権은 아직 中国本土人들의 手中에 있고 台湾人이라고 해도 国民党党員으로서 国民党에 대한 忠誠心이 立証된 경우에만 要職에 발탁되지만 특히 経済貿易科学技術分野에서의 台湾人의 参与는 상당히 広範囲하다. 한마디로 말해 国民党政府가 当面하고 있는 政治的 문제는 美中共国交正常化에 対備하여 台湾에서의 位置를 굳히는 것이며 美中共国交正常化가 実現될 경우 台湾에서의 総選挙要求가 加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를 対備해서 온건한 台湾出身政治人들의 国民党政府参与를 가능한한 拡大해야 한다는 점이다.

九) 臺灣의 將來

이상 살펴본 台湾을 둘러쌓고 있는 国際的 諸与件과 国内事情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台湾의 将来는 다음 몇가지의 가능한 類型으로 묶어볼 수 있다.

a) 領土的 併合 : 美中共의 国交正常化가 바네트方式에 의해 実現되고 美国의 台湾에 대한 防衛公約이 公式으로 廃棄될 경우 中共이 台湾을 武力으로 併合하거나 台湾에서 総選挙등의 方式에 의해 中共과의 併合을 自進 決定하는 경우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後者의 경우는 現在 台湾人들의 意思가 台湾의 共産化를 反対하고 있어 現実的으로 不可能한 것이고 前者의 경우도 実現 可能性이 극히 稀薄하다. 그이유로는 우선 바네트方式에 의해 美台湾間의 相互防衛条約이 廃棄된다고 하드래도 美国의 台湾에 대한 非公式的인 防衛公約은 持続될 것이며 中共의 自体의 立場을 고려하드래도 台湾을 武力併合하는게 당장에 利로울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台湾이 中共과 分離, 独立을 一方的으로 선언할때를 가상하면 中共의 武力併合試図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美国이 이러한 事態発展을 事前에 予防할 것임이 明白하다. 또한 台湾에 대한 軍事的 圧力을 증가하기 위해 中共이 台湾近海에 海岸封鎖를 기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아직 中共海軍이 그러한 台湾海岸封鎖의 능력을 保有하고있지 못한 것으로 評価되고 있다. 中共의 台湾海岸封鎖는 石油등 海洋資源의 開発문제를 둘러싸고 中共과

台湾間에 紛争이 발생할 경우 그 可能性이 濃厚한 仮想事態인데 이는 中共의 近代化計劃의 推進如何와 그밖의 未知의 変数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分析이 不可能하다. 그러나 中共의 近代化計劃의 推進에 海洋資源의 開発이 早晩間 不可避해질 것이며 따라서 台湾과 中共間의 資源紛争이 앞으로 東北亜 国際秩序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이문제는 특히 日本과 韓国에 重大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韓国政府도 事前의 対備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b) 平和的 解放: 1972년 2월 이래 中共의 台湾解放方式은 平和的 解放이다. 美中共国交正常化의 代価로 武力使用의 抛棄를 中共은 아직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지적한 대로 現 国際力学的 視点에서 보면 武力使用이 非現実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平和的 解放이라는게 반드시 台湾이 中共에 의해 解放되어 領土的으로 併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中共의 궁극적 目標는 台湾의 解放이지만 台湾이 中共의 一部라는 公式的 立場의 만족되는 한 台湾이 실제로 独立国이나 準独立国으로 남는 것을 반드시 中共이 반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台湾의 将来는 台湾이 美国등과 公式的인 関係를 清算하고 事実上의 政府로서 経済的 独立을 유지하면서 政治的으로는 準独立国의 位置를 굳혀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台湾과 中共間에 業種의 便法(Modus Vivendi)이 成立해서 非公式的 関係가 수립될 가능성도 전혀 排除할 수는 없다.

결국 台湾의 将来는 美中共 및 日中共間의 関係発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겠지만 日中共의 関係가 주로 交易拡大의 形式을 취하고 美中共의 国交正常化가 바네트方式 또는 이에 準하는 類似型에 의해 断行된다고 가정하면 台湾의 持続的 経済発展의 可能性과 台湾人의 政治参与要求를 成功的으로 受容, 国民党政府의 台湾土着化가 成功하느냐의 如否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

바네트方式도 美中共国交正常化 이후 台湾의 軍事的 安全을 保障하면서 経済의 高度成長을 持続시키는 것을 그 内容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短期的 입장에서보면 美中共国交正常化와 日中共平和条約締結에 따른 交易拡大가 台湾의 経済発展과 貿易成長의 必要를 더욱 加速시킬 것이며 台湾과 비슷한 成長政策을 追求하고 있는 韓国政府로서는 日本과 美国市場을 둘러싼 台湾과의 貿易競争의 深化가 重要한 当面 課題라고 予測된다. 이에 덧붙여 美中共国交正常化와 日中共交易拡大는 韓国과 中共間에도 貿易의 競争的 形勢를 점차 深化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台湾의 将来는 政治軍事的으로 韓半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必然的인 사실이지만 이미 提示된 몇가지 可能한 事態発展에 대한 推測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正確한 分析은 台湾의 将来에 대한 科学的 予見이 非現実的이므로 不可能하다 하겠다. 韓国政府는 台湾의 将来가 招来한 経済的 영향에 보다 直接的인 関心을 가지며 台湾과 中共과의 貿易競争 深化에 따른 対備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附 記:

美国은 1978年12月16日 中共과의 国交正常化를 断行했다 (本 論文은 10月末에 作成된 것임). 豫想했던 일이긴 했지만 79年 初로 豫見하고 있던 일반의 관측을 뒤집고 카터行政府는 78年의 年内妥結을 강행한 것이다. 中共協商이 일단락되면서 카터大統領은 美中共国交 正常化를 断行하기로 決定했다고 알려졌고 8月의 日·中共 平和友好条約締結도 国交正常化 断行에 박차를 가한 것 같다.

이번에 断行된 国交正常化는 豫見했던대로 中共의 三個条件을 미국이 받아들여 自由中国과의 公式的 外交関係를 断絶하고 両国間의 相互防衛条約을 廃棄했고 台湾에 駐屯하고 있는 残留 美軍도 1979年4月까지 完全 撤収한다고 발표됐다.

결국 本論文에서 豫見한대로 美·中共国交正常化는 바네트方式에 의해 行해진 셈인데, 다만 한가지 差異가 있다면 台湾에 대한 美国의 防衛公約이 바네트 교수가 提示한 것보다 훨씬 弱化되었다는 것이다. 바네트方式에 의하면 美国은 中共의 三個条件을 受諾하여 台湾과의 相互防衛条約을 廃棄하는 동시에 台湾에 대한 非公式的 防衛公約을 一方的으로 宣言에 의해 계속 하도록 되있었다.

이번에 断行된 正常化決定은 이러한 一方的 宣言이 빠져있다.

美国이 台湾에 대해 계속 무기공급을 실시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벤스国務長官과 크리스토퍼国務次官이 이끄는 代表団이 各各 台北을 방문, 台湾에 대한 美国의 防衛公約을 非公式的으로 再確認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 美国의 対台湾防衛公約이 非公式的이나마 계속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一方的 宣言이 아닌 高位官吏에 의한 非公式 口頭約束이라는 점에서 美国의 防衛公約은 적어도 対外的 信憑度가 훨씬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国交正常化 이후의 美国과 台湾과의 관계는 당분간 非公式的 次元에서 維持될 것으로 展望된다. 国交 正常化 直後 台北을 방문한 美国政府代表団이 데모대에 의해 곤욕을 치루긴 했지만 台湾의 입장에서 보면 美国과의 現在 関係를 持続하는 길 이외에는 별다른 代案이 없는 것이다.

蔣経国総統은 国交正常化를 구실로 国内에서의 反対勢力의 탄압에 박차를 가해 権力의 기반을 다질 것이고 동시에 憲法改正등을 통해 国民党政府의 台湾土着化의 길을 넓힐 것으로 展望된다. 自由中国의 입장에서 보면 国交正常化이후의 가장 중요한 課題는 역시 対美関係의 再調整이며 美国으로 부터 非公式的이긴 하지만 台湾에 대한 防衛公約을 最大限으로 얻어 내고 동시에 계속적인 武器供給을 確保하고 対美・日通商路를 증가하는 것이다.

台湾의 장래는 궁극적으로 中共과 어떠한 関係(Modus Vivendi) 를 形成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 문제는 中共의 国内政治発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당분간 台湾은 準独立国으로서 国際法上 애매한 地位를 가진채 현재의 発展추세를 계속할 것이며 국내 정치의 발전, 특히 国民党政府의 台湾土着化와 対外交易에 의한 경제의 持続成長이 그 向方의 関鍵이라 하겠다.

第二部 : 臺灣問題解決에 關한 各種類型과 그에 關한 極東情勢變化

鄭 鍾 旭

< 略 歷 >

一. 서울大学校 文理科大学 外交学科 卒業

一. 美国 하와이大学校 政治学科 碩士

一. 美国 예일大学校 政治学科 博士

一. 美国 예일大学校 政治学科 専任講士

一. 美国 아메리컨大学校 国際政治学科 助教授

一. 서울大学校 社会科学大学 外交学科 助教授

次　　例

要約文 …… 41

I. 歴史的 背景 …… 47

II. 台湾의 政治発展 …… 53

1) 제 1 단계 : 回復과 再調整의 단계 …… 54

2) 제 2 단계 : 復興과 改革의 단계 …… 55

3) 제 3 단계 : 経済発展과 権力의 強化 …… 56

4) 제 4 단계 : 経済의 加速発展과 政治的 適応期 …… 57

5) 제 5 단계 : 国際関係의 変化와 国内政治 …… 59

6) 제 6 단계 : 蔣経国의 時代 …… 61

7) 国民党의 이데올로기 …… 64

8) 政治参与의 問題 …… 65

9) 国民党의 構造와 特徴 …… 77

III. 台湾独立運動 …… 81

IV. 経済発展과 社会的 問題 …… 90

V. 台湾의 政治的 将来의 向方 …… 100

1) 領土的 併合 …… 100

2) 平和的 解決 …… 101

3) 軍事 占領 …… 103

4) 自由中国 台湾独立国 …… 104

〈 要　約　文 〉

本 論文은 台湾의 政治的 安定과 経済発展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들을 분석하므로서 台湾의 政治的 将来에 관한 가능한 해결책을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측할 수 없는 国際的 사태발전이 없는 한 台湾의 自由中国은 본토로부터 独立한 台湾 自由中国(The Taiwanese Republie of China)으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自由中国의 台湾土着化는 60年대 말부터 윤곽이 분명해졌으며 蔣経国 新任 総統이 사실상 政権을 장악한 70년대 초기 이후에 본격화 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自由中国의 台湾土着化에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다. 우선 憲法上의 문제점이 있다. 現行 自由中国憲法은 1947년에 制定된 것이다. 孫文의 三民主義原則에 따라 1947년 이전까지는 訓政期였고 憲法에 의한 立法政治는 1947년에 비로서 시작되며 따라서 이해에 自由中国 최초의 憲法이 制定되었다. 이때 制定된 憲法은 보통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代議機関을 国民大会, 立法院, 監察院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같은 해 国民党 세력이 미치는 中国全域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1949년 国民党이 台湾으로 옮겨올 때 이들 代議員들은 대부분 国民党政府와 같이 台湾으로 왔다. 自由中国이 中国全体를 대표하는 合法政府라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현재 台湾에 있는 国民党政府의 구성이 1947년 中国本土에서 실시된 선거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自由中国은 台湾뿐만 아니라 中国全体를 대표하는 政府라는 論理가 성립된다.

이러한 論理가 自由中国의 法的 地位라는 측면에서 有用한 것임이 틀림없으나 동시에 적지않은 政治的 문제를 제기했다. 本土에서 선출된 国民大会, 立法院 및 監察院 議員들의 임기가 완료 되어도 台湾에서 再選挙를 실시할 수 없으며 만약 台湾에서 再選挙가 실시되는 경우 自由中国이 中国全体를 대표한다는 法的 論理가 크게 修正되어야 하는 「디렘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디렘마」는 台湾에 건너온 代議員의 수가 高齢과 疾病등으로 인해 점점 줄어짐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고 1969년 이후 몇차례에 걸처 制限된 규모의 보궐선거가 실시되긴 했지만 全面的인 再選挙가 실시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다.

全面的인 再選挙는 中国全体를 대표한다는 自由中国의 法的 論拠를 약화시킬뿐 아니라 台湾 本土人들의 政治参与를 급속도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고려때문에 그 実施가 더욱 복잡한 정치성을 띄고 있다. 사실 自由中国이 本土를 포함한 中国全域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이제 하나의 法的 虛構에 지나지 않는게 오늘의 現実이다. 蔣経国総統을 비롯한 国民党 지도자들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의 핵심은 台湾本土人의 政治参与를 어디까지 許容하느냐 하는

점이며 이것은 国民党政府의 台湾土着化와 密接한 관계가 있다.

国民党政府는 台湾本土人의 政治参与에 대해 신중한 政策을 펴왔다. 49년 이후 国際与件의 변화등으로 本土収復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짐에 따라 国民党政府는 台湾本土人들을 포섭, 그들의 政治参与 요구를 現体制의 테두리안에서 溶解하는 政策을 실시하는 동시에 과격한 反国民党人士들에 대해서는 強制力行使를 서슴치 않았다. 国民党政府는 台湾本土人들의 経済技術分野에의 参与를 특히 장려해왔으며 정확한 통계숫자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의 기술직에 종사하는 台湾本土人들이 国民党에 가입하고 있다고 추측되고 있다.

蔣経国総統은 1972년 行政院院長에 취임하면서 台湾本土人들의 政治参与를 실천에 옮겨 상당수가 政府要職에 起用되었다. 그는 台湾本土人인 謝東閔을 台湾省長에 起用했고, 総統으로 취임하면서 謝를 副総統에 지명하므로서 台湾本土人들과의 聯政体制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물론 말이 聯政体制이지 実権은 国民党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台湾本土人들의 政治参与要求를 어떻게 消化시키느냐 하는 것은 国民党政府의 台湾土着化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임이 틀림없으며 国民党政府도 現体制의 存続에 위협이 없는 한 台湾本土人들에게 政治参与의 문호를 개방하려 하고 있다.

만약 台湾土着化가 완성되기 전에 国際与件의 변화등으로 인해 自由中国의 法的 地位가 변하여 台湾에 국한하는 「台湾 自由中

国」의 출현이 강요되면 憲法改正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台湾本土人의 본격적인 政治参与가 이루워진다면 国民党政府는 직접적인 위협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점이 国内政治의 관점에서 본 国民党政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当面문제이다.

国民党政府가 직면하고 있는 또하나의 커다란 문제는 경제발전을 어떻게 持続시키느냐 하는 점이다. 台湾의 경제발전은 60년 초기부터 비약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国民党政府가 안고 있는 수 많은 정치문제도 급속한 경제발전 때문에 아직 크게 表面化하지 않고 있다. 특히 台湾本土人들이 国民党政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불만이 경제발전에 의해 다소 무마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台湾의 경제발전은 国際与件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自然資源을 풍부히 갖지 못한 台湾은 貿易의 伸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輸出品의 原料는 대부분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台湾의 貿易은 美国, 日本등 몇몇 特定国家에 偏重돼있기 때문에 이들 国家들의 경제사정에 영향받는 바 크다.
70년대 초기의 石油波動 때 自由中国의 무역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경제성장의 속도도 크게 鈍化되었던 사실이 바로 이러한 自由中国의 경제가 지니는 구조적 약점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中共의 国際무대진출에 반비례하는 自由中国의 국제적 지위약화는 貿易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에 체결된 日本과 中共과의 平和友好条約과 不遠 체결설이 나도는

美国과 中共과의 国交正常化는 이들 두 국가가 自由中国의 가장 중요한 輸出対象国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가 크다.

1972년 美国과 日本이 中共과 「데탕트」를 통해 外交関係를 수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自由中国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으나 실제의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미미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美.中共 国交正常化나 日.中共友好条約締結이 自由中国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나친 비관론이 時期尙早라 하겠다. 특히 中共의 現政権이 비교적 온건한 対外 정책을 表방하고 있으며 中蘇紛争이나 기타 국제정치적 여건을 고려하면 美.日과 中共과의 관계발전이 自由中国의 存続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성급히 豫測하기 힘들다. 그러나 台湾을 둘러싼 国際与件의 변화가 무역이나 지속적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如何하는지 이것이 国内政治上 적지 않은 문제점을 提起할 것임에 틀림없다.

台湾의 政治的 将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台湾 独立運動의 方向이다. 台湾独立運動은 国民党政府의 台湾総治를 全面 否定한다는 초기의 목표에서 크게 変質하여 国民党政府 内部로부터의 改革이라는 方向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것이 곧 台湾独立運動 자체의 포기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台湾에서 国民党政府의 기반이 강해지고 国民党統治의 全面 否認이라는 초기의 政策이 非現実的임을 인식한 결과 内部로 부터의 改革이라는 戦略的 후퇴라는 인상이 짙다. 따라서 自由中国의 国際的 여건의 변화에 따라 台湾独立運動이 그 戦略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결국 国内政治의 관점에서 고찰한 自由中国의 将来는 経済의 高度成長을 持続하는 동시에 台湾本土人들의 政治参与를 現体制의 테두리안에서 溶解하여 国民党政府의 台湾土着化를 如何히 실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I. 歷史的 背景

中国本土 남동쪽 1백 10마일 떨어져 있는 台湾은 원래 말레아族에 統하는 原住民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후반부터 주로 「학카」族들이 中国本土에서 건너와 定着하므로서 中国本土人과의 공식적인 접촉이 시작되었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스페인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나 1642년에 和蘭人들이 들어와서 스페인상인들을 쫓아내고 台湾을 동양무역의 寄港地로 삼았다.
이들 和蘭人들은 台湾에 東印度会社의 지점을 설치하고 그후 약 40년 동안 台湾近海의 해상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었다.

台湾에 漢族이 처음 定住하기 시작한 것은 明朝가 멸망한지 18년만인 1662年 明朝의 신하 鄭成功이 明朝의 没落신하들을 이끌고 台湾에 도착, 和蘭人들을 쫓아내고 이곳에 反清復明의 근거지를 수립하면서 부터였다.

그후 1683년 清朝가 파견한 토벌대가 台湾에 到着, 鄭成功 一派를 소탕하고 台湾을 清朝에 정식으로 귀속시키므로서 그후 2백년동안 中国의 一部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清朝는 台湾統治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地方統治権은 中国本土에서 移住해온 本土人들의 손에 있거나 이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台湾原住民들이 사실상의 統治権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 원주민들은 약 20만명 정도로 추산되었고 台湾에 移住하는 本土人들에 쫓겨 대부분 산악지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다. 清朝의 형식적 지배밑에 있던 1683年부터 1895年까지 台湾에서는 暴動사태가 끊이지 않고 사회정치질서가 상당히 혼란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발전이 全無했던 것은 아니었다.

기후조건이 좋고 강우량이 豊富한 西部地帯에서는 쌀의 生産이 大規模로 이루워졌고 高地帯에서는 사탕수수, 옥수수, 감자, 파인애플, 땅콩등이 재배되어 自給自足한 農業経済를 이루고 있었다. 대외무역도 상당히 활발하여 설탕과 차등의 농산물과 금과 석탄등의 지원자원도 輸出했었다.

台湾이 日本의 식민통치밑에 들어간 것은 清日戦争에서 清이 日本에 敗하고 下関条約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지만 台湾人들이 日本의 점령통치를 처음부터 지지하고 나왔던 것은 아니었다. 1871年 어느날 오키나와人의 배가 台湾 南部海岸에 표류해왔고 이들 선원들이 台湾原住民들에 의해 살해되자 日本의 明治政府는 清朝에 사신을 파견, 항의했고 清朝가 성의있는 대답을 하지 않자 日本은 海軍을 派遣, 台湾에서 군사시위를 벌렸다. 이에 당황한 清朝는 台湾의 중요성을 비로서 깨닫고 台湾에 대한 통치권을 강화하기로 결정, 台湾을 중국의 一個 省으로 정식 편입시키는 동시에 류.밍.찬을 초대 총독에 임명했다.

그후 清日戦争이 벌어지고 下関条約의 결과 台湾이 日本에 귀속하게 되자 台湾人들은 이에 반대, 清朝에 압력을 넣어 台湾의 日本 귀속을 철회하도록 했다. 台湾人들은 이러한 노력이 失敗

하고 台湾에 일본점령정치가 실시되려 하자 「台湾共和国」을 수립했으나 日本軍의 무력앞에 「台湾共和国」은 해산당했고 1895년부부 1945년까지 日本의 台湾統治가 이룩되게 되었다.

日本의 統治밑에 있었던 台湾은 社会経済的으로 急速한 成長을 거듭했다. 日本의 식민정책은 소규모 農業을 積極 장려했고 台湾과 日本과의 貿易에 종사하는 日本人들에게는 各種 특혜를 부여하여 商業活動도 상당히 활발했었다. 관개시설과 産業施設도 상당한 投資에 힘입어 1895年 以前에 비해 成長의 速度가 急速했다. 그래서 1939年에는 台湾의 個人当 平均 国民所得이 本土의 그것에 비해 39倍가 넘었다.

2次大戦後 연합군사령관인 맥아더장군은 国民党政府로 하여금 台湾에 있는 日本軍의 항복을 수락하고 연합군을 대신해서 暫定的으로 台湾에 軍事統治를 実施하라고 위임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国民党政府가 台湾에 관한 어떠한 法的 権利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中国은 이미 1895年의 下関条約에 의해 台湾을 日本에 양도했었다. 그러나 1941年 国民党政府는 中国이 日本과 체결한 모든 国際条約의 無効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후 蔣介石은 기회있을 때마다 中国의 失地 回復과 自由中国이 中国全体를 代表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우방국가들에게 주장했었다. 그 결과 1943年 12월1일의 카이로선언은 다음과 같은 条項에서 이러한 蔣介石의 주장을 사실상 認定하게 되었다.

> 三大 同盟国은 日本의 침략을 저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이 戰争을 遂行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利益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토확장의 의사도 없다. 우리의 目表는 日本이 1914年 以後 탈취한 태평양상의 모든 섬을 반환시키며 中国으로부터 탈취한 만주, 台湾 湖例島등 中国領土를 自由中国에 돌려주는데 있다.

自由中国은 이러한 카이로선언에 의해 台湾이 당연히 自由中国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카이로선언이 国際法의 効力이 없는 단순한 共同声明임을 지적, 国民党政府의 台湾領有権主張에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2)

台湾에 대한 法的 문제가 애매한 상태에서 国民党政府는 戰後 台湾에서 軍事統治를 実施했다. 그러나 国民当政府의 初期 占領 政策은 無能과 腐敗와 混乱으로 점철된 不幸한 것이였다. 台湾을 움직이던 48萬名의 日本人들이 終戰과 함께 귀국한 後 台湾의 政治, 経済, 社会의 機能은 마비상태에 빠졌고 게다가 国民党政府가 임명한 첫 省長인 첸.이는 無能한 장군으로 台湾人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식량위기까지 겹친 台湾의 経済問題를 타개하지도 못했다. 軍事統治의 구실아래 台湾人들이 政治에 参与할 기회는 완전히 봉쇄되었고, 불평분자들은 法的 節次를 밟지 않은채 구금 처형되어 台湾人들의 반감과 적대심은 폭발 직전에 있었다.

이때 터진것이 이른바 「2.28」사건이였다. 이 사건은 1947년2월28일 台湾女子 한사람이 不法製造한 담배를 팔았다는 理由

로 国民党政府의 경찰에 의해 사살된데서 시작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台湾全体에서 放火와 군중시위가 일제히 터졌으며 本土에서 급히 파견된 군대와 합세한 台湾의 경찰과 군대가 계엄령을 선포, 사건의 주모자들을 체포 처형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련 처형된 台湾人들의 숫자가 2만명선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이때 처형을 피한 「2.28」사건의 주모자들은 地下에 잠복하거나 또는 海外로 도피, 후일에 台湾独立運動의 핵심세력이 되었다.

「2.28」사건은 단순한 反擾사건이기 보다는 台湾人과 本土人들 사이, 특히 台湾人과 国民党政府사이에 곪틀거려온 오랜 反目과 不和가 表面化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음에 기술할 台湾独立運動의 시작을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2.28」사건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 있으며 이 사건이 台湾의 기구한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重要한 분기점이라는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 사건은 또한 1949年 가을 공산당에 쫓긴 国民党政府가 台湾으로 옮겨앉아 台湾을 中国의 35個 省中의 하나로 선언, 国民党政府의 사실상 台湾統治가 시작되는 前奏曲이었다는 데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暴力에 의존해서 「2.28」사건을 수습하고 질서를 회복한 国民党政府는 1947年 3月 첸.이를 해임하고 민간인인 웨이.타오.밍을 새 총독에 임명했다. 웨이.타오.밍은 台湾人들의 불만을 해

소하기 위해 台湾人들을 대거 정치에 参与시켰으나 本土에서 격화되고 있던 内戦은 台湾에도 심각한 波及効果를 몰고 왔다.

内戦이 공산당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本土人들이 대거 台湾에 移住하기 시작했고, 1949年1月부터는 공산당 세력의 대만침투공작이 눈이 띄게 늘어났다. 이에 대비해서 蔣介石은 陳誠장군을 대만총독에 임명, 国民党政府의 台湾遷都에 대비하도록 했다.

陳誠은 능력있고 청렴한 장군으로서 대만총독에 부임한 후 공산당세력을 소탕하고 本土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台湾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通貨改革을 단행했고, 小作料를 37.5퍼센트 감소하므로서 몇년 후에 실시된 土地改革의 기초를 다졌다.

그래서 1949년 12월 国民党政府가 台湾으로 정식으로 옮겨앉았을 때는 台湾의 政治 経済質序가 상당히 호전되어 있었다.

II. 臺灣의 政治發展

台湾의 政治発展은 여섯단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제 I 단계는 2차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国民党党政府가 台湾으로 옮겨온 1949년까지로 日本統治가 종결된 다음에 야기된 政治 経済的 혼란을 수습, 질서를 수립하고 国民党 統治를 위한 재조정의 시기였다. 제 2 단계는 1950년부터 1958년까지의 시기로 国民党政府가 台湾으로 옮겨온 후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政治的으로는 台湾人의 反撥을 무마, 새로운 통치의 기초작업을 끝낸 시기에 해당한다. 제 3 단계인 1959년부터 1965년 까지는 제 2 단계에서 다져진 政治 経済質序를 발판으로 급속한 経済成長이 시작되는 시기로 1965년에는 台湾에 대한 美国이 경제원조가 중단될 정도로 台湾의 経済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 제 4 단계인 1966년부터 1969년 까지는 제 3 단계에서 이룩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同時에 国民党政府가 台湾本土人들의 政治参与要求를 수용하기 위해 国内政治制度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제 5 단계는 1970년부터 1975년까지로 美国과 中共사이에 데탕트가 이루어지면서 파생된 国際政治上의 問題, 특히 対外関係의 재조정의 시기이라 하겠다. 끝으로 1976년부터 현재까지의 마지막 단계는 蔣介石総統이 죽고 蔣経国이 사실상의 統治者로 君臨하는 이른 바 蔣経国의 時代로 제 5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外交上의 제문제를 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国内政治改革에

여섯 단계의 政治発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한 단계식 그 정치발전의 특징을 분석해 본다.

1) 제 1 단계 : 回復과 再調整의 단계 (1945 ~ 1949). 日本의 항복후 国民党政府가 台湾을 占領했을 때 台湾은 中国本土보다 経済的으로 더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나 2차대전중 台湾은 美軍의 폭격으로 피해가 상당했으며 특히 台湾의 政治, 経済, 社会 文化의 모든 分野를 실질적으로 움직여 왔던 48만명의 日本人들이 일시에 철수하였기 때문에 台湾은 일종의 空白期에 빠져있었다. 国民党政府는 台湾의 戦後 政治, 経済 質序를 回復하기 위해 「첸 . 이 」장군을 台湾에 파견했으나 이것은 国民党政府가 범한 중대한 실수였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첸 . 이장군은 무능한 행정가였고 台湾이 직면한 政治, 経済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당했었다. 결국 그는 台湾本土人의 不和와 反撥을 해결하지 못하고 드디어는 1947년2월28일의 대반란사건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1949년 蔣介石과 그의 国民党政府가 本土로 부터 台湾에 도착했을 때 「2.28사건」의 여파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인프레등 경제문제도 해결을 기다리고 있었고 더욱 国民党政府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져 있었다. 国府軍은 말할 수 없이 부족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1949년1월 蔣介石의 후임으로 총통직을 맡고 있던 李宗仁 장군이 台湾으로 건너오지 않고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가버리므로서 国民党政府는 적어도 형식적인 지도자가

없는 격이 되었다.

2)제 2 단계 :復興과 改革의 단계 (1950 ~ 1958). 台湾으로 건너온 蔣介石은 즉시 총통의 자리에 다시 취임하는 동시에 国民党의 개편을 단행했다. 部分的이긴 하지만 選挙를 実施, 地方自治制를 導入 台湾省議会를 構成 했고, 小作料를 37.5 퍼센트로 묶어 놓으므로서 台湾本土人들 특히 小作人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1951 년에 立案 1953 년부터 실시한 토지개혁을 地主들로부터 유잉여 농토를 빼앗아 이를 실제 경작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地主들은 빼앗긴 잉여농토에 대한 대가로 政府가 발행한 公債나 주식을 받았다. 「農土를 경작자에게 반환한다」라는 슬로건 밑에 실시된 이 土地改革運動은 상당히 効果的인 것으로 評価되고 있으며 戦後 황폐해진 台湾의 農村経済를 回復시키고 다음 단계의 급속한 経済成長을 이룩하는데 획기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土地改革과 함께 1953 년부터 第 1 次 4 個年 経済計劃이 実施되어 電気, 肥料工業과 경공업 分野의 発展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제 2 단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事件은 역시 韓国戦争이였다. 韓国戦争의 발발을 계기로 美国의 台湾政策의 거의 180° 방향전환을 했고 현실적으로 中国을 지배하는 政治団体 즉 공산당이 中国을 代表하는 정부라는 트루만大統領의 종래의 立場이 国民党支持로 변했다. 韓国戦争 발발과 함께 트루만大統領은 美国의 제 7 함대를 台湾海狭에 派遣, 中共軍의 台湾 무력침공에 대비하게 했고 유엔総会에서 中共을 침략자로 規定지우므로서

美国과 中共과의 関係는 그후 20년 以上 事実上 敵対関係에 돌입하게 되었다. 美国은 또한 韓国戦争과 함께 台湾에 대한 軍事援助와 経済援助를 시작했고 台湾과 相互防衛条約을 締結하므로서 台湾과의 同盟関係에 들어갔다.

이러한 対外関係의 発展과 함께 国内的으로 経済, 政治의 安定이 이루어졌고 극히 제한적이긴 했지만 台湾本土人, 특히 農村에 거주하는 台湾本土人들의 政治参与度가 増加하게 되었다.

이러한 台湾의 부흥과 改革과는 대조적으로 中国本土에서는 大躍進運動이 일어나고 있었고 台湾解放이 現実的으로 힘들어진다고 느낀 共産党은 1958년 8월 金門島등 台湾과 本土사이에 있는 섬들에 대한 砲画을 실시했다. 그러나 美国 제7함대의 지원과 国府軍의 善戦에 힘입어 金門島사건은 共産党이 그 目的을 達成하지 못한채 끝나고 말았으며 이를 계기로 台湾을 무력해방시키겠다는 共産党의 計劃이 現実的으로 事実上 白紙化되었다. 동시에 国民党政府도 단시일내에 무력에 의한 本土解放 또는 本土復帰의 希望을 事実上 포기하고 台湾에 長期 집권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3) <u>제 3 단계 : 経済発展과 権力의 강화 (1959 ~ 1965)</u>. 이 기간동안 台湾은 괄목할만한 経済成長을 이룩했다. 인프레 문제가 1960년에 이르러 사실상 해결되었고 1963년까지 農土에 대한 負債를 完全히 청산한 농민들은 국내시장의 중요한 소비자로 등장해서 国内市場에서의 需要가 크게 늘어났다. 貿易도 크게 増加해서 1960년에 1億7千4百萬달러이던 輸出이 4년 뒤인 1964년

에는 4億9千萬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제요인들로 인해 1961년부터 68년까지 経済의 平均年成長率은 10퍼센트라는 놀라운 記録을 수립했고 台湾経済의 急成長은 1965년 美国이 経済援助를 中止하는 事態로 発展했다.

그러나 이러한 経済部分의 発展에 비해 政治部分의 発展은 여전히 극히 제한된 성질의 것이였다. 경제발전과 함께 国民党의 台湾統治는 그 統治力을 강화하고 長期집권의 기반을 다지는 方向으로 発展해갔다. 특히 이期間中 国民党은 台湾本土人들의 反撥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다. 그래서 1960년 9월에 反政府的인 잡지인 自由中国月報의 편집장 레이.첸이 체포 되었다. 政府는 그의 체포가 그가 共産主義活動의 혐의를 받고 있던 동료 1명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그가 国民党政府에 反対하는反対党을 형성하려했기 때문이었다. 4년후인 1964년 9월에는 台湾国立大学校의 政治学課 주임교수이며 台湾内에서 널리 알려진 펑.밍.민교수가 체포되었고, 그의 체포 역시 공식이유와는 달리 그가 国民当政府에 반대해서 台湾独立運動을 주창했기 때문이였다. 어쨰든 제3 시기인 1960년대 전반기는 급격한 経済発展과 함께 政治的으로 반대세력을 탄압하므로서 国民党집권의 기반을 공고히한 시기였다.

4) 제4 단계 : 経済의 加速発展과 政治的 適応期(1966 ~ 1969).

이 期間中 台湾의 経済는 加速的으로 発展했고 이와 同時에 国民들의 生活水準이 높아져 1969년에는 아시아에서 日本과 싱가폴

다음으로 国民所得이 가장 높은 나라로 成長했다. 政治的으로는 国民党이 台湾으로 옮겨온 후 最初로 国民大会와 立法院의 보궐선거가 이루워졌다. 国民大会는 憲法을 改正하고 総統과 副総統을 選挙할 権利를 가진 機関이고 立法院은 法律의 制定権을 가진 機関으로서 두 機関이 모두 서방국가의 議会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두 立法기관은 1947년 国民党政府가 本土에 있을 때 構成된 것으로 1949년 国民党政府가 台湾으로 옮겨오면서 그대로 台湾으로 옮겨왔다. 国民党政府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 두 議会機関은 台湾뿐 아니라 中国全体를 代表하는 汎国家的機関이며 따라서 中国本土에서 選挙가 不可能한 以上 台湾에만 국한해서 이들 두 議会機関의 選挙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台湾에서 이들 두 機関에 대한 再選挙를 実施하는 경우 이들 두 機関이 中国全体를 代表한다는 명분이 事実上 없어지게 되며 따라서 国民党政府가 中国全体를 代表하는 유일한 合法政府라는 法的 論理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이미 제3 단계인 60년대 初期에 접어들면서 国民党의 本土収復은 단시일내에 実現되기 힘든 비현실적 꿈인 것이 분명해졌고 그와 함께 国民大会와 立法院이 中国全体를 代表한다는 주장도 하나의 法的 虚構임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만약 国民党政府가 이러한 現実을 시인하는 경우 그것은 本土収復의 꿈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뿐 아니라 台湾에서 인구비례의 選挙를 実施해야 하고 따라서 台湾本土人들에게 議席의 절대다수를 넘겨주어야 할

지도 모른다는 政治的 고려때문에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는 台湾 内의 統治技術上 必要한 虛構였다. 그러나 問題는 47년 本土에서 選出된 国民大会와 立法院 議員들중 상당수가 本土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国民党政府와 함께 台湾으로 건너온 議員들 중에서도 老齡등에 의한 自然死가 늘어나 議員数가 점점 줄어드는 現実이었다. 그렇다고 再選挙도 実施할 수 없는게 国民党政府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名分과 現実사이에 고민해오던 国民党政府는 1969년 드디어 용단을 내려 制限된 범위에서 보궐선거를 台湾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5명의 새議員을 国民党大会에, 11명의 새議員을 立法院에 그리고 2명의 새議員을 監察院에 각각 選出했다. 이들 새로 選出된 議員들은 모두 台湾本土人들이였다.

이 보궐선거를 実施하므로서 国民党政府가 名分보다 現実을 택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名分을 전혀 포기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名分과 現実사이에서 제한된 타협점을 모색한데 불과하다.
이 보궐선거에서 重要한 事実은 새로 선출된 議員들이 모두 台湾本土人들이였다는 점이며 이 문제에 대한 根本的인 해결은 아직까지 国民党政府가 안고 고민하고 있는 현재 台湾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政治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 제5 단계 : 国際関係의 変化와 国内政治의 再調整(1970 ~ 1975)

이 기간은 自由中国이 1949년 台湾으로 옮겨온 이래 最大의 시련이기도 하다. 美国과 中共의 데탕트가 상징하는 台湾을 둘러싼

国際関係의 변모는 自由中国을 国際的 고립상태에 몰아 넣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国民党政府는 과감한 政治的 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時期였다.

台湾을 둘러싼 国際関係의 변화가 첫신호를 올린 것은 1970년 10월 캐너더政府가 中共을 承認하면서 부터였다. 뒤이어 中共의 유엔議席権問題에 過半数의 規則이 適用된다는 유엔결의가 채택되므로서 自由中国의 유엔議席상실은 시간문제로 남게 되었고, 1971년 2월에는 닉슨 미국대통령이 中共에 대해 中華人民共和国이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므로서 머지않아 미국과 중공사이에 중대한 관계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것은 1971년4월 미국탁구단의 中共訪門과 7월의 닉슨의 中共訪問招請受諾에 이어 다음해 2월 닉슨의 중공방문이라는 일련의 사태로 구체화 되었다.

1971년10월에는 自由中国이 유엔議席을 상실했으며 1972년 9월 日本이 中共을 承認하므로서 自由中国과 外交関係를 맺고 있는 나라의 수는 40個国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국제역학의 변천에 따라 国民党政府안에서도 몇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 우선 台湾内에서 国民党政府에 대한 세력기반을 넓히기 위해 1972년12월에 두번째로 全国的인 보궐선거가 행해져서 52名의 새議員이 国民大会에 그리고 51名의 새議員이 立法院에 選出되었고, 동시에 地方選挙가 実施되어 台湾省議会를 비롯해서 각 県과 市의 議会와 県, 市長이 새로 選出되었다.

또한 蔣経国이 行政院 院長에 취임하여 改閣을 단행, 새인물을 기용하므로서 蔣経国体制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젊은 인물들을 入閣시키고 특히 상당수의 台湾本土人을 요직에 등용하므로서 台湾人들에게 政治参与의 기회를 넓혀주고 国民会政府의 台湾土着化를 政治的으로 現実化시키는 作業을 시작했다.

6) 제 6 단계 : 蔣経国의 時代(1976~現在). 1975년4월5일 蔣介石総統의 죽음은 台湾의 政治発展史에서 하나의 새로운 章을 기록하는 것이였다. 中国의 統一과 本土収復의 꿈이 그의 죽음과 함께 사실상 사라졌고 父親의 뒤를 이은 蔣経国이 이끄는 새로운 지도체제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蔣経国이 自由中国의 새総統으로 취임한 것은 1978년5월20일이었다. 蔣介石総統의 사망후 잠시 総統職에 앉았던 72歲의 嚴家淦은 1977년12월 자신이 차기 総統職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国民党 中央常任委員会가 蔣経国을 党의 총통후보로 지명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国民党 中央常任委員会는 1978년1월 蔣経国을 새総統의 후보로 그리고 蔣経国의 要請에 따라 台湾本土人으로 最初의 台湾省長을 지낸 謝東閔을 副総統의 후보로 지명했다. 1978년3월21일 総統과 副総統의 選出할 権限을 가진 国民大会는 台非市의 陽明과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는 中山堂에서 1천2백여명의 議員들이 모인 가운데 本会議를 열고 蔣経国과 謝東閔을 総統과 副総統에 각각 選出했었다.

그러나 蔣経国의 사실상 統治는 1978년5월20일 보다 훨씬

이전에 실시되어 왔었다. 1965년 陳誠副総統이 죽음으로서 蔣経国의 계승권에 도전할 가장 유력한 후보가 없어졌고 60년대 말 蔣経国이 国防部長겸 行政院 副院長(副首相에 해당)에 취임하면서 그의 후계계승은 시간문제라고 믿어져 왔었다. 그후 1972년 蔣経国은 首相에 해당하는 行政院 院長에 취임해서 行政院 주위에 젊고 능력있는 기술관료형의 측근들을 모았다. 그는 또한 유능한 대만본토인들 사이에 자신의 세력을 뿌리박기 위해 노력했고 그결과 상당수의 台湾本土人들이 行政院과 그밖의 政府 요직에 기용되었다. 蔣介石 総統이 사망한지 3주일만인 1975년 4월 28일 国民党은 蔣経国을 신설된 党中央常任委員会議長에 選出하므로서 蔣経国은 사실상 이때부터 党과 政府의 실권을 한손에 쥐게 되었던 것이다.

蔣経国이 실권을 장악함에 따라 国民党政府内의 権力構造改編은 불가피해졌고 그것은 世代交替의 양상을 띄고 있기도 했다. 蔣経国은 父親 蔣介石의 측근들을 교묘한 方法으로 政府要職에 閑職으로 밀어냈고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인 기술관료들을 앉혔다. 国民党의 中央常任委員会에는 현재 蔣経国의 측근으로 알려진 기술관료들과 역시 蔣経国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3명의 台湾本土人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軍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 蔣経国과 가장 가까운 장성으로 알려진 왕.셩장군이 国防部의 政治総局長의 要職에 앉아있고 왕의 前任者이며 역시 蔣経国의 측근이라고 알려진 로.유.룬장군은 무기근대화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国防部 軍需局長의 要職에 앉아있다. 蔣経国総統은 70년대 초기 行政院 院長으로 있을 때부터 国家安全会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要職에 앉히므로서 国家安全部分에도 막강한 세력을 부식해 놓았던 것이다.

총통에 취임한 蔣経国은 大衆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台湾의 고도성장을 지속시키는 한편 国民党政府의 台湾土着化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가 台湾本土人이며 自身의 측근인 謝東閔을 부총통에 임명했으며 党과 政府의 要職에 台湾出身의 기술관료들을 상당수 등용하고 있는 것도 国民党政府의 대만 土着化를 기하는 蔣経国総統의 政策을 반영하고 있다.

蔣経国総統은 또한 党과 政府안의 부정부패일소에 크게 역점을 두고 있으며 부정부패는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法이 許容하는 最高刑을 선고 받는 등 형사상 엄한 처벌을 받고 있다. 새政府의 부정부패일소캠페인을 1977년에 있었던 文教部長 . 창.원.시의 解任사건만 보더라도 이 캠페인이 새政府에서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창.원.시가 文教部長으로 있는 동안 어느 国民学校 学生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도중 배가 전복되어 타고 있던 학생들이 몰사하는 사고가 생겼는데 사고가 터지자 마자 창은 그 책임을 물어 즉시 해임되었던 것이다.

蔣経国総統의 부정부패일소캠페인은 蔣介石総統과 같이 본토에서

건너온 부패하고 무능한 그러나 蔣介石総統과 가까운 元老 政治人이나 관료 또는 실업가들에게도 겨냥되었다.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外国 특히 美国에 거주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페인은 더욱 미묘한 정치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国民大会대의원을 겸하고 있던 한 여성정치가가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임하는 등 이들 元老人들을 겨냥한 캠페인도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고 있다.

지금까지 台湾의 政治発展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이러한 縦的인 분석이 지니는 결함을 보충하고 台湾이 안고 있는 政治的 여러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政治発展을 여러 기능적 방면으로 나누어 横的 分析을 시도하고자 한다.

7) <u>国民党의 이데올로기</u> : 国民党의 이데올로기는 三民主義라고 알려진 民族主義, 民主主義, 民生主義이다. 国民党의 創始者 孫文이 주창한 三民主義는 国民党의 공식이념으로 党憲에 채택되었고 1946년에 채택된 自由中国의 憲法도 三民主義精神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1924년 무렵에 孫文은 주로 広東地域에서 行한 여러차례의 演説을 통해 자신이 내세운 三民主義를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 実現方策들에 대한 언급은 극히 희소하고 대개가 추상적 이상의 이론화에 그치고 있다.

孫文의 설명을 빌면 民族主義란 中国이 적어도 文化的 의미에서 単一 民族이며 따라서 単一 国家로 統一되어 単一 政府밑에 뭉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民主主義는 정치과정의 民主化를 가르키며

民生主義란 国民의 생활과 복지정책을 의미한다고 한다.

国民党政府는 이 三民主義를 공식 이념으로 채택하고 民族, 民主, 民生의 세가지를 모두 강조해 왔지만 시대적 여건의 変化에 따라 이 세가지 主義는 그 強度가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왔었다. 대체로 말해 45년 이전에는 共産党을 토벌하고 中国을 統一하는 것이 最先의 任務였고 그래서 民族主義가 強調되었다. 49년 台湾遷都 이후에는 経済回復과 経済成長등이 急先務가 되어 民生主義가 특히 強調되었고 60년대 후반 国際情勢의 変化와 함께 大陸収復의 希望이 희박해지고 経済成長의 基礎가 다져지자 国民党体制의 台湾土着化가 중요한 政治問題로 등장했으며 이에 따라 三民主義는 民主主義를 크게 強調하고 있는게 現在의 実情이다.

8) 政治参与의 問題: 地方에서는 政治参与의 정도가 높은데 비해 中央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못한게 台湾의 政治参与가 지니는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台湾의 国民党政府가 台湾뿐 아니라 中国全体를 대표한다는 名分때문에 国民大会와 立法院 및 監察院등 全国的 성격을 지닌 代議機関에의 政治参与의 기회는 극히 制限되어 있다. 1969년 台湾에서 이들 세 기관에 대한 보궐선거가 実施되었으나 国民党政府가 中国全体를 代表한다는 名分論과 事実上 台湾만을 統治하고 있다는 現実 때문에 台湾에 거주하고 있는 中国本土人들 사이에 本土의 出身省별로 권원이된 大議員들을 選挙하는데 그쳤고 따라서 国民大会와 立法院 및 監察院이 台湾의 現実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前世代의 유물이라는

근본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채 남아 있다.

그러나 地方選挙에서는 台湾本土人에게 많은 参与의 기회가 주어져 왔었다. 台湾本土人이라고 하지만 国民党党員이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台湾本土人들이 得勢하는 것이 반드시 国民党党勢의 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台湾本土人들 특히 広東省出身 사람들 사이에 無所属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台湾의 地方選挙에서 台湾本土人들이 国民党과 다른 의미에서 政治参与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도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国民党에 대한 지지도는 특히 市長選挙의 경우 상당히 낮아지고 있으며 지난 1977년 11월에 실시 되었던 最大 規模의 地方選挙에서도 無所属은 20個의 市県長席 중에서 4개를, 77個의 台湾省 議会席 가운데 21개를, 그리고 51개의 台非市議会席 중에서 8개를 각각 차지하므로서 国民党이 台湾의 地方選挙를 独点하던 時期는 이미 지나 갔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物論 無所属으로 출마한 인사중에는 国民党의 공천을 받지 못해 無所属으로 나온 인사들도 있지만 이들 인사중에는 国民党을 중심으로 自由主義的인 성격을 띈 새로운 그룹을 형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극히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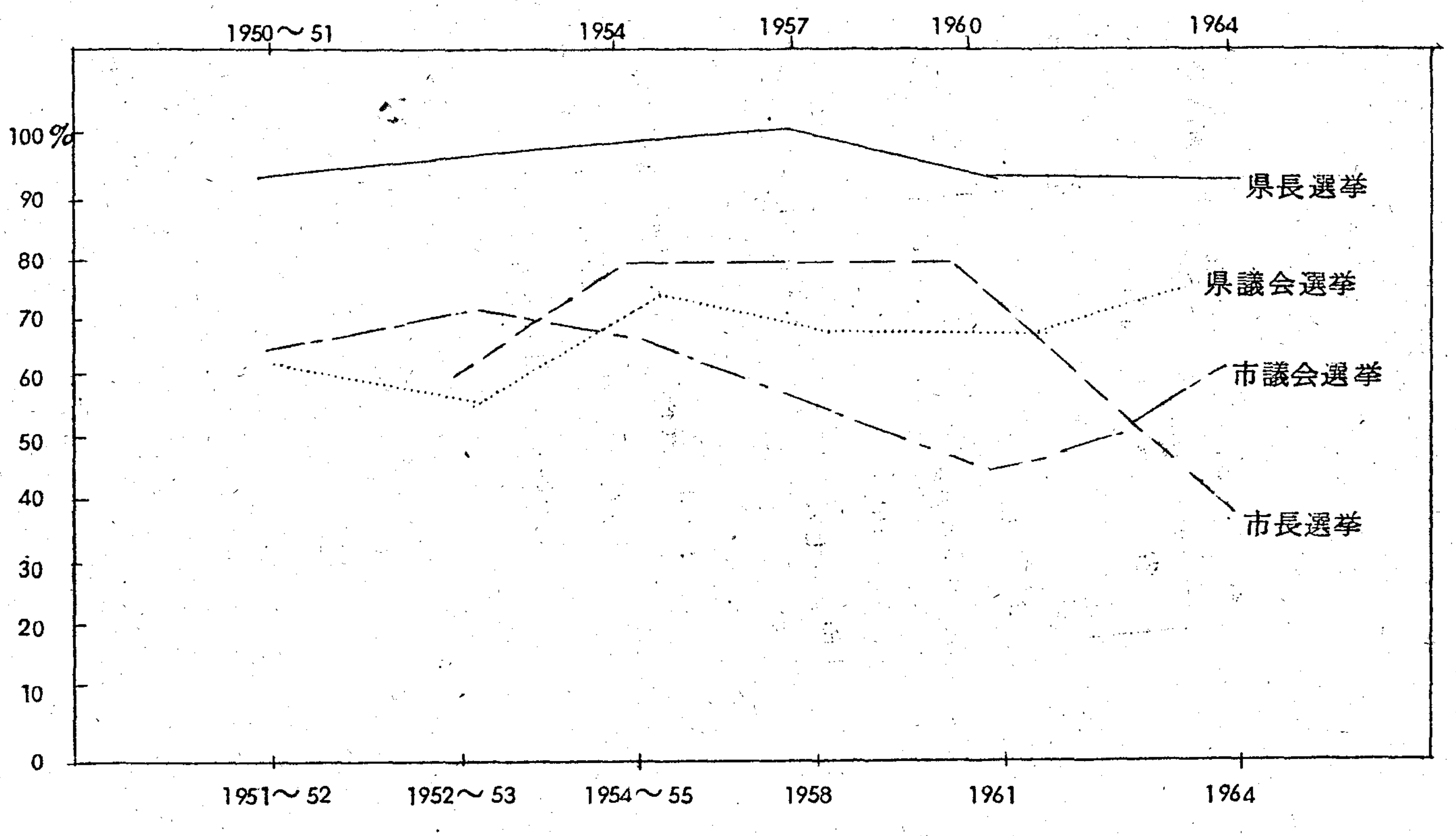
또한 도표 3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방선거에의 투표율도 평균 7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台湾本土人들의 政治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図表 1. 省出身과 政党選好의 聯関関係

省 出 身	国 民 党	無 所 属	%	표준숫자
省出身				
台湾本土人				
福建省出身	80.0%	20.0%	100	135
広東省出身	40.0%	60.0%	100	5
中国本土人	97.4%	2.6%	100	76

註 : 이 資料는 황, 티엔, 충의 1971年 台湾政治大学校의 政治学 석사 論文에 수록된 資料로서 表本은 대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대북시 選挙 경우에 국한 함.

図表2. 台湾의 県 및 市 選挙에 나타난 国民党의 세력분포 : 1950 ~ 64



註 : 이 資料는 타이 홍. 차오가 쓴 国民党과 台湾의 近代化에서 인용한 것임.

図表 3. 台湾省과 地方選挙에 나타난 投票率

選挙	選挙日	人口	選挙人数	投票者数	投票率	議席数	候補者数	競合率
台湾省議会	1963.4	11,439,787	5,236,896	3,626,952	69.26	74	123	1.66
県 및 市長	1964.4	11,984,770	5,337,450	3,719,969	69.05	21	47	2.24
県 및 市議会	1964.1	11,723,542	5,336,985	4,076,606	76.76	907	1,563	1.72
邑 및 面長	1964	9,355,064	4,115,621	3,192,040	77.53	316	580	1.8
邑 및 面議会	1964 - 65	9,335,687	4,117,992	3,086,926	74.96	4,776	8,510	1.8
里 및 区長	1961 - 64	10,755,429	4,870,638	3,031,641	62.24	6,548	10,395	1.6

註 : 이 資料는 台湾地方自治資料 (台湾 , 1965) 에서 인용한 것임.

図表 4. 台湾의 各 県 및 市 選挙에 나타난 投票参加率：

1950 ～ 1964

年度	県 및 市 長	県 및 市 議 会
1950-51	75.77	80.73
1951	82.40	
1952-53		79.72
1954	74.85	
1954-55		78.88
1957	78.20	
1958		78.31
1960	72.49	
1961		73.83
1964	69.05	76.76

註： 이 資料는 台湾地方 自治資料 (台湾, 1965) 에서 인용한 것임.

図表 5. 教育程度와 政党選好의 聯関関係

政 党 選 好

教育程度	国民党	無所属	%	표본수자
大 学	92.0 %	8.0 %	100 %	50
高等学校	85.7 %	14.3 %	100 %	91
国民学校	75.4 %	24.6 %	100 %	57

註: 이 資料는 융.웨이가 쓴 台湾의 政治発展이라는 論文에서 인용한 것임. 表本은 대북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대북시의 選挙에 局限된 것임.

図表 6. 出身省과 投票 参加率과의 聯関関係 (대북시)

出 身 省	投票参加率	投票不参率	%	표본숫자
中国本土人	84.4 %	15.6 %	100	96
台湾本土人				
長期居住者	79.7 %	20.3 %	100	118
短期居住者	59.3 %	40.7 %	100	113

註 : 이 資料는 황. 티엔이 1971 년 台湾 政治大学校에 提出한 政治学 석사 論文中에서 인용한 것임. 표본숫자는 대북에 居住하는 投票 有資格者들이며, 대북시 地方選挙에 局限함. 短期居住者란 現住所에 5 年以下 居住한 者를 지칭함.

政党의 選択은 投票者의 教育程度와 出身別 地方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台北市의 경우(図表5 参照), 教育程度가 높으면 높을 수록 国民党에 대한 지지율이 많아지고 반대로 教育程度가 낮으면 낮을 수록 無所属에 대한 投票率이 높다. 표본숫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이것이 얼마나 일반 타당성 가지는 것인지 말하기 곤란하나 中国本土人들의 平均教育水準이 높으며 国民党員들의 平均 教育水準도 一般의 그것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充分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도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中国本土人들 사이에 国民党 支持率은 거의 98퍼센트에 가까운데 비해 台本土人 특히 広東省出身들 사이에는 불과 4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全国的 代議機関에의 政治参与는 이들 全国的 代議機関들이 台湾뿐 아니라 中国全体를 代表한다는 名分 때문에 극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名分論이 제기하는 問題가 심각해졌다. 1971년의 경우, 1947년에 選出된 2천9백61명의 国民議会代表中 台湾에 現存해 있는 代表의 数가 그 절반도 되지않는 1천3백92명이였고 7백59명의 立法議員중에는 4백34명이 그리고 1백80명의 監察院議員중에는 69명만이 台湾에 現存해 있었다. 이러한 現象은 本土에서 選出된 이들 代表들이 일부 本土에 잔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理由는 이 세 代議機関들이 中国全体를 代表하는 기관이라는 名分論 때문에 결원이 생겨도 보궐선거를 제대로 못하

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 세 代議機関 代表들이 平均 연령이 1971년에는 모두 65세가 넘었다. 国民大会와 立法院 대표들의 平均 연령은 65세였고 監察院 대표들은 70세였다.

老化現象은 行政院이나 国民党 中央委員会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두 기관 모두 本土에서 蔣介石総統과 政治的 生命을 같이 해온 元老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 젊은 기술관료들이 새로 充員되긴 했지만 老化現象은 막기 힘들었다. 도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行政員 자료의 경우 1950년에는 평균연령이 50세였던 것이 60년대 초에는 61세로 뛰어 올랐고 이러한 現象은 蔣経国이 行政院院長에 취임한 1972년에도 크게 向上된 바가 없었다. 国民党의 경우 1969년에 開催된 제10차 中央委員会들의 평균연령이 60歲였다.

69년, 72년 및 78년에 実施된 国民大会와 立法院 그리고 監察院의 보궐선거는 극히 制限된 範囲에서의 政治参与이긴 했지만 젊은 台湾本土人의 進出이 뚜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1972년의 경우 이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代表中 87퍼센트가 台湾本土人들이였으며 이들의 平均 나이는 45歲였고 이들중 75퍼센트가 国民党党員들로 半数 이상이 大学教育을 받은 知識人들이였다. 이들중 대부분이 기술관료들이어서 政治性이 짙은 것은 아니고 이들 台湾本土人들이 대부분 国民党党員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들 세 代議機関의 機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등이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台湾出身의 기술관료의 등장은 앞으로

図表 7. 自由中国의 行政院 購成의 変遷 추세 : 1950-1972

年 度	院 長 이 름	平均年齡	最年少閣僚	新閣僚의 숫자	台湾人의 숫자
1950	첸 . 청 (陳 誠)	50.6	45	–	1
1954	유 . 홍 . 춘	53.5	47	11	1
1958	첸 . 청 . (陳 誠)	60.4	48	10	1
1963	엔 . 차 . 간 (厳淤淦)	61.6	50	12	1
1966	엔 . 차 . 간 (厳淤淦)	61.2	52	9	2
1969	엔 . 차 . 간 (厳淤淦)	63.5	50	4	2
1970	엔 . 차 . 간 (厳淤淦)	63.6	52	3	3
1972	창 . 칭 . 쿠오 (蔣経国)	61.6	49	13	6

註: 이 資料는 東方雜誌(台北)과 中国年監(1960 ~ 1971) 에서 뽑은 것임.

図表 8. 台湾의 各政党의 세력현황 (1967년 이전)

			各政党의 세력분포							
			国民党		中国青年党		中国民主社会党		無所属	
	選挙年度	議席総数	数字	%	数字	%	数字	%	数字	%
国民大会	1947	1,521	1,333	87.64	85	5.59	56	3.68	47	3.09
立法院	1948	493	443	89.95	13	2.63	13	2.63	24	4.89
監察院	1948	84	70	83.30	5	6.00	2	2.4	7	8.30
台湾省議会	1963	74	61	82.43	1	1.40	0	0.00	12	16.00
県및市長	1964	21	17	81.00	0	0.00	1	5.00	3	14.00
県및市議会	1964	907	670	73.87	5	0.55	2	0.22	230	25.40
邑및面長	1964	319	295	92.48	−	−	−	−	−	−
邑및面議会	1965	4,776	2,355	49.30	1	−	2	−	2,418	50.70

註: 이 資料는 타이. 홍. 차오가 쓴 "国民党과 台湾의 近代化"라는 論文에서 인용한 것임.

의 台湾의 政治的 장래에 무시못할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9) 国民党 構造와 特徵 : 国民党의 起源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政党으로서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24년께 였다. 이해에 열린 첫 全党大会에서 党憲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의 조직개편이 되었다. 蘇聯과 여러면으로 가까웠던 당시의 国民党은 蘇聯共産党의 組織理論을 빌어왔다. 그래서 党員은 党의 결정을 무조건 받들고 党組織 活動에 的極 参与하고 그리고 党費를 성실히 바치는 사람들만이 될 수 있었다. 共産党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国民党의 組織은 엄격한 수직 명령계통으로 짜여져 있었고 각 단체마다 党의 세포조직이 있었으며 党 組織에는 반드시 監察委員会가 設置되어 党의 規律과 기강을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国民党은 蘇聯共産党과 다른 측면도 있았다. 우선 蘇聯共産党이 푸로레타리아들로 構成되어 있었는데 비해 国民党은 職業政治人, 軍人 및 知識人들로 構成된 권력을 行事하기 위한 에리트 政党이였다. 또한 党의 指導者 蔣介石은 父家長的 指導体制를 強調하여 政治的 統制는 個人의 충성심에 의존했고 이것은 派閥調成에 한몫을 하기도 했다.

특히 蔣介石의 一人 集權이 長期化됨에 따라 党에 대한 忠誠은 蔣介石 個人에 대한 충성과 同一視 되었고 党内의 단결은 주로 指導者와 追縱者間의 個人的 関係에 의해 維持되었다.

1924년의 第1次 全党大会에서는 党組織以外에도 国家革命과 재건을 위한 기본강령을 채택했으며 이를 위해 (1) 軍事独裁의

시기 (2) 訓政期 및 (3) 憲政期의 세단계로 나누어 놓았다.

軍事独裁期는 1928년 北伐이 一段落 되므로서 끝났고 訓政期는 1947년까지 継続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論理에 따라 1948년부터 始作될 憲政期에 대비해서 1947년에 憲法이 制定되었고 이 憲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政府의 각종 機関들이 設置되었다. 国民大会와 立法院, 行政院, 監察院 및 司法院등의 設置가 바로 그것이였다.

1949년에 国民党이 台湾으로 옮겼기 때문에 憲政期는 사실상 台湾에서 始作되었으며, 国民党이 中国本土를 統治하는 28년부터 48년까지는 訓政期에 해당한다. 이 訓政期동안 国民党은 選挙를 通한 政治를 하지 않았고 日本軍과 共産軍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외부적 現実을 이유로 事実上의 独裁政治를 行했다. 政府보다 党이 항상 우선 했으며 政府의 모든 機関에는 党組織이 設立되어 重要한 결정을 도맡았다. 또한 모든 중요한 政府要職은 国民党党員들로 채워졌고 孫文의 三民主義를 最高의 이데올로기로 받드는 同時에 이의 実践을 党의 궁극적 地上最大의 目標로 삼았다.

台湾에 옮겨온 다음에도 国民党의 組織이나 이데올로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訓政期가 아니고 憲政期이니까 党이 政府에 우선하고 그밖의 分野에서 独裁할 理論的 根拠가 없지만 事実은 台湾의 구석구석에 国民党의 세력이 깊이 침투해있다. 이러한 事実은 国民党 指導者들 자신도 일부러 숨기려하지 않는 것으로

1975년 4월 30일자의 国民党 기관지 中央日報의 社說은 国家의 모든 재능이 党에 속해야 하며 党에 의해 利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72년 12월 25일에 実施된 国民大会와 立法院 代表選挙에서 国民党은 103席中 76席을 차지하므로서 74퍼센트를 차지했고 그밖의 20개의 地方 自治団体長 選挙에서도 国民党후보가 100퍼센트 당선될 정도로 政治는 国民党의 절대적인 統制밑에 있는 것이다. 1951년부터 70년 사이에 国民党은 台湾省議会에서 항상 78퍼센트 이상의 議席을 확보하므로서 3분의 2이상의 절대다수의 지위를 누렸고 行政府의 모든 중요한 要職도 거의 독차지 하고 있다.

国民党은 또한 自治団体뿐 아니라 社会 각층에 뿌리 박고 있는 党의 세포조직과 軍 및 保安계통의 組織을 통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政治権力의 독점을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中国青年党이나 社会民主党등의 소수 정당의 의석수가 増加되고 무소속 의원의 수가 増加했다고 해서 반드시 国民党의 통치능력이나 세력이 衰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1975년 현재 国民党의 党員数는 약 1백25만명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유권자 6명중 1명의 꼴이 된다. 党員中 약 80퍼센트가 台湾本土人이라고 추산되고 있으나 실례로 党의 要職은 대부분 中国本土人의 손에 들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国民党의 台湾土着化가 중요한 과제를 등장했고 이에 따라 国民党의 문호를 台湾本土人들에게 개방하게

되었다. 특히 1969년 3월에 개최되었던 제10차 国民党 全党大会에서는 党中央委員会의 의원수를 99명으로 늘리고 台湾本土人들이 参与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고 이 결정에 따라 1972년에는 21명으로 구성된 中央委員会常任委員会에 台湾本土人 出身이 3명으로 늘어났다. 蔣経国이 行政院院長에 취임한 후 台湾本土人의 정부요직등용은 뚜렷해져서 行政院 副院長(副首相格)을 비롯해서 台湾本土出身 각료의 수가 6명으로 늘어났고 立法, 監察및 考試院에서도 3명의 副院長이 台湾出身이다. 더욱 주목할 일은 台湾 역사상 最初로 台湾本土人인 謝東閔이 台湾省長을 거쳐 副総統에 選出되었다.

物論 現在의 国民党組織内에서는 이러한 台湾本土人들의 進出이 극히 制限되어 있지만 国民党의 台湾土着化가 進行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進出이 불가피한게 또한 현재의 台湾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Ⅲ. 臺灣獨立運動

台湾独立運動은 현재 台湾에 살고 있는 복잡한 人口構成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現在 台湾에서 살고 있는 約1千7百万의 人口 중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台湾原住民이라고 불릴 수 있는 種族은 台湾에 처음으로 정착한 말라아族에 속하는 人種으로 그 数는 約21万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개 본토에서 건너온 漢族들이 가지고 온 中国本土文化에 同化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高山地帯에 흩어져 살고 있다.

본토에서 건너온 中国人들 중에는 台湾本土人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두가지가 있다. 台湾本土人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現在 台湾 人口의 86.4퍼센트를 차지하는 절대다수로 이들은 다시 明南그룹과 학카族으로 나누어진다. 明南그룹에 속하는 人口는 주로 明나라때 福建省地方에서 移住해 온 사람들의 후손들을 지칭하며 학카族이란 広東省에서 移住해 온 학카族의 후손들을 가르킨다.

이 두그룹은 제각기 다른 方言을 사용하며 수시로 反目, 갈등하는 미묘한 사이에 처해있다.

中国本土人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台湾 人口全体의 13.4퍼센트로 台湾本土人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에 있으며 주로 2次大戰以後 本土에서 移住해온 그룹이다. 이들중에는 大部分이 49年 国民党政府가 共産党에 쫓겨 台湾으로 옮겨올때 같이 건너온 사람들로서 政府管理나 技術者, 教育者, 企業人 그리고 軍人들이 大部分

이다.

이들 台湾本土人과 中国本土人들은 서로 言語가 다르며 거주지역이나 직업분포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中国本土人들은 대개 標準語 또는 이와 비슷한 語言를 使用하며 都市에 居住하고 있는데 비해 台湾本土人들은 明南方言 또는 학카語를 使用하며 大部分 小都市나 시골에 살고있다. 職業分布에 있어서도 中国本土人들이 政府, 教育, 軍隊 또는 그밖의 專門職에 종사하고 있으나 台湾本土人들은 農業, 商業, 漁業등에 종사하고 있다.

中国本土人과 台湾人들 사이에 存在하는 이러한 差異点때문에 두그룹 사이에는 不和와 紛争이 계속되어왔다. 어떤 学子들은 1947年2月25日의 台湾 反撥사태를 이들 두그룹 사이의 不和와 紛争의 시발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2.25日사태는 国民党政府의 무자비한 軍事政治 특히 政治的으로 무능한 편이었던 첸·이의 暴政에 대한 反撥이였다는 색채가 짙었고 반드시 中国대륙에서 건너온 本土人에 대한 反抗이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本土人들이 대거 台湾에 移住한 것이 1949年12月 前後이였음을 고려하면 2.25日사태가 本土人에 대한 反撥이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해진다.

明南이나 학카族이 주축이 된 台湾本土人이나 주로 49年 前後로 台湾에 건너온 中国本土人들이 모두 中国文化圈에 속하는 동질성이 강한 民族이지만 明南이나 학카族들은 오래전에 台湾에 건너왔고 특히 1895年부터 約50年동안 日本의 治下에 살면서 이들

특유의 文化를 계발했고 中国本土人과는 다른 正体感(identity)을 형성했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台湾本土人들이 원래는 中国本土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49年 前後에 中国本土人들이 대거 台湾으로 옮겨왔을 때는 이미 상당히 다른 異質的인 民族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台湾独立運動은 台湾民族主義運動이라는데 그 본질이 있으며 国民党政府의 台湾統治는 異民族의 統治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現在 台湾 안에서나 또는 海外에서 台湾独立運動을 지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여기서 台湾独立運動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해 台湾 안에서의 그것과 海外에서의 그것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台湾 안에서의 独立運動은 대부분 地下에 잠복해 있거나 또는 海外로 그 活動中心地를 옮겨 현재 거의 全無한 상태이다. 그것은 国民党政府가 台湾에 옮겨온 뒤 台湾本土人에 대해 강경책과 융화책을 동시에 効果的으로 사용해서 일부 台湾独立運動指導者들을 投獄하고 온건파에 속한 다른 指導者들은 漸次的으로 国民党政府의 체제에 融合, 沒收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1972年 蔣経国이 立法院 院長에 취임하면서 台湾本土人에 대해 融化政策을 실시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国民党政府는 자체내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므로서 台湾人의 不満과 反撥을 무마하려고 했으며 이점에서 특히 성공적인 政策을 실시해서 台湾人의 好感을 얻었던 것같다. 国民党政府의 부정 부패,

의 상징처럼 되어있던 蔣介石総統의 秘書였으며 人事処処長으로 莫強한 權力을 行事해온 왕·청·이의 구속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司法部의 調査局은 60年末과 특히 70年代初期에 부정부패 一掃의 強力한 캠페인을 전개 台湾人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70年初期 특히 蔣経国이 行政院院長이 취임해서 사실상 실권을 잡으면서 台湾人에 대한 박해가 상당히 緩和되었다.

1949年부터 1955年까지 9万名에 가까운 台湾人들이 国民党府府에 의해 체포되어 상당수가 처형되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50年代와 60年代의 国民党政府의 台湾人에 대한 정책은 강경한 것이었다.

이 期間中 수많은 사람들이 法에 정한 절차를 밟지않고 拘束당했으며 1966年에 台湾省議会는 国民党政府가 拘束領長이나 裁判節次 또는 立法機関의 承認없이 사람들을 秘密監獄으로 무더기로 보내고 있다고 비난할 정도였다. 그러나 蔣経国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이러한 政治的 보복행위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특히 1975年5月31日에 제정된 赦免令은 刑事犯뿐아니라 政治犯에 대해서는 赦免이 可能하게 하므로서 50年代와 60年代에 犧生되었던 많은 政治犯들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이 赦免令에 따라 約3千名의 政治犯들이 減刑의 恩択을 받았고 이중 상당수가 蔣介石総統이 죽은지 백일째되는 1975年7月14日에 석방되었다.

台湾独立運動에서 가장 잘 알려진 人事는 펑·밍·민教授이다.

台湾本土人인 펑教授는 台湾国立大学의 教授로서 1964年9月20日

台湾独立과 国民党政府의 전복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油印物 1万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그의 학생 두명과 함께 체포 구속되있다.

그후 「평」教授는 台湾을 脱出하는데 成功 스웨덴을 거쳐 1970年에 美国에 到着 現在 海外에 있는 台湾独立運動의 指導者의 한 사람으로 活約하고 있다. 「평」教授는 知識人으로서 台湾独立運動에 대해 상당히 自由主義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台湾独立運動의 指導者로서의 그의 과거의 경력과 함께 이러한 自由主義的인 그의 사상은 西欧人들로 상당한 好応과 동정을 받고 있다.

「평」教授는 특히 台湾의 共産化를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台湾의 共産化를 방지하기 위해 西方諸国이 협조해야 하며 台湾独立運動이 共産党에 의해 이용당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海外에서 活約하고 있는 台湾独立運動団体나 그 指導者들이 모두 「평」教授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海外에 있는 台湾独立運動勢力은 하나의 団体로 뭉처져 있지 않으며 제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와 다른 행동강령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것이 台湾独立運動이 보다 効果的이지 못한 理由의 하나이기도 하다.

海外에서의 台湾独立運動은 1950年代에 日本에서 시작되었다.

国民党政府의 圧力을 피해 台湾独立指導者들은 자연히 가까운 日本으로 건너갔고 50年代에는 주로 이곳을 중심으로 台湾内의 独立運動勢力들과 連絡을 유지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했었다.

그러다 美国으로 건너가는 台湾 유학생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자

60年代 초반부터 台湾独立運動의 근거지가 日本에서 美国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추세는 1965年10月 美国 위스콘신주 메디슨시에서 台湾指導者統合大会가 개최되므로서 절정에 달했다. 위스콘신 대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메디슨시에는 당시 많은 대만유학생들이 있었다. 이 大会는 美国을 비롯해 세계각지에 흩어져 있던 異質的인 台湾独立運動団体들을 하나의 母組織体로 묶어놓기 위한 것이였지만 이 大会에서 台湾独立運動의 方向과 구체적 행동방안에 대한 異見이 조정되지 않아 기대했던 台湾独立運動의 母組織은 결성되지 않았다.

母組織이 형성된 것은 메디슨大会가 열린지 5年後인 1970年 1月1日로서 台湾独立世界統合団体(WUFI)라는 기구가 탄생했다. 이 기구는 日本과 美国을 비롯해서 유럽, 카나다, 브라질 그리고 台湾内에 支部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구는 궁극적으로 台湾을 中国本土에서 分離 하나의 独立国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선언했다. 이 組織体의 구성원을 극비에 부쳐져 있으며 그 活動状況도 극히 일부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台湾独立世界統合団体는 머지않아 競争的인 組織体에 의해 그 권위를 도전받게 된다. 1974年9月에 형성된 世界統合台湾協会(WUFA)는 오스트리아에 그 本部를 두고 있으며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台湾独立運動의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이 団体는 현재 活発히 活動하고 있는 会員들이 3万名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中国語, 日本語 및 英語로 機関誌를 발행하고 있는 외에도

台湾 내에서 약간의 地下運動을 전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처음에 台湾独立世界統合団体(WUFI)는 무력에 의한 台湾独立쟁취를 내걸었으나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不可能하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특히 1972年 美国과 中共사이에 데탕트가 이룩되고 나서 무력에 의한 台湾独立의 입장은 크게 수정, 현재는 国民党政府에 圧力을 가해 台湾 내의 国内政治改革을 주장하는 온건한 입장으로 바꿨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海外에서 台湾独立運動을 지도하고 있는 두단체 이들 台湾独立世界統合団体와 世界統合台湾協会는 현재 台湾이 中共에 併合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一次的 目標를 두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원래의 台湾独立運動은 그 성격이 상당히 수정되고 있다.

이들은 台湾이 中共에 併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国民党政府와 타협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台湾独立運動의 変質은 국제정세의 변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지만 이들 台湾独立運動団体들이 海外에 있는 台湾人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美国이나 日本 또는 유럽国家들의 好応을 받지 못했다는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들 台湾独立運動団体들은 대부분 会員의 모집이나 집회개최 또는 海外에 있는 台湾人들을 상대로 그들의 民族意識을 고취시키는데 活動의 중점을 두고 있다. 国民党政府가 실시한 강경 온화의 양면 정책은 台湾 내에서 地下独立運動이 成功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게다가 海外의

台湾独立運動도 앞에 지적한 두 団体外에도 自決海外台湾基督教人聯合会라든지 美国台湾人団体등 잡다한 組織들이 서로 競争하고 反目하고 있어 台湾独立運動은 사실상 求心点을 찾지 못한채 소극적인 活動을 전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물론 이들이 海外에 거주하는 台湾人들의 民族意識을 고취시키고 台湾独立을 하나의 国際的 잇슈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한건 사실이다.

특히 1975年 前後해서 이들 台湾独立団体들은 美国의 워싱턴, 시카코, 휴스턴, 로스앤젤리스등지에서 대규모의 群衆集会를 개최, 約3千名 이상의 台湾人들이 参席하므로서 台湾人들의 民族意識을 고취시키고 美国과 中共의 데탕트를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므로서 必要에 따라서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 여론조성을 할 수 있다는 이들의 能力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이들 海外에서의 台湾独立運動은 이제 그 한계점에 달했다.

지난 1973年 2月 초에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개최되었던 "台湾의 将来"에 관한 国際会議에서 펑·밍·민教授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이 海外의 台湾独立運動이 직면한 문제점과 그 장래의 향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2)

> 우리가 보기에는 台湾이 独立된 国家나 政治団体로 発展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台湾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장래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台湾의

独立을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을 현재 台湾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놓아보아야 한다. 현재 台湾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台湾을 떠날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台湾独立運動이 단순한 知的 虛構나 추상적인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生活과 運命 그리고 後孫代代의 그것을 決定짓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평」教授의 말처럼 海外의 台湾独立運動은 台湾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利益에는 関係없이 海外에 거주하는 台湾人들의 政治権力闘争의 도구로 이용되어 온게 지금까지의 숨길 수 없는 현실이였다. 평교수의 말처럼 台湾独立運動은 台湾 안에서든 海外에서든, 国民党政府를 전복시키고 独立国家를 건설하겠다는 초기의 目標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台湾内에서 政治를 民主化시키고 내부의 政治改革을 통해 台湾人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運動으로 変貌하고 있다.

Ⅳ. 經濟發展과 社会的 問題

台湾은 주위에 있는 79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包含해서 3万5千9百61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台湾을 제외하고 그밖의 주위 도서들은 개발할 経済的 価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台湾은 산이 많으며 전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農事가 가능한 지역은 이미 경작이 행해지고 있다.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로 평야지대에서는 여름이 길고 겨울은 짧고 기온이 온화하다. 강우량은 2千5百센티미터로 충분한 폭이나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 여름에는 특히 태풍이 심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농토는 비옥한 편이 아니며 관개시설과 비료 사용에 農業生産이 주로 依存하고 있다.

쌀과 설탕이 주된 農作物이며 최근에는 바나나, 버섯, 아스파라가스, 감자, 땅콩, 차, 담배 등이 주요한 농산물로 등장하고 있다.

台湾은 地下資源이 비교적 貧弱한 셈이다. 매장량이 25億톤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石炭이 가장 중요한 地下資源이다. 그밖에 주요한 地下資源으로는 約3兆億톤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大理石과 2百72億입방미터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天然가스가 있으며, 金, 銅, 유황 및 약간의 原油가 있다.

日本의 점령정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교통망이 보잘것 없었고 해안선을 따라 약간의 농업이 행해지고 있었을뿐 산간지방에는 주로 原住民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日本統治下에서 農業生産이

조금씩 改良되었고 工業化를 위한 기초도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틀을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1945年 日本의 항복후 国民党政府의 統治가 시작되면서 経済発展은 상당히 급속도로 이루워 저서 현재는 아시아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끼이게 된 것이다. 40年代 말의 経済가 심한 인프레에 허덕이고 있었고 経済発展에 必要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불리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것은 놀랄만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49年 12月 台湾에 撤거온 国民党政府는 침체된 台湾의 経済를 回復시키기 위해 제일 먼저 通貨量을 厳格히 統制하여 인프레를 解決하려 했으며 美国의 食量援助등을 적절히 使用하여 物価安定을 기했다.

또한 政府가 가지고 있는 施設과 装備를 投入 교통망의 원활을 도모했고 美国의 援助에 힘입어 기존 交通施設을 최대한으로 利用하도록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戦後의 台湾経済安定에 중요한 역활을 한것은 1949年부터 実施한 土地改革이였다.

土地改革은 3단계로 나누어 実施되었다. 첫단계에서는 小作料가 戦前의 50퍼센트 선에서 37.5퍼센트 수준으로 인하되었고 다음단계에서는 政府가 公有地를 低利의 資金을 長期로 農民들에게 빌려주므로서 팔았으며 마지막단계에서는 土地法을 새로 제정하여 모든 土地所有王들로 하여금 法이 정한 일정 수준이상의 모든 土地

를 政府에 팔도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土地銀行을 設立하여 土地를 사려고 하는 農民들에게 年 3퍼센트의 低利로 최고 15年동안의 長期融資를 실시했다. 土地所有主에게는 이들이 土地매각에서 얻은 資金을 産業施設에 投資하도록 하기 위해 역시 抵利의 長期融資를 해주었다.

土地改革은 2가지 중요한 目標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첫째는 自作農家의 숫자가 증가했고 두번째는 土地所有者들이 가지고 있던 莫大한 량의 유후자금을 산업부분에서 吸收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52年의 경우 完全 自作農家가 불과 38퍼센트에 불과했으나 1967年에는 68퍼센트 이상의 農家가 完全 自作農이 되었다. 土地銀行에서 低利 長期 融資를 했던 이들 自作農家들은 1967年에 이를 모두 청산했을 정도로 이들 농가의 所得水準도 向上했었다. 인프레문제가 해결되고 土地改革이 거의 完成되자 政府가 당면한 문제는 심각한 貿易逆調현상이었다. 戰前에는 日本이 가장 중요한 輸出国이었으나 戰後 輸出의 가장 중요한 대상국이 없어져 버렸고 日本에 대신할 輸出対象国도 없었다. 게다가 수많은 本土人들의 移住와 国防費負担등의 원인으로 輸入의 必要性은 더욱 增加하여 1950年에는 2千9百60万弗의 貿易赤字를 보였던 것이 1951年에는 5千万달러선을 넘었고 다음해에는 8千7百50만달러로 뛰어 올랐다.

이러한 심각한 貿易赤字를 해결하기 위해 政府는 外換管理를 嚴格히 하는 한편 資本集弱的인 輸入대치품의 国内生産에 역점을

두었다. 民間企業体 특히 合成프라스틱분야의 企業体들에게 税制上의 각종 恵択과 外資導入과 銀行融資등의 特恵가 주어졌다.

台湾의 経済가 回復段階에 있었던 50年代 초기에는 美国의 원조도 중요한 経済安定制의 역활을 했다. 美国援助는 특히 輸入対直産業의 発展에 큰 공헌을 했으며 美国의 資本援助중 3分의2 이상이 수입대치산업의 育成에 投入되었다.

이것을 美貨로 환산하면 約30億달러 정도가 된다. 1952年부터 1964年 사이에 6개의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3개의 火力発電所가 건설되어 発電量이 4배로 증가했다.

수입대치산업의 育成과 동시에 台湾내의 도로망 확장에서 많은 자금이 投入되어 台湾섬을 가로 지르는 高速道路網이 構築되었고 대북과 基隆을 잇는 南北高速道路가 포장되었다.

1950年부터 1954年까지 生産部分의 年平均成長率은 21퍼센트였다. 그러나 고도성장, 특히 자본집약부분의 그것은 문제점이 곧 들어났다. 生産財部分의 증가가 소비자부분의 그것을 훨씬 앞질러 商品의 재고가 점차 늘어났다.

그래서 성장의 템포가 둔화되어 1954年부터 1960年까지의 生産部分 成長率이 11퍼센트로 떨어졌다. 많은 産業施設들이 40 내내지 60퍼센트 수준의 稼動率을 보였고 50年代 중반에는 工業部分의 投資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政府는 (0年代 초기의 수입대치산업의 育成 政策에서 50年代 후반부터는 輸出指向的인 政策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外換制度는 複数換率制度에서 単一換率制度로 바꾸어져 輸出業에 従事하는 企業家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었고 約2百種 이상의 品目에 대해 輸出統制가 해제되었다. 輸出商品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었을 뿐아니라 政府가 각종 恵択을 주었다. 이러한 政府의 政策에 힘입어 台湾의 輸出은 1960年의 1億7千4百万달러였고 1961年에는 2億1千8百万달러였다.

1952年과 60年 사이에 輸出伸張率이 38퍼센트였는데 비해 1959年과 67年 사이에 8年동안의 수출신장율은 3百88퍼센트로 年平均 20퍼센트라는 놀라운 신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輸出의 신장은 台湾経済成長의 가장 중요한 原動力으로 1974年의 경우 輸出部分은 台湾의 国内総生産(GDP)의 44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1970年代 초기 石油波動과 国際政治的 요인으로 인해 輸出部分의 성장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1976年의 輸出総額은 80億弗을 상회했고 1977年에는 93億弗을 훨씬 넘었다. 1978年에는 輸出目標額이 107億弗에 이른다.

이러한 놀라운 経済成長은 앞에서 지적한 土地改革의 成功과 美国의 원조, 民間企業의 중점육성정책과 1.8퍼센트선의 인구성장율의 抑制, 우수한 노동력의 확보 및 政府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등에 그 주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国民党政府가 1953年부터 실시한 段階的 経済発展政策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国民党政府는 1953年부터 1968年까지 4차례에 걸쳐 4次 経済開発計劃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1953年부터 56年까지

의 제 1 차 4 개 년계획 중에는 農業部門의 育成과 수입대치산업의 育成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고 57年부터 60年까지의 제 2 차 4 개 년계획에서는 輸出의 自由化와 製造部門 특히 수출산업부문을 강조했고 61年부터 64年까지의 제 3 차 계획중에는 輸出産業의 範囲가 拡大되었고 제 4 차 계획인 65年부터 68年까지는 輸出産業部門을 계속 중점 育成하는 한편 人的資源確保에도 중점을 두어 技術教育 施設의 確張을 강조했다.

1969年부터 実施된 第 5 次 4 個年計劃에서는 산업구조의 変化를 시도하여 종전까지 주로 노동집약적인 輸出産業을 資本集約的인 産業으로 바꾸고 電子部門과 重工業部門을 育成했다. 또한 1972年에는 10個 重点建設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1977年까지 約 60億弗의 外貨를 投入했으며 1980年代에는 台湾을 経済的 先進国으로 만든다는 것을 그 目標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 개의 대형 核発電所 1 개의 綜合鋼鉄工場, 1 개의 石油化学工場, 高興에 設置될 造船所, 台払과 高興을 잇는 하이웨이, 桃園의 国際空航 등이 包含되어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이미 完工되었다.

台湾은 1976年 다시 第 6 次 経済開発計劃(1976～1981)을 作成하고 이 計劃이 끝나는 1981年까지는 台湾의 経済発電을 世界的 水準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다. 이 計劃에 의하면 台湾의 国民総生産은 1981年에 2百21億弗이 되며 (1975年에는 약 1百47億弗) 個人当 平均所得은 1千4百弗이 된다.

貿易部門에서는 1981年의 輸出이 1百20億弗이 넘어 約 6 千万弗

의 輸出超過를 예상하고 있다.

台湾이 1981年까지 이러한 目標를 達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国内政治와 經済政策에도 달려 있으나 더욱 중요한 관건은 国際的 要因이라 할 수 있다.

台湾의 経済가 지니는 가장 큰 취약점은 그것이 貿易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台湾의 貿易은 大部分 美国과 日本을 본을 상대로 하고 있다. 1977年의 경우 美国과의 貿易은 台湾의 全体貿易量의 32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日本과의 그것은 21퍼센트에 달해 美国과 日本을 합치면 53퍼센트에 육박한다.

따라서 지난 1978年 8月에 체결된 日本과 中共사이의 友好条約과 과 美国과 中共사이의 国交正常化가 成立되는 경우 이는 自由中国의 国際的 지위를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시킬 것이 예상되며 이것이 自由中国의 対外貿易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급속한 経済成長이 적지않은 社会的 問題点을 제기했음은 물론이다. 政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都市化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고 所得分配의 문제도 経済成長의 템포가 빠르면 빠를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은 특히 과거 政府의 経済発電政策이 일부 民間企業에게 特恵를 부여했고 輸出과 관련된 産業을 집중적으로 育成했다는 데에서 더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経済成長에 주력해온 政府가 福祉問題의 해결에 큰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고 1970年代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福祉問題題가 큰 社会的問題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政府의 対策이 주목되

고 있다.

台湾의 人口分布現况 : 1952-1964

	1952		1958		1964	
	数字(千)	퍼센트	数字(千)	퍼센트	数字(千)	퍼센트
인구총계	8,128	100	10,039	100	11,884	100
대만본토인	7,478	92.0	8,943	89.1	10,349	87.1
중국본토인	650	8.0	1,096	10.9	1,535	12.9
도시와농촌인구합계			9,000	100	12,300	100
도시인구			2,800	31	4,300	35
농촌인구			6,200	69	8,000	65
농업부분인구합계	4,257	100	4,881	100	5,649	100
완전자작	1,598	38	2,975	61	3,769	67
부분자작	1,113	26	1,132	23	1,154	20
소 작	1,546	36	774	16	726	13
6세이상인구합계	6,384	100	7,821	100	9,871	100
문맹해독	3,694	57.9	5,404	69.1	7,653	77.6

註: 이 資料는 台湾地方自治資料 (台湾, 1965) 에서 옮겨온것임.

中国本土人과 台湾本土人 사이의 社会経済的 差異比較

	中国本土人	台湾本土人
문자해독율	40.5 %	85 %
노 동 력	350,000,000	4,300,000
농 업 부 분	85 %	44 %
공 업 부 분	15 %	56 %
국민총생산	1千2百億美貨	60億美貨
개인당평균소득	145美貨	410美貨
강철소비량(개인당)	33파운드	64.4파운드
개인당 전화대수	1:3,380	1:53
개인당 라디오대수	1:145	1:10
개인당 칼로리소비량(日기준)	1,780	2,670
〃 프로테인소비량	30	70
평 균 수 명	50	68

註: 이 資料는 융·웨이 台湾의 근대화에서 인용한 것임.

台湾의　主要経済指標：1953-1977

（単位：1百万＄）

	国民総生産増加率	輸　出	輸　入	輸出入総額	貿易逆調
1953	8.3 %	128	192	320	− 64
1954	8.7	93	211	304	−118
1955	7.7	123	201	324	− 78
1956	5.3	118	194	312	− 76
1957	6.9	148	212	360	− 64
1958	5.7	156	226	382	− 70
1959	7.0	157	231	388	− 74
1960	5.6	164	297	461	−133
1961	6.6	195	322	517	−127
1962	7.3	218	304	522	− 86
1963	8.5	332	362	694	− 30
1964	11.4	433	428	861	＋ 5
1965	10.4	450	556	1,006	−106
1966	7.8	536	622	1,158	− 86
1967	10.4	641	806	1,447	−165
1968	8.9	789	903	1,692	−114
1969	8.6	1,049	1,213	2,262	−164
1970	10.8	1,481	1,524	3,005	− 43
1971	11.7	2,060	1,844	3,904	＋216
1972	12.0	2,988	2,514	5,502	＋474
1973	11.9	4,483	3,792	8,275	＋691
1974	0.6	5,639	6,966	12,605	−1,321
1975	2.8	5,309	5,952	11,261	− 643
1976	8.0	8,166	7,599	15,765	＋567
1977	8.8	9,361	8,511	17,871	＋850

V. 臺灣의 政治的 將來의 向方

그러면 台湾의 政治的 장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台湾内의 社会文化的 여건, 政治의 安定, 그리고 무엇보다 経済発展의 지속여부등 内部的 要因과 対美, 対日関係와 美・中共, 日・中共 関係등의 外的 要因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内的, 外的 要因들은 예측적 분석이 거의 不可能하다. 그러나 台湾의 政治的 장래는 대개 다음의 4가지 形態중의 하나로 나타날 可能性이 짙다.

1) 領土的 併合

中共은 台湾이 領土的으로 本土와 併合될때 어떠한 政治的 지위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공식논평을 피해왔었다. 周恩来와 鄧小平이 中国人교포들과의 회담에서 티벧의 解放에 대한 중공의 態度가 台湾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티벧에서처럼 중공이 台湾에 대해 自治区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해 중공당국자가 正確한 態度를 밝힌적은 결코 없다.

현재 중공에 있어 自治区란 少数民族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부여하는 行政上의 분류로 중공당국자가 台湾을 少数民族의 거주지라고 주장한 적은 아직 한번도 없다. 따라서 台湾이 소련연방내에 방내에서 우크라이너가 가진 国際政治的 지위를 가져야 한다거나 또는 台湾을 중공의 政治体制下에서 自由港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른바 単一政治体制下의 二重経済体制説은 모두 논거가 희박하다.

台湾이 중공에 併合되는 경우 중공이 台湾에 대해 政治的 目

治正의 지위나 經済的 独立을 부여할 可能性은 아직 莫然한 추측 단계에 머물고 있다. 중공의 궁극적 目的은 台湾을 政治 経済 社会的으로 完全히 本土와 併合시키는 것이다. 本土와 台湾과의 併合으로는 平和的 方法이나 또는 軍事的 占領의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2) 平和的 解放

1972年2月이래 중공의 "台湾解放政策"은 平和的 方法에 의한 解放이다. 중공은 과거 몇차례에 걸쳐 国民党政府指導者들에게 平和的 協商을 제의했었으며 동시에 台湾本土人들에게 台湾과 本土의 平和的 解放을 호소하는 二重政策을 써왔다. 이러한 二重政策은 国民党政府의 입장에 동조하는 해외의 台湾独立運動団体들과 台湾本土人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동시에 台湾内에서 国民党政府의 세력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2.28日 台湾반란사건의 26주년 기념일이 되는 1973年2月28일 중공은 台湾의 国民党指導者들에게 台湾의 "平和的 統一"을 호소했다. 그후 1975年3月 중공은 本土에 구금되어 있던 "戰犯"들을 석방시켰으며 이들중 10名은 本土를 떠나 홍콩을 거쳐 台湾에 입국하려했으나 대만당국이 입국허가를 거부하므로서 이들의 기도는 좌절되었다.

70年度 초기 美中데탕트를 계기로 중공의 台湾独立運動団体에 대한 공세는 적극화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台湾本土人들이 중공당국의 초청으로 중공을 방문했고 1973年8月에 개최되

었던 共産党 第10次 全党大会에서 2名의 台湾出身인사인 린•리•윤과 차이 사아오가 中央委員会委員으로 당선되었다. 1975年 1月에 개최되었던 第4次 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는 台湾出身 변호사인 첸•이•숭이 常任委員会에 선출되었다. 그밖에도 중공은 카나다, 미국, 일본 및 유럽의 台湾独立運動団体들에 대한 지지획득공세를 여러 방면으로 펼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공당국의 台湾独立運動団体에 대한 공세가 별로 성공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台湾独立運動指導者들은 중공과 대만의 併合을 반대하고 있으며 70年代초기 이후부터는 国民党内部의 政治改革에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国民党政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공산당과 평화교섭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1974年 蔣介石총통은 第10次 国民党中央委員会 第4次 全体会議에 보낸 지시문에서 "交渉이란 접근하여 적을 분쇄하는 공산당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蔣経国 당시 行政院 院長은 같은 회의에 제출한 행정보고서에서 "共産主義와 闘争과 本土收復은 우리의 기본정책이며 어떠한 사태하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라고 역설하고 "우리는 적과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적과 平和交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宣言했다.

台湾이 平和交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政治的 이유도 있지만 현재 중공과 台湾간의 군사력의 균형이 중공쪽에 유리하며 이러한 状況下에서 중공과 平和交渉을 진행하면 台湾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계산때문이였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国民党政府와 中共당국자들이 홍콩과 日本 등지에서 秘密協商을 벌렸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確認된바 없고 지난 1978年 8月초 日本에서 개최된 世界物理学大会에 自由中国代表와 中共代表가 동시에 參席했으나 이것이 중공이나 자유중국정부의 중요한 政策変化를 시사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3) 軍事占領

台湾을 武力統一하겠다는 中共의 주장은 平和解決의 전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강도가 짙어졌다.

1974年 중공의 政治국원급의 인사가 중공이 台湾을 解放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한데 이어 지난 1978年 3月초 第5次 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中共主席 華国鋒은 台湾解放을 위해 무력사용을 사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후 중공의 기관지들은 중공당국자들이 人民解放軍에 대해 台湾의 무력해방을 위해 만전의 準備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전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여러가지 정치적 사정으로 보아 중공이 군사적인 방법으로 台湾解放을 강행할 可能性은 사실상 全無하다. 우선 중공의 현지도층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近代化계획은 国内外의 政治的 安定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中・蘇紛争은 중공이 台湾에서 무력사태를 야기시키는 것을 도저히 현실적으로 不可能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美国이 台湾의 무력해방을 적극 反対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공과 미국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워진다 하드래도 현재 美国内의

政治的 조건에서 판단하면 중공의 台湾武力解放 특히 核武器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한 해방을 美国이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다.

武力解放을 주장하는 중공의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공지도자들은 현실적으로 台湾問題의 해결을 위해 武力使用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 입장은 현재 중공의 対外聯絡部長인 耿飈의 연설이나 党副主席 鄧小平의 연설에서도 잘 밝혀져 있다.

台湾의 무력해방은 정치적으로 그것이 可能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사재 군사적 균형때문에 당분간은 不可能하다 할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는것 처럼 중공이 台湾에 비해 戦略武器部門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美蘇나 日本의 입장에 비추어 台湾武力解放에 核武器 使用可能性을 배제할 수 있다. 결국 중공이 台湾을 무력해방시키기로 하는 경우 非核戦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가상할 수 있는데 현재 중공은 莫大한 兵力을 海上 수송할 수 있는 能力이 결여되어 있다.

지난 1971 年 美国의 軍事専門家가 外交問題(포린·어페어)誌에 밝힌바에 의하면 중공은 5千名의 軍隊를 空輸할 수 있는 能力과 3万名의 軍隊를 海上 수송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것이 현재 台湾에 있는 50万名에 가까운 国民軍에 비해 너무나도 貧弱한 상대임을 명백하다 하겠다.

4) 自由中国台湾独立国

결국 台湾의 장래는 현 自由中国이 国民党의 통치하에서 中国大陸의 中共과 分離, 独立된 정치체제를 형성해 나가는게 가장

中共과 自由中国의 軍事力比較 : 1975 ~ 76

	中　共	自由中国
핵무기	중거리미사일 20-30개 중장거리미사일 50개 대륙간미사일 개발중 TU-16 60대	없음
총병력	3,250,000	494,000
국방비	40 ~ 120億弗	約 10億弗
육군	2,800,000 (7개 기갑사단, 125개 보병사단, 6개공정사단, 20개 포병사단)	340,000 (2개 기갑사단, 보병 12개사단, 공정 2개사단, 1개 SAM미사일부대, 하이크 허큘레스 미사일 24개)
공군	220,000 (전투기 3,800대, Il-28 300대, TU-2 100대 MIG-15 200대, MIG-17 1,500대, 헬리콥터 300대)	82,000 (전투기 216대, 6개 전투폭격기 대대 F-100A/D 90대, F-5A/E 35대, F-104 G 63대)
해군	230,000 (해병대 28,000名包含), 잠수함 51척, 구축함 16척, 상륙용주정 54척, 기타 1,024척	37,000 (해병대 35,000 제외) 잠수함 2, 구축함 18척, 상륙용주정 50척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国民党政府는 蔣経国 새총통의 지도아래 自由中国의 台湾土着化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패해서 台湾内에서 国民党政府의 통치에 대한 대규모의 반발이 일어날 可能性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国民党政府의 台湾土着化는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상태대로 중공과 国民党政府 사이에 内戦이 계속되고 있다는 형식적인 논리밑에 国民党政府가 台湾에서 그대로 土着化하는 방법이 있으며 内戦상태를 国民党政府가 일방적으로 終結시키고 대만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정부로서 再出発할 수도 있다. 첫째 방식은 지금까지 국민당정부가 고수해온 입장으로서 이것이 지니는 여러 정치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통치기술상 여러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국민당정부는 蔣経国 새총통의 대만土着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식입장으로 채택, 本土收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국민당정부가 일방적으로 中共과의 内戦이 終息되었다고 선언, 台湾을 통치하는 사실정부로서 再出 하는 경우 憲法의 개정이 불가피해지며 内戦상태아래서 설치되었던 여러 政府機構 특히 国民大会와 立法院 및 監察院등의 再構成이 불가피해진다. 이것은 台湾本土人의 政治영향력의 증대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国民党의 정치적 지위가 흔들리게 될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있다.

따라서 国民党政府가 절대적 정치 영향력의 행사를 보장받고 다

수당으로서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이러한 방식에 동의할 可能性도 희박하다. 그러나 台湾独立運動団体들이 노리는 사실상의 목표가 바로 이러한 국민당 내부 改革을 통한 台湾本土人의 영향력 증대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리고 현재 台湾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기류를 고려하면 바로 이러한 自由中国台湾独立国의 해결방식이야말로 国民党政府가 사실상 바랄 수 있는 最善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美国과 日本의 対中共関係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그 可能性이 달라지는 것이다.

註釈:

台湾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다음의 資料를 주로 参考했다.

1) 台湾의 将来(曺 煥編), 美아리조나州立大学 아시아연구소刊, 1974年.

특히 첸·룽·추의 論文과 도날드·맥타가트의 論文을 参考

2) 台湾(제임스·데이비드슨著), 뉴요크. 1903年 刊

3) 台湾의 土地改革(첸·청著), 대북. 1961年 刊

台湾의 政治発展에 관해서 参造한 주요 文献은 다음과 같다.

1) 타이·홍·차오著 "国民党과 台湾의 近代化", 近代社会에서 専制政治(새뮤엘·헌팅톤과 클레멘트·무어 共編)

2) 티엔·홍·마아著 "転換期의 台湾: 社会政治的 변화의 展望" 中国季刊(차이너·코터리), 1975年 12月号

3) 제랄드·맥비드著 "1977의 台湾" 아시언·서베이, 1978年 1月号

4) 융·웨이著 "台湾에서의 自由中国의 政治発展" 홍·다·추編 台湾問題와 美中関係(美国 프레이거社, 1973年 刊(

5) 아더·레이만著 "台湾의 엘리트나 지방정치인", 美国政治学논총(Amerioan Politial Scevce Review), 1977.

그밖에 台湾에서 刊行되는 中央日報와 星島日報등 참조

台湾의 経済発展은 다음 文献을 주로 参考했다.

1) 李国鼎著 台湾의 動態的 経済成長의 경험(The Experievce of Dyvanit Econmic Growth in Taiwan), 대북 1976年 刊

2) 曹英煥編 前揭書

3) 홍·다·추編 前揭書

4) 워타리·에코노믹·리비우(Auaiterly Econrmic Review) 필리핀, 1978年 봄号

5) 台湾의 6個年経済開発計劃: 1976-1981(自由中国 行政院 経済企劃院 1976年 10月 刊)

6) 自由中国의 工業, 1978年1月(Vol. 49) 특히 前 自由中国의 経済部長으로 台湾経済発展의 主役이였던 李国鼎의 論文

台湾独立運動에 관해서는 다음에 文献을 주로 参考했다.

1) 1977年 9月에 개최되었던 美国과 中共과의 国交正常化에 관한 청문회 기록(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llic of China Praetical Implication Hearings before Subcommitte on Asian and Pacific affairs of the Committee of International Relations, US Corgess, 1977).

2) 윌리엄·반드編 中国과 美国: 새로운 관계의 모색(뉴요크, 1977)

3) 曹瑛煥編 前掲書

4) 킹·첸著 台湾에 대한 北京의 태도" 아이언·서베이 (Asian Survey), 1977年 10月号

第三部 美·中共關係正常化와 日·中共平和條約締結에 따른 臺灣의 將來와 安保

金 達 中

< 略 歷 >

一. 延世大学校 政外科 卒業

一. 中華民国 国立政治大学校 外交研究所 碩士

一. 프레처 国際法 外交学 大学院大学 国際政治学 博士

一.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研究委員

一. (現)延世大学校 政外科 副教授

目　　　次

o 要約文 …………………………………………………… 115

第一章　序　　論 …………………………………………… 121

第二章　美・中共外交正常化 ……………………………… 124

　1. 台湾問題의　淵源 ………………………………………… 124

　2. 美・中共関係의　変化, 1950−1972 ………………………… 127

　3. 美・中共　上海共同声明 ………………………………… 130

　4. 上海共同声明이후　美・中共関係 ……………………… 134

　5. 美・中共外交承認의　促進　및　遅延要因 ……………… 139

第三章　日・中共平和友好条約 …………………………… 146

　1. 戦後　日・中共関係의　発展 …………………………… 146

　2. 日・中共外交正常化 ……………………………………… 152

　3. 日・中共平和条約　交渉 ………………………………… 155

　4. 交渉遅延　및　促進要因 ………………………………… 165

第四章　台湾問題의　解決方式 …………………………… 169

　1. 日本方式 ………………………………………………… 169

　2. 맨스필드方式과　잭슨方式 ……………………………… 170

第五章　韓半島　周辺情勢에　미치는　影響 ……………… 173

　1. 美・中共国交正常化가　韓半島　周辺情勢에　미치는　影響 … 173

　2.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이　韓半島　周辺情勢에　미치는　影響 175

(要 約 文)

美・中共関係 발전 추이와 外交正常化의 促進 및 遅延要因들을 감안할 때, 美・中共外交正常化 수립시기는 1979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일 1979年에 外交正常化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次期 美国大統領 選挙이후 수립되게 될 새로운 行政府에 의해서 行政府 수립 初期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美・中共外交正常化 수립 과정에서 核心的 問題는 台湾問題의 解決이다. 台湾問題의 解決은 1972年 上海共同声明의 原則과 台湾의 安全保障原則에 입각하여 해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美国은 台湾과의 外交関係를 단절할 것이다. 실제적인 美一台湾関係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代表部를 台北에 설치할 것이다. 美-台湾相互防衛条約은 폐기될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台湾의 安全을 보장할 수 있는 軍事支援体制로 대치될 것이다. 이러한 再調整下에서 中共과 台湾関係는 現状을 維持할 것이며 国際社会에서 台湾의 실질적 존재는 인정되고 지속될 것으로 본다.

美・中共国交正常化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美・中共間의 人的交流증대가 이루어지는 반면 中共은 美国으로 부터 輸出入銀行차관 및 最恵国대우에 힘입어 対美輸出量의 급격한 증대를 볼 것이며 기타 経済協力의 증대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中共의 対蘇 戦略的 位置는 강화될 것이며 이로써 中蘇国境의 安定化에도 기여할 것이며 東北亜와 東南亜地域 安定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美国과 台湾과의 関係는 美•中共外交正常化 方式에 의하여 결정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外交関係는 단절될 것이나 経済文化関係는 지속되면서 民間主導의 準外交関係로의 발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駐台湾 美軍의 撤収는 이행될 것이나 台湾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대한 美国의 公約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될 것으로 본다. 台湾의 外交的 孤立은 가중될 것으로 보며 台湾의 対蘇接近 가능성은 하나의 現実問題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美•中共外交正常化 이후에도 台湾의 安全을 위한 美国의 公約이 確信될 때 台湾의 蘇聯接近은 制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美•中共外交正常化가 이룩되면 기존 美日軍事同盟関係의 변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日本의 外交 및 軍事面에서의 自主度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며, 日本은 台湾의 対蘇接近 가능성과 蘇聯의 海上으로 부터의 위협에 관심을 증대하면서 自体 軍事力 増加에 힘쓸 가능성이 높다.

中共•日本関係에 있어서 中•日競争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센가꾸列島와 대륙붕문제를 둘러싼 中日紛争 가능성은 높으며 韓半島와 東南亜地域에서 中日의 競争 역시 증대될 것으로 본다.

美•中共国交正常化가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北京—平壤関係의 근본적 변화는 없겠으나 다소 냉각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平壤—모스크바関係가 보다 접근될 가능성이

높다.

韓半島 平和安保 維持에 있어서 中共이 좀더 美国에 협조적일 수 있으며 日本의 対韓国接近誘因이 증대될 것으로 본다.

対美輸出에 있어서 韓国과 中共과의 競争은 치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中共의 분쟁도서 및 대륙붕문제에 대한 태도가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륙붕개발을 둘러싸고 韓国―日本―中共間의 분쟁 가능성은 증대될 것으로 본다. 台湾에 의한 対蘇接近이 시도되는 경우 이것이 韓·蘇関係의 전망에 주는 영향은 미묘할 것으로 본다.

美·中共国交正常化 過程에서 美·中共間에 韓半島問題가 협의될 것이냐 혹은 国交正常化가 이루어진 후에 韓半島問題가 협의될 것이냐 하는 問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美·中共接近을 방해하기 위한 蘇聯側 음모와 美·中共国交正常化 이후 이룩될 韓半島 現状維持 및 固定化 가능성을 타파하기 위한 北韓側 음모로 감행될 수 있는 北韓의 対南武力侵略 가능성은 계속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美·中共外交正常化가 이루어지는 경우 韓国과 台湾과의 기존 外交関係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느냐는 韓国外交가 당면하게 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現在의 韓国·台湾外交関係를 지속해야 할 것이냐 혹은 変化시켜 調整해야 할 것이냐, 조정한다면 어떠한 方式과 内容이 될 것인가 하는 問題들은 政策담당자 뿐만 아니라

学界의 관심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 당면 연구과제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日·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이후 日·中共関係의 発展이 韓半島 주변정세에 미치는 安保 및 経済側面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日·中共平和条約은 美·中共外交正常化를 촉진시킬 것이다.

둘째, 日·中共平和条約은 韓半島 安定에 보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日本은 본래 韓半島의 現状安定을 바라고 있으며, 中共 역시 표면상으로 北韓을 지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現状安定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4個当事国会談을 위한 協商 背景의 성숙으로 볼 수도 있다.

세째, 향후 北京과 平壤間의 근본적 변화는 없겠으나 平壤과 모스크바関係가 보다 접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즉 蘇聯으로부터의 北韓에 대한 軍事 및 経済支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東아시아 国際体制의 再調整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蘇聯이나 北韓이 이러한 体制再調整의 진전을 저해하기 위하여 韓半島에서의 긴장조성을 유발할 가능성에 対備해야 할 것이다.

네째, 그렇기 때문에 日·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이후의 東北亜 安定을 위하여 日本의 南北韓 等距離外交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日本·北韓間의 経済協力과 人的交流가 증대될 것이며 점차

政府水準의 접촉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戰略的 사고의 性向은 앞으로 美•中共外交正常化 과정에서도 同質的으로 나타날 것에 対備해야 한다.

다섯째, 中共은 韓日大陸棚開発 특히 第7鉱区 開発에 대하여 더욱 강경히 제동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韓•日 経済協力을 위하여 日•中 経済協力을 희생하는 것보다 이의 逆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日本의 大陸棚開発 동기는 中共으로부터의 原油輸入 増大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섯째, 日•中共 経済協力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는 점차 中共의 輸出能力을 향상시킬 것으로 본다. 이로써 경공업 및 노동집약적 輸出商品에 대한 中共과의 輸出競争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中共은 현재 지속적인 国内需要의 증가로 수출여력이 없으며, 労動者들의 임금인상으로 国内需要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본다. 軍備에 대한 資源의 우선배정으로 輸出商品의 급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며 낮은 労動生産性, 製品의 質的 統制의 貧困, 그리고 管理経営의 미숙으로 수출선의 기호에 맞는 輸出商品의 開発에 限界性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中共은 향후 数年間 심각한 韓国의 輸出競争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보겠으나 이상의 制約要因을 극복하게 될 10年後의 中共은 韓国의 심각한 輸出競争国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長期的 対応力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第一章 序 論

1960年代 下半期부터 東亜細亜 国際政治는 中共과 美国이 그들의 基本外交政策을 再評価 내지 再調整함으로써 급격한 変化를 이루게 되었다.

1968年 蘇聯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으로 시현된 東欧 蘇聯衛星国家들의 制限主権을 의미하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発動과 격화되었던 中·蘇紛争 그리고 이로인한 蘇聯으로 부터의 核攻撃 가능성은 中共으로 하여금 対美国政策을 再考하도록 만든 主要要因이 되었다. 中·蘇紛争의 始発은 1950年代 後半으로 소급될 수 있으나 그 당시 中共은 対美関係改善의 의도가 없었으며, 1960年代 中·蘇関係가 더욱 악화되었던 時期에 있어서도 中共은 계속 美国을 中共의 第一의 公敵으로 간주하는 態度의 変化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8年 蘇聯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蘇聯이 中蘇国境에 막강한 軍事力을 배치하게 되고, 1969年 8月 新疆에서 中蘇武力衝突이 발생하고 蘇聯에 의한 核攻撃의 위험성이 가능성으로부터 하나의 現実로 認識되게 되자, 中共은 이러한 蘇聯으로부터의 軍事威脅을 상쇄시키기 위한 対応勢力으로서의 美国과 関係改善을 꾀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美国의 政策 역시 급격한 변화를 이룩하였다. 닉슨大統領은 그가 大統領에 되기 以前부터 中·蘇紛争에 의한 보다 복잡한

国際上位体制에 있어서 美国의 国益을 위한 中蘇関係의 活用可能性을 이미 展望했던 것이다. ① 그가 大統領에 취임한 후 그는 아시아로부터의 美軍事力을 점차 감축하면서 中共에 대하여 취해 왔던 禁輸措置들을 철폐 내지 완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인도지나로부터 美国이 영예로운 撤収를 이행하는데 中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戦略武器制限協定을 포함하여 蘇聯과의 関係改善에 中共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国際情勢 背景의 변화와 美・中共의 戦略的 고려에 의하여 1971年 키신저国務長官의 中共訪問이 이루어 졌고, 드디어 닉슨大統領의 北京訪問이 (1972,2,28) 이루어져 歴史的인 上海共同声明의 発表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美・中共間의 関係改善이 이루어 지는 가운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台湾問題는 가장 解決하기 어려운 問題로 남아 있는 것이다. 上海共同声明에서 美国은 台湾問題에 대하여 (1)中国은 하나이며, 台湾은 그의 一部이고, (2) 台湾과 中国本土와의 統合問題는 中国 国内問題이고, (3) 台湾問題 解決은 中国人 自身들에 의하여 平和的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리고 (4) 台湾地域에서 緊張이 감소됨에 따라 台湾駐屯 美軍과 軍事施設을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美国은 아직도 台湾에 대하여 条約上 防衛公約을 가지고 있으며 外交関係를 지속하고 있다. 동시에 中共은 「台湾解放」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台湾問題에 대한 美·中共間의 政策的 立場의 差異는 계속 美·中共外交正常化에 가장 심각한 障碍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台湾問題를 美·中共이 어떻게 해결함으로써 外交正常化를 이루느냐가 가장 重要한 問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反面에 美·中共間의 関係改善에 자극받은 日本은 日·中共関係의 改善에 있어서 台湾問題를 동시에 解決함으로써 1972年 9月에 「田中·周 共同声明」을 발표하게 되고 日·中共関係는 즉각 外交関係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日·中共関係는 계속 발전 확대되고. 드디어 1978年 8月 12日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을 체결함으로서 日·中共関係의 완전한 正常化를 이루게 된 것이다.

実際에 있어서 戦後 日·中共関係는 美·中共関係의 機能으로 特色지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美·中共外交正常化 過程에서 台湾問題의 解決方式에 日本式 解決方式이 줄 영향은 클 것으로 본다. 그런 意味에서 어떻게 日·中共間에 台湾問題를 해결하였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美·中共이 台湾問題를 해결할 것이냐를 展望하는데 중요하다. 동시에 台湾의 장래가 어떻게 展望될 것이냐를 짐작하는데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美·中共外交正常化와 日·中共平和友好条約締結에 따라 台湾의 将来가 어떻게 展開될 것이냐에 一次的인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며, 나아가 二次的으로 이러한 国際情勢의 変化가 韓半島에 미칠 영향과 韓国의 安保에 주는 意味를 分析 評価할 것이다.

第二章 美·中共外交正常化

1. 台湾問題의 淵源

台湾問題의 淵源은 1949年으로 소급된다. 1949年 中華民国이 台湾으로 옮기고 北京에 中華人民共和国이 수립되면서, 台北의 中華民国과 北京의 中共은 똑같이 台湾은 中国 領土의 不可分의 一部라고 주장하고, 北京과 台北間의 싸움은 台湾을 포함하는 中国을 누가 統治하느냐에 집약되어 왔던 것이다.

台北이나 北京의 立場에서 보면 台湾問題란 中国 国内問題이며 中国人 自身들에 의하여 解決되어야 한다고 보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美国側 立場에서 보면 台湾問題란 国際的 性格을 띠고 있으며, 台湾을 누가 統治하느냐 하는 主権問題가 技術的으로 아직 未解決 状態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台湾問題가 解決될 때까지 美国은 台湾을 軍事的으로 外部로부터의 侵攻에 保護할 防衛義務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왔던 것이다.

台湾은 歴史的으로 볼때 1661年부터 1895年까지 中国領土의 一部로 中国이 統治해 왔다. 1895年 中·日戦争(1894-95)에서 敗하게 되자 中国은 下関条約에 의해 台湾을 日本에 割譲했던 것이다.

그후 1941年 12月 9日 中華民国이 日本에 正式으로 宣戦布告

하면서 日本과 맺은 모든 형태의 条約과 協定은 無効임을 宣言하였던 것이다. 그후 1943年 11月 26日 카이로会談에서 蔣介石総統, 루즈벨트大統領, 그리고 처칠首相은 共同宣言을 통하여 「日本이 中国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領土, 즉 만주 대만 및 팽호열도는 中華民国에 반환한다」는 原則을 宣言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나흘 후 11月 30日 테헤란会談에서 스탈린은 카이로宣言과 그 全内容을 인정했던 것이다.② 1945年 7月 26日 美·中·英 国家元首들은 포츠담에 모여 「카이로宣言의 内容이 履行되어야 함」을 포츠담宣言을 통하여 再確認하였고, 同 포츠담宣言은 同年 8月 8日 蘇聯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8月 11日 프랑스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았던 것이다.③ 그후 1945年 9月 2日 日本은 降服文書에 調印하고 포츠담宣言 内容을 인정했던 것이다.

降服文書에 따라 聯合軍 最高司令官은 一般命令 第一号(General order NO.1)로써 中国과 台灣에 있는 日本軍은 蔣介石総統에게 降服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다.④ 이에따라 1945年 10月 25日 中国은 정식으로 台湾을 日本으로부터 인수받았으며 다음날 台湾은 中国의 하나의 省으로 정식으로 統合되었던 것이다.

1949年 10月 1日 中華人民共和国이 수립되고, 同年 12月로서 中共은 大陸全部를 통제하게 되었고, 中華民国은 台湾으로 옮기게 되었다. 台湾 解放에 대한 中共의 軍事压力이 加重되었던 状況下에서 트루만大統領은 台湾軍事援助를 위한 美合参議長의 건의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⑤ 1949年 12月23日 美国務省은 台湾抛棄政策을 설명하는 備忘録까지 極東地域 美外交官들에게 배포했던 것이다. 더우기 1950年 1月12日 美国記者協会에서 애치슨国務長官은 西太平洋 美国防衛線이 알류샨열도로 부터 日本과 오끼나와 그리고 필리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台湾이 美国의 防衛線으로부터 除外되어 있음을 밝혔던 것이다. ⑥

1950年 5月 中共이 20여 마일의 海狭을 건너 全 海南島를 무력점령하게 되자 中共이 그 여세를 몰아 곧 台湾을 침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한달후 6月25日에 韓国戦이 돌발했던 것이다.

韓国戦争 돌발은 美国의 台湾問題에 대한 政策을 변화시켰다. 1950年 6月27日 트루만大統領은 美제7함대에게 台湾防衛를 命令함과 동시에 台湾의 中国政府에게 大陸을 相対로한 여하한 軍事作戦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트루만大統領은 「장래의 台、位置에 대한 決定은 太平洋地域에서의 安保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든지 日本과 平和条約이 締結될때 혹은 유엔이 決定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立場을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美国이 台湾問題에 대하여 介入하게 되자 中国은 카이로宣言의 原則을 고수하는 원칙하에 변화된 美国政策을 받아 들였고, 反面에 中共은 美国의 「帝国主義的 변모의 발로」라고 공박했던 것이다. 이로써 1950年 6月27日이후 트루만 美大統領이 台湾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킨 이후부터 台湾問題는 国際政治의 主要争

点이 되어 옴은 물론 中共外交政策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왔던 것이다.

2. 美·中共関係의 変化, 1950-1972.

台湾防衛를 위한 美国의 제7함대 介入이후 1950年 8月初 美 제13비행단의 連絡事務所가 台北에 수립되고, ⑧ 1951年 2月9日 美·台湾間에 台湾防衛에 필요한 軍事物資 및 装備支援에 관한 協定이 効力을 발생하게 되었다. ⑨ 이로부터 3개월 후에는 台湾에 美軍事顧問団이 창설되고 経済援助도 再開되고 増加되었던 것이다.

美国의 台湾防衛政策은 더욱 本格化하여 1954年 美国은 中華民国과 台湾과 彭湖列島의 保護를 규정한 相互防衛条約을 締結하고, ⑩ 1955年 美議会는 中共이 台湾을 무력공격할때 美軍을 介入시킬 수 있는 権限을 美大統領에게 부여하는 台湾決議案(Formosan Resolution)을 채택하였다.

中共이 韓国戦에서 美国을 위시한 16個 유엔会員国家로 구성된 国際聯合軍의 交戦相対国으로 参戦한 1950年 10月 중순부터 20여년간 美·中共関係는 사실상 敵対関係를 지속해 왔다. 이 期間에 있어서 美·中共間의 唯一한 접촉통로는 1955年 8月 이후부터 제네바에서, 그리고 1958年 9月부터 바르샤바에서 開催되어 왔던 大使級会談뿐이었다. ⑪

美·中共関係의 가장 중요한 変化는 닉슨行政府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닉슨大統領은 취임이후 美国의 가장 중요한 政治外交的 課題로서 越南戰의 축소와 종결을 설정하고, 越南戰 終結을 둘러싼 아시아에서의 軍事的 政治的 外交的 懸案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中共과의 関係改善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政策理論과 仮説을 가지고 아시아政策을 展開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닉슨大統領의 이러한 政策理論은 그가 大統領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이미 구상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닉슨은 1967年 「포린어페어즈」誌 기고에서 「여하한 美国의 아시아政策은 신속히 中国의 現実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⑫

그리하여 닉슨大統領은 大統領職 就任이후 共産主義勢力과 앞으로의 関係는 対決보다 協商을 통하여 発展되어야 함을 宣言하고, 1960年代부터 부분적으로 蘇聯 및 東欧圏과의 関係改善을 추진하여온 対共産圏外交를 中共을 포함시킨 包括的인 外交戰略으로 積極的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美・中共関係改善을 위한 美国側의 다각적인 提案과 措置가 一方的으로 취해지게 되었다. 1969年 2月19日 윌리암 로저스国務長官은 中共에게 平和共存을 위한 会談開催를 위하여 美・中共間에 記者 学者 및 科学情報의 交換을 제의하였다. ⑬ 동시에 同年 3月과 4月에 걸쳐 美国上院議員, 특히 民主党議員들과 기타 主要政治人들이 닉슨行政府에 美・中共間의 接近을 위한 政策変更을 촉구하는 일련의 政策建議를 전달한 바 있다. ⑭

이 時点으로부터 美·中共関係改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일련의 措置가 닉슨行政府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1969年 7月 22日 美国人 海外旅行者에 대하여 100 $까지 中共産物品의 自由購入을 허용함과 동시에 学者 医師 科学者 및 記者의 中共訪問 禁止措置를 解除하고 같은 時期에 美軍艦에 의한 台湾海峡 정규순찰도 중지하는 措置를 취하게 되었다. ⑮

美国의 対中共関係改善을 위한 일련의 措置들은 드디어 1969年 7月 아시아 中共周辺地域으로 부터의 美軍撤収를 主要 内容으로 하는 「괌 독트린」의 発表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후 1969年 12月에 이르러 美国政府는 中共에 대한 非戦略物品 禁輸를 解除하고 美国人에 의한 非商業用 中共物品 購買上限額을 철폐하는 措置를 취하였던 것이다. ⑯ 1970年初 루마니아国家元首인 초우세스쿠의 워싱톤訪問時에 베푼 환영宴会에서 닉슨大統領은 처음으로 中共을 지칭하여 中華人民共和国(The Beople'S RePublic Of China) 国名을 호칭하고 同年 2月19日에 행한 닉슨大統領의 첫번째 外交教書 演説에서 公式的으로 中共과의 関係改善 意図를 政策的 次元에서 밝혔던 것이다. ⑰

이러한 美国政府의 中共接近政策은 1971年에 들어서면서 더욱 積極的으로 추진되었다. 同年 3月 15日 美国務省은 美国旅券에 기재되어 있는 海外旅行 禁止国名単으로부터 中共을 除外시키는 措置를 취하고 4月 14日 経済 및 査証에 관한 5個措置를 発表하였

다. 드디어 4月16日 닉슨大統領은 그의 中共訪問 希望을 公式으로 표명하기에 이르렀고 同年 6月에 47個 部門의 1,000種目에 달하는 物品에 대한 対中共禁輸措置를 해제하였던 것이다. [18]

美国政府의 中共接近政策에 대한 北京으로 부터의 肯定的 反応 역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中共은 중단상태에 빠져있던 美・中共 大使級会談 再開에 동의하고, 1971年 4月 中共은 美国 탁구팀을 초청하고 동시에 美国의 中共 탁구팀 訪美招請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 [19]

이러한 美・中共間의 関係改善을 위한 雙務的 努力의 背景속에서 1971年 7月 키신저의 中共秘密訪問外交가 전개되었고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 준비가 이행되었던 것이다. 同年 7月15日 드디어 닉슨大統領의 北京訪問計劃이 公式発表되고 그로부터 7個月 後 1972年 2月21日부터 28일까지 닉슨大統領의 歷史的인 中共訪問이 이루어졌고 美・中共間의 새로운 関係의 序章이 되는 美・中共 上海共同声明이 発表되게 되었다.

3. 美・中共 上海共同声明

美・中共 上海共同声明의 主要内容은 美・中共 雙務関係에 대한 合意, 台湾問題, 平和5原則에 대한 合意, 勢力圈구축 포기, 그리고 第3国問題로 요약될 수 있다. [20]

美・中共은 上海共同声明에서 両国間의 関係正常化를 향한 進展은

모든 国家들의 利益이라는 前提下에 구체적으로 科学技術 文化 体育 및 言論 分野에 있어서의 다각적인 접촉과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平等과 互恵에 입각한 相互交易을 포함한 経済協力関係의 発展 그리고 両国間의 関係正常化를 促進하고 共同関心事에 관한 意見交換을 계속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를 위하여 美国의 高位層 使節의 北京 파견에 합의하였다.

닉슨大統領의 北京訪問의 主目的中의 하나는 両国間의 常設対話通路를 수립하는데 있었으나 이 目的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㉑ 또한 美国은 우발적인 事故나 오해로 인한 武力衝突 発生可能性을 제거하기 위하여 워싱톤-北京間의 直通電話 設置를 合意하려 했으나 中共側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㉒

향후 美·中共関係 発展의 法的인 根拠와 美·中共関係改善의 精神的 基調가 되고 있는 上海共同声明의 核心은 台湾問題이다. 台湾問題에 대하여 美·中共이 原則上 合意를 본 내용은 (1)하나의 中国과, 台湾은 그의 一部임을 認定하고, (2)台湾과 中国本土와의 統合問題는 中国 国内問題임을 認定하고, (3)台湾問題의 해결은 中国人 自身에 의하여 平和的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認定하고, (4) 이러한 原則에 따라 美国은 台湾으로 부터 모든 美軍과 軍事施設을 撤収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目的이며, 이 地域에서 緊張이 감소됨에 따라 台湾駐屯 美軍 및 軍事施設을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을 認定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美国은 앞으로 台湾問題에 대하여 干渉하지 않을 것이며 台湾駐

中 美軍의 철수는 「緊張이 감소됨에 따른다」는 条件을 부과하고 있으나 実際上 上海共同声明에서 台湾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잔류 美軍을 철수할 것을 約束함으로써 美国의 台湾에 대한 防衛条約을 사실상 弱化시켰다고 볼 수 있다.

美国과 中共은 「社会体制 및 外交政策에 있어서의 本質的인 差異」에도 불구하고 中共側이 제시하여온 「모든 国家들의 主権 및 領土保全의 존중, 다른 나라에 대한 不侵, 다른 나라의 内政不干渉, 平等互恵 및 平和共存의 原則에 입각하여 両国関係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合意하였다.

中共은 平和 5原則을, 台湾問題에 대한 中共의 主張을 合理化하고 弱小国家에 대한 強大国의 干渉을 규탄하기 위한 戦略으로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며, 美国이 이 平和 5原則을 上海共同声明에서 수락한 사실은 中共側의 커다란 外交的 이득으로 評価된다. ㉓ 平和 5原則의 해석에 있어도 中共은 内政不干渉 및 領土保全의 原則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美国은 平和共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美国側은 内政不干渉 原則 역시 中共의 勢力膨脹으로부터 中共周辺弱小国家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戦略的 判断을 내렸던 것으로 본다.

美・中共은 힘의 使用이나 威脅에 의존함이 없이 国際紛争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原則下에 国際的인 武力紛争의 위험을 減少시키기를 원하고 있음에 合意하였다. 両国은 또한 美・中共 어느 側도

亜細亜・太平洋地域에서 主導権을 추구하지 않으며 또 両国은 그러한 主導権을 확립하려는 다른 어떤 国家 또는 国家集団의 努力에도 反対한다는 점을 合意 宣言하였다. 그리고 美国과 中共은 「第3国을 대신하여 協商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들에 관하여 相対国과 협정 또는 양해를 맺을 用意가 없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美・中共이 上海共同声明을 통하여 세력구축 포기선언을 채택한 理由는 아시아에서 蘇聯의 勢力拡張 저지에 両国이 利害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上海共同声明에서 第3国問題에 대한 美国과 中共의 立場은 両国이 종전까지 취해온 政策的 立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日本에 言及하여 美国은 美日間의 友好関係와 긴밀한 紐帯를 계속 발전시킬 것을 表明하고 있음에 反하여 中共은 日本의 軍国主義 復活과 対外膨脹을 반대하고 日本의 中立化를 지지한다고 表明하고 있다.

印度支那問題에 대하여 中共은 越南, 라오스 및 캄보디아人民들의 目標達成을 위한 努力을 지지하고, 또한 越南臨時政府의 7個項提案 및 印度人民頂上会談의 共同宣言을 지지하고 있으며, 美国은 印支人民들의 外部干渉 없는 自決権과 協商을 통한 해결을 主張하고, 그 해결의 方法으로 1971年 1月 美国이 越南共和国과 共同으로 제안한 8個項提案을 제시하였다. 美国은 또한 上海共同声明에서 印支半島로부터 全美軍의 「即刻的이며 無条件 撤収」를 주장했던

바와는 달리 美軍撤収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고 越盟에 대한 지지보다 越南臨時革命政府의 休戰案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韓国問題에 있어서 美国은 韓国과의 「緊密한 紐帯와 支持를 維持」할 것이며 韓国이 韓半島에서 緊張緩和를 추구하고 南北韓 접촉확대 努力을 지지한다고 다짐한 반면, 中共은 北韓이 1971年 4月에 제시한 許淡의 平和統一 8個項方案과 유엔韓国統一復興委員団의 解体를 要求하는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美·中共 雙方間에 韓国問題에 관한 意見差異가 축소되지 않았다.

上海共同声明의 文脈으로 보아 美·中共両側은 韓国問題를 특별히 중요시하여 강력히 각자의 政策的 立場을 주장한 인상은 약하다고 본다. 그러나 美国의 対韓支援은 共同声明에서 確認되었으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美·日関係는 「계속 発展」한다고 하였음에 반하여 韓国에 대한 지원은 「維持한다」는 用語를 사용함으로써 美国의 対日関係와 対韓国関係에 차이를 두고 있음에 유의할 必要가 있다.

4. 上海共同声明 以後 美·中共関係

上海共同声明이후 美·中共関係는 美国과 台湾과의 既存紐帯의 維持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되어 왔다. 우선 越南休戰을 성립시킴에 있어서도 美国은 최소한 中共의 妨害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24] 동시에 美国은 北京과의 和解에도 불구하고 1972

年 5月 美蘇 모스크바頂上会談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第1段階 戦略武器制限協定의 締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美国은 中共과의 和解를 계기로 「勢力均衡을 通한 平和」라는 国際秩序 定立을 위한 構想을 示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반면에 中共 역시 美国과의 和解를 통하여 対蘇 견제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고, 日本과의 国交正常化를 수립하고 東南亜 中共周辺 国家들과 関係改善을 도모하고, 더욱 더 台湾을 外交的으로 孤立化시킬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美国과의 経済協力의 점진적 拡大와 人的交流의 拡大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美・中共間의 経済協力과 人的交流의 拡大는 1973年 봄부터 本格化되기 시작하였다.

1973年 2月 키신저의 中共訪問期間中 北京과 워싱톤에 相互 連絡事務所를 設置할 것에 합의하고,(25) 同年 3月 닉슨大統領은 駐北京 美国連絡事務所長에 데이비드 브루스를 任命하고, 中共은 駐워싱톤 中共連絡事務所長에 黄鎮을 任命하여 両所長은 5月에 각각 任地로 부임하였다.

中共側은 黄鎮이 계속 워싱톤에서 집무하고 있음에 반하여 美国側은 1974年 11月 第2代 駐北京 美国連絡事務所長으로 부쉬를, 第3代事務所長으로 토마스 게이츠大使를 임명했고, 1977年 6月 카터大統領은 第4代 所長으로 욱스톡을 임명한 바 있다.

上海共同声明 発表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美・中共関係의 発展内

容은 네가지 領域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上海共同声明 精神을 再確認하고 雙方 連絡事務所의 機構拡張과 相互交流增大에 관한 政府間 새로운 合意를 이루기 위해 키신저長官의 연속적인 中共訪問이다. 키신저長官은 1975年 10月까지 모두 8次에 걸쳐 中共을 訪問하였다.㉖

둘째, 美国議会 議員团의 中共訪問이다. 1974年 7月 헨리·잭슨 美上院議員, 同年 12月 마이크·맨스필드美上院 民主党院内総務, 同年 8月 찰스·퍼시上院議員과 제콥·제비트上院議員, 그리고 같은 달 존·앤더슨 및 로버트·버드議員, 1976年 4月 멜빈·프라이스議員, 同年 7月 휴·스코트上院 共和党院内総務, 同年 12月 맨스필드議員 및 칼·커티스議員, 그리고 1977年 카터行政府 탄생이후 4月에 슈에이커 등 美議員团들의 中共訪問이 이루어졌다.

세째, 演芸人 新聞記者 言論人 및 学者들의 中共訪問이다. 1975年 5月 美国新聞編輯人協会 訪問团의 中共訪問이 있었고 文化関係의 各分野에서 交流가 있었다.

네째, 通商関係이다. 美·中共間의 交易量은 1972年 9,500萬弗이었다. 中共이 美国으로부터 수입한 수입량은 1973年 8억弗, 1974年 9억弗로 상승하다가 1975年 4억弗 水準으로 다시 저하되었다. 그 理由는 上海共同声明以後 美国으로부터 中共이 수입하고 있는 物品中 80%가 農産物인데 中共은 1972年 1973年 그리고 1974年에 계속된 흉작으로 美国으로부터의 農産物 輸入이 급격히 증대되었다가 1975年에 이르러 農産物 生産의 好転과 더

불어 備蓄量이 많아 지면서 輸入量이 감소되었던 것이다. ㉗

中共의 対外貿易은 일반적으로 양곡수입 및 中共의 식량생산 증대와 관련되는 상품의 구입 그리고 工業化에 필요한 플랜트輸入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美国이 中共에게 아직까지 最恵国 대우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 美·中共貿易의 不均衡이 悪化되고 있는 상황이다.

上海共同声明 発表以後 美国은 台湾에 대한 既存紐帯関係를 지속하면서 台湾駐屯 美軍을 점진적으로 철수시켜 왔다. 이미 밝힌 바와같이 上海共同声明에서 美·中共関係正常化의 原則으로 中国은 하나이며 台湾은 中国의 一部이고 台湾問題는 中国 国内問題이며 台湾問題解決은 中国人 自身에 의하여 平和的으로 해결해야 하고, 台湾駐屯 美軍과 軍事基地는 점진적으로 撤収한다는 原則에 합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美·中共間의 原則的 合意에 따라 美国은 台湾駐屯 美軍兵力을 1972年 1萬名 水準에서 現在 2,800名 線으로까지 감소시켰고 잔류병력의 성격도 非戦闘兵力인 軍事顧問 및 技術要員들로 구성되어 있다. 1950年부터 美軍이 台湾에 駐屯한 이래 現在까지 27年間 존속했던 台湾駐屯 美軍事防衛司令部가 1977年 7月1日을 기해 解体되고 이와함께 美軍事顧問団 및 補給倉庫등이 撤収한다고 전해졌다. ㉘

上海共同声明 原則과 同共同声明 発表以後 美·中共関係 発展内容에 입각한 現在 美·中共関係의 性格을 규정한다면, 美国은 中共을

事実上(de facto) 中国의 唯一合法政府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法律上(de jure) 外交承認을 留保해 놓고 있는 상태이면서 実質的으로 経済協力과 文化 및 人的交流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状態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現在 美·中共関係의 問題点은 実質的인 問題(Practical Problem)와 法律的인 問題(Legal Problem)로 大分할 수 있다고 본다.

実質的인 問題는 첫째 文化交流를 통한 美·中共間의 多方面 접촉증대와, 둘째 交易増大를 의미하며, 이러한 実質的인 問題들은 雙方의 連絡事務所를 통하여 実質的으로 해결되고 확대 증진되고 있다.

法律的인 問題는 中共의 外交承認을 통한 美·中共間의 外交正常化의 問題로서 아직도 留保되어 있는 상태이며 美国은 従前과 같이 台湾에 大使館을 유지하고 있다. ㉙

그러므로 향후 美·中共関係 발전추이는 実質的인 問題에 있어서 美·中共접촉과 교류 그리고 交易을 계속 확대 증진시켜 나갈 것이며, 法律的인 問題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上海共同声明에 근거하여 外交承認의 留保状態를 종식하고 正式国交樹立 方向으로 진전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美·中共関係의 다음 단계의 問題는 相互外交承認을 통한 正式国交正常化의 時期(timing) 問題와 国交樹立의 方式(formula) 問題이다.

5. 美·中共外交承認의 促進 및 遲延要因

美·中共外交承認의 時期에 대한 豫測은 美·中共国交正常化 促進要因과 遲延要因을 分析함으로써 시도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中共 立場에서 본 美·中共国交正常化 促進要因은 네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軍事的 側面에서 볼때 美·中共関係改善은 中蘇紛争으로 可能했다. 中蘇国境地帯에서의 軍事対決, 東南亜에서의 中蘇각축, 太平洋地域에서의 蘇聯海軍力 增強등은 中蘇紛争의 緊張度를 계속 높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中共은 自国의 国家安保上 蘇聯을 견제하기 위하여 美国과의 関係正常化 내지 外交関係 樹立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経済的 側面에서 中共은 自体의 落後된 科学技術과 工業 및 農業生産力을 높이기 위하여 美国으로 부터의 先進技術導入과 플랜트輸入이 필요한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美国은 中共의 食糧問題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공급원이 되고 있다. 中共의 귀중한 財源이 되고 있는 石油 등 資源開発을 위해 美国의 技術은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째, 中共은 領土完整이라는 国家目標 側面에서 볼때 中国大陸과 台湾과의 統合을 위하여 「두개의 中国理論」을 배척하는 문제는 中共外交政策의 上位에 속한 問題이다. 그러므로 中共은 領土完整의 目標達成은 美·中共外交承認으로써 일단락되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네째, 中共의 国内 政治的 側面에서 볼때 1970年代 初期부터 美国과 和解 및 緊張緩和를 추구해 온 実用, 穩健派가 華国鋒体制 확립과정에서도 계속 주도적 세력으로 作用하고 있다. 華国鋒体制가 수립된 1976年에도 美国과의 接近政策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国交正常化 過程에서 中共側 立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닉슨前大統領, 슐레진저 前国防長官 및 다수의 美議員団 및 主要人士들을 北京에 초청한 바 있다.

다음으로 美国 立場에서 본 美·中共의 国交正常化 促進要因도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美国 軍事戦略의 最優先 目標地域은 蘇聯이며, 美国의 対中共政策은 対蘇聯政策에서 연유되어 왔다. 핸리·잭슨美上院議員과 같은 美国内 対蘇緊張緩和政策 비판론자들까지도 蘇聯을 軍事的으로 견제하고 対蘇協商力을 높이기 위하여 中共과의 접근 내지 外交正常化를 주장하고 있다.[30] 또한 제임스·슐레진저 및 마이크·맨스필드 등은 蘇聯을 軍事的으로 견제하기 위한 対中共軍事技術援助까지도 제의하고 있다.

둘째, 美国은 東北亜細亜 安定維持를 위하여 中蘇軍事衝突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美国은 政治外交的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影響力 行使는 美·中共国交正常化의 이행으로 더욱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見解는 1975年 10月21日

美下院国際関係委員会 対外政策小委員会에서 행한 도크·바네트教授의 증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㉛

세째, 美国内의 毛沢東 死後 中共内 政治指導層 変化에 따라 中蘇関係의 制限的 好転 내지 接近可能性에 대비하여 그러한 事態進展 이전에 조속히 美·中共国交正常化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意見이 있다.

네째, 美国内 緊張緩和 추진세력이건 反緊張緩和勢力이건 中共과의 外交関係 樹立을 호의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키신저外交를 비판했던 카터大統領 自身도 대통령후보시에 수차에 걸쳐 大統領에 당선되면 美·中共関係를 正常化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으며 大統領 취임 이후에도 수차에 걸친 記者会見에서 美·中共外交正常化 추진 의도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카터大統領은 1977年 2月 8日 워싱톤駐在 中共連絡事務所長 黄鎮과 가진 会談에서 美国行政府는 中共과의 関係正常化에 政策目標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目標는 上海共同声明에 의거하여 계속 추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㉜ 또한 4月 6日 美国을 訪問中인 日本経済人들과의 会見에서 카터大統領은 장차 時日이 허락하는 때에 中共을 訪問할 용의가 있으며 美·中共関係를 완전히 正常化하는데 最優先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㉝ 4月 9日 北京에 도착한 美議会指導者 中共訪問団 一員으로 카터大統領은 자신의 아들을 参加시켜 美·中共関係 正常化 早期実現에 대한 그의 의사를 中共当局에 전달한 바 있다. ㉞

이와같이 中共과 美国立場에서 美·中共外交正常化 促進要因이 存在하고 作用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遅延要因도 作用하고 있다.

먼저 中共側 立場에서 본 遅延要因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中共国内政治的 側面에서 毛死後 華国鋒体制의 수립을 보았으나 政治的 安定은 아직도 未知数이다. 그러므로 中共政治指導力中 어느 勢力도 美·中共国交正常化를 積極的으로 短時日内에 추진시키려 하는 政治的 모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分析된다. 즉 華国鋒体制의 政治指導者들은 対外的 関心보다 国内的 政治問題에 당분간 더 関心을 가질 것으로 본다.

둘째, 中共은 美·中共国交正常化의 早期実現을 위하여 美国에게 台湾問題에 있어서 中共側 原則을 용이하게 양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中共은 그간 台湾에 대하여 統一主義原則을 強力히 표방해 왔고 이러한 原則을 희생 혹은 타협하면서까지 美国과 早期国交正常化에 努力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째, 中共의 外交行態로 보아 台湾問題에 대하여 美国이 中共側主張에 양보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時間外交」를 전개할 可能性 역시 存在하고 있다.

이러한 遅延要因은 美国内에도 存在한다. 美国 立場에서 본 遅延要因도 세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中共과 早期 国交正常化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台湾問題에 대한 美国側 양보, 즉 台湾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데 이는 美国内 保守派勢力을 크게 자극할 염

려가 있으며, 둘째 美国이 台湾을 희생시키는 경우 日本과 韓国 등 美国의 同盟国들이 반발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세째, 台湾과 蘇聯과의 제휴 可能性이다. 美国이 中共과 国交正常化를 위해 台湾과의 相互防衛条約을 폐기한다거나 台湾駐屯 美軍을 完全 철수한다거나 美大使舘을 철수하게 되는 경우 台湾이 自救策으로 蘇聯에 接近하여 台湾이나 彭湖列島에 海軍基地를 蘇聯에 대여하는 類의 軍事協力 可能性이 있다. 蘇聯-台湾間의 秘密접촉을 위한 蘇聯記者 빅토·루이스의 台湾入国説이 外信에 보도된 바 있고 특히 1976年 7月11日字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紙가 蘇聯·台湾接近説을 보도한 바 있다.[35]

카터行政府 樹立以後 美·中共関係正常化 움직임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자 蘇聯 台湾接近説이 다시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台湾国民党政府의 견해를 반영하는 1977年 4月21日字 「프리 차이나 리뷰」紙는 「만일 美国이 台湾을 포기했다고 믿을 경우 台湾은 中国本土를 침공하거나 또는 蘇聯과의 제휴를 추구할지도 모른다」[36]고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台湾이 蘇聯 影響下에 들어 간다는 것은 当地域의 勢力均衡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美国은 이러한 事態進展을 원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美·中共外交正常化 促進 및 遅延要因을 검토 감안하는 가운데 国交正常化의 時期를 예측한다면 1次 카터行政府 期間에

이루어질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카터大統領은 지난 2月8日 카터-黃鎭会談에서 그의 再任4年 期間동안에 中共과의 関係改善을 추진할 것이라고 中共에 통고한 바 있다.[37] 동시에 美·中共国交正常化 추진을 위한 협상을 위하여 밴스美国務長官이 1977年 8月 中共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美·中共関係의 발전추이와 배경을 감안할 때 美·中共外交正常化 수립시기는 1979年에 이루어질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만일 1979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次期 美国大統領 選挙以後 새로운 行政府 初期에 美·中共外交正常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 근거와 이유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共의 現 権力構造의 성격과 상황으로 보아 中共指導者들은 一次的으로 対内問題에 역점을 둘 것이며 단호하게 対外問題 특히 対美関係에 있어서 台湾問題에 양보하면서까지 外交正常化를 추진할 可能性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美国 카터行政府도 역시 対内 経済問題에 政策의 優先順位를 두고 있으며 美国内의 保守勢力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台湾을 희생시키면서 美·中共外交正常化를 서두름으로써 초래되는 逆効果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세째, 美蘇関係에서 現在 第2段階 戦略武器制限会談의 타결은 美国의 最優先 政策順位에 있다. 성급한 美·中共外交正常化로의 움직임은 蘇聯을 자극함으로써 第2段階 戦略武器制限協商 타결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美国은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네째, 美国과 中共은 성급히 両国間의 外交正常化를 기하려다가 台湾과 蘇聯이 接近 제휴하려는 결과를 바라지 않고 있다.

다섯째, 美国은 同盟国인 日本과 韓国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다고 본다.

第三章　日・中共平和友好條約

1. 戦後 日・中共関係의 発展

戦後 日・中共関係의 発展은 美・中共関係 発展의 機能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日本의 50年代 및 60年代의 対中国政策은 共産主義勢力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美国의 世界戦略과 이에 따른 中共勢力膨脹의 저지로 요약되는 아시아政策의 一般的 틀속에서 형성 이행되어 왔던 것이다.

中国代表権問題가 해결될 때까지 샌프란시스코平和条約 第26条에 따라 中国의 어느 한쪽 政府와도 平和条約을 締結하지 않으려던 初期의 吉田内閣의 対中国政策은 무산되어 버리고 美国의 圧力에 굴복, 1952年 4月 28日에 日, 中華民国平和条約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吉田内閣은 美国의 圧力으로 中華民国과의 外交関係 및 通商関係를 수립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中共에 대하여도 通商関係를 발전시켜 나가는 政経分離政策을 추구했던 것이다. 1952년 6月1日 北京에서 総3,000萬파운드에 달하는 第一次 日・中民間貿易協定(1952年 6月1日－1953年 10月28日)이 締結되고, 1953년 10月29日 이와 同一 規模의 第二次 貿易協定(1953年 10月29日－1954年 12月31日)이 北京에서 調印되었다. 또한 1953年 7月29日 日本国会는 日・中共貿易促進決議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1954年 12月에 출범한 鳩山内閣(1954. 12 - 1956.12)은 吉田内閣에 의하여 수립된 中国政策 路線을 대체로 수정없이 추구하였다. 그러나 鳩山首相은 그의 首相就任公約의 하나로 中共 및 蘇聯과의 国交回復 促進을 제시하고 中共과의 関係改善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時期에 中共역시 平和5原則을 주장하면서 平和外交를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鳩山内閣의 中共接近政策에 상당한 호응을 나타냈다. 1954年 10月12日 発表된 対日関係에 대한 中·蘇共同宣言에서도 中共은 日本과의 交易拡大와 文化交流 그리고 関係正常化 의도를 밝혔던 것이다.

鳩山内閣 期間中 1955年 4月에 日·中共間에 漁業協定이 체결되고, 同年 5月에 1, 2次와 동일한 規模로 第3次 日, 中共貿易協定(1955年 5月4日 - 1957年 3月31日)이 調印되었다. 이에 따라 中共은 東京과 大阪에서 商品展示会를 開催하였다.

日本의 対中共輸出은 1952年 60萬弗에서 1956年 6,703萬弗로 증가하여 台湾에 대한 輸出額 7,790萬弗과 버금가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1952年 日本의 対中華民国 輸出額이 6,060萬弗이었음을 감안하면 日本의 対中共輸出 증가율은 괄목할만 하다고 볼 수 있다. 日, 中共間의 交易増大뿐만 아니라 人的交流도 拡大되어 1951年 中共訪問 日本人数는 9名이었던 것이 1956年에는 1,243名으로 증가한 한편 中共側의 日本訪問者数는 1951年 17名에서 1956年 145名으로 증대되었다.(38)

石橋内閣(1956, 12 - 1957,2)은 短命한 内閣이었기 때문에

中国政策 面에서 별 特色과 進展이 없었다.

그러나 1957年 2月에 수립된 岸内閣(1957,2 - 1960,7)은 종래의 政経分離原則에 입각한 対中共政策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그의 台湾緊密政策과 美・日安保体制 強化政策에 의하여 日・中共関係는 悪化되고 말았다. 그러나 岸首相은 적극적인 親台湾政策을 추구하하면서도 동시에 対中共 経済接近을 시도 하였다. 그리하여 1958年 3月 5日에 日本과 中共은 第4次 民間貿易協定의 調印을 보게 되었다. 本協定은 종전의 年 3,000萬파운드의 貿易去来額을 3,500萬파운드로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세가지 特色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1957年 7月에 日本이 이미 対中共 輸出禁止品目中 272個의 戦略物品을 해제했기 때문에 第4次 民間貿易協定은 더욱 많은 交易品目을 허락하고 있으며,(39) 둘째, 本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日本代表団은 日本政府에 의하여 正式으로 파송되었다는 점이며, 세째, 本協定은 両時間에 民間通商代表部의 설치를 규정하고 通商代表部 要員들에 대한 광범위한 特権도 規定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特権들은 보안조치, 관세우대, 여행의 자유, 국기게양권, 通商代表部 要員 및 가족들의 指紋採取로부터의 면제등이 포함되었다.(40)

1960年 7月 池田内閣(1960,7 - 1964,11)이 수립된 이후 日本의 対中共政策은 「従前과 不変」이라는 基本戦略을 견지하면서도 「国際情勢의 推移에 따라」신중히 発展될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展開되었다. 池田内閣은 岸内閣時代에 거의 중단상태에 빠진

中共과의 交易을 再開하기 위하여 1961年 4月 11日 과거 中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했던 強制 「바타」貿易制度를 철폐하는 措置를 취하고 同月 15日 広東에서 63個社의 참여하에 商品展示会를 개최하는 積極性을 나타내게 되었다.(41)

이러한 池田内閣의 신중한 対中共接近政策에 호응하여 中共 역시 日，中共貿易再開를 위한 措置를 취하게 되었다.

周恩来首相은 日·中共貿易의 「交易3原則」과 「政治3原則」을 제시하였다. 「交易3原則」은 ⑴ 政府間 協定에 의한 貿易，⑵ 民間協定에 의한 貿易，그리고 ⑶ 個別的 配慮에 의한 貿易을 의미한다. 「政治3原則」은 ⑴ 日本政府는 対中共 敵対態度를 취해서는 안되며，⑵ 美国이 추구하고 있는 2개의 中国論을 추종하지 말아야 하며，⑶ 日，中共外交正常化 方向으로 関係発展하는 것은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42)

日本政府는 이러한 中共側 提議의 原則들을 받아 들임으로써 1962年 11月 9日 日本代表 高碕達之와 中共代表 廖承志 사이에 貿易協定이 체결되었다.(43)

本協定에 따라 1963年부터 1967年까지 향후 5年間 全体貿易量 175百萬파운드의 交易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池田内閣은 対中共輸出에 있어서 日本輸出入銀行의 융자를 허용한다는 方針을 세우고 1963年 8月 20日 2,000萬弗에 해당하는 비니론(vinylon) 工場施設의 5年 延払輸出을 承認하였다.(44)

池田内閣이 L.T.貿易協定을 지원해 준 것과 日本輸出入銀行에 의한 対中共 延払輸出을 허락한 것은 経済的 性格의 범주를 넘어 政治的 性格을 띤 것이라고 공박하여(45) 台湾.日本関係는 또다시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이 時点에서 中共의 油圧機器 視察団 通訳으로 訪日한 周鴻慶이 日本政府에 亡命한 事件이 발생하였다. 池田内閣은 中共으로부터의 圧力과 対中共貿易의 취소를 우려하여 亡命者 意思에 反하여 中共에 인도하고 말았다.(46)

이와같은 池田内閣의 一連의 措置에 대하여 台湾은 강경한 항의를 제기하고 1963年 12月 駐日大使와 4名의 高位外交官을 소환하고 말았다.(47) 뿐만 아니라 1964年 1月 11日 台湾政府는 日本商品의 政府購入까지 禁止시키는 措置를 취하였다.
이에 池田首相은 同年 2月 23日부터 27日까지 吉田 前首相을 特使로 임명하여 台湾에 파견하였다. 吉田特使는 蔣総統과 5次의 会談을 갖고 2月 27日 東京에 귀환한 후 5月 30日 池田首相의 양해하에 張群秘書長에게 「日本은 対中共輸出에 있어서 輸出入銀行등 政府資金으로 長期延払輸出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吉田書簡」을 전달했던 것이다.(48)

이로서 池田内閣에 의한 対中共貿易을 拡大시키려는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1964年 11月에 출범한 佐藤内閣(1964. 11 - 1971. 7)의 中国政策은 台湾과 外交関係를 유지하면서 中共과 政経分離原則에 따른 貿易関係의 유지라는 종래 政策의 연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佐藤内閣의 期間동안에는 中共文化大革命, 越南戰 拡大와 이에따른 美国의 아시아政策 기존 台湾-日本関係라는 세가지 요인때문에 日-中共関係가, 기존관계의 성격과 범주를 離脫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1969年 4月 中共은 9全大会를 계기로 文化大革命 期間中의 造反外交를 종식하고 外交正常化를 위한 노력과 対西方接近政策을 적극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中共承認国家가 점증되고 美国 역시 종래 対決戰略으로부터 対話와 協商戰略으로 전환하면서 1969年 末에 이르러 美·中共大使級会談의 再開에 이르게되었다.(49)

中共에 대한 美国 및 여타 西方国家들의 政策変化라는 背景 속에서 점차 佐藤内閣은 対中共政策의 変化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69年 12月 佐藤首相은 「日-中共政府間의 접촉을 추진할 用意가 있음」을 밝혔고, 愛知外相과 保利官房長官은 中共과의 大使級会談을 개최할 용의를 피력했던 것이다.(50)

그러나 1969年 11月 21日에 発表된 「닉슨-佐藤 共同声明에서 佐藤首相은 「台湾地域에서의 平和와 安全의 유지는 日本의 安全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要素」라고 표명하고 동시에 「韓国의 安全은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51) 고 천명하게 되자, 中共은 이를 가르켜 「美日反動派의 罪悪的 陰謀」라과 비난하고,(52) 中共의 対日本態度는 급속히 硬化되기 시작하였다. 1970年 4月 日本·中共間의 覚書貿易協定 調印後 다른 西方国家에 적용되지 않는 差別적인 「周4原則」이 公表되었다. 즉 中共은 ①韓国 및 台湾과 交易하는 日本商社, ②台湾과 韓国으로부터 物品을 輸入하는 商社, ③越南에

戰爭物資를 공급하는 商社, 그리고 ④美·日合作会社나 日本에 있는 美国의 子会社와는 交易을 中断한다는 中共側 一方的인 措処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中共의 強硬政策에도 불구하고 佐藤内閣의 対中共政策은 慎重과 現状維持를 견지하였다. 1971年 佐藤首相은 中国問題에 대한 施政演説에서 비록 中共을 처음으로 中華人民共和国으로 呼称하였지만 台湾과의 関係에 있어서 国際信義를 尊重하고, 中国問題에 대한 기존政策을 変更하지 않을 것과, 中共과의 関係発展에 있어서 慎重을 기한다는 基本立場을 밝혔던 것이다.(53)

1970年代에 이르러 蘇聯勢力의 膨脹을 견제하기 위한 美国의 対中共 関係改善 및 協力戦略은 바로 1972年 9月 田中内閣에 의한 日,中共外交正常化를 可能하게 했고 福田内閣에 의한 오늘의 日,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을 결과하게 하였던 것이다.

2. 日,中共外交正常化

닉슨行政府의 새로운 中国政策이 구체화되었던 1971年에 日·中共外交正常化를 위한 原則들이 表面化되기 시작하였다. 中共은 ① 中国은 하나의 中国밖에 없으며 中共政府가 中国人民을 代表하는 唯一한 정부이며, ② 台湾은 中国領土의 不可分的 一部分이고, ③ 日·中華民国平和条約은 폐기되어야 하며, ④ 台湾과 台湾海狹으로부터 全美軍은 撤収되어야하며, ⑤ 유엔機構内에서 中共의 適法的인 権利는 부활되어야 하고 中華民国은 축출되어야 한다는 日·中共国交正常化 5大原則을 제시하였다.(54) 그러나 1971年 10月

유엔에서 中国代表権問題가 해결되고 台湾 및 台湾海狭으로부터의 美軍撤収는 日本主権領域 밖의 問題로 中共側이 자진 撤回함으로써 修交3原則으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1971年 10月 25日 유엔総会가 「中共招請 台湾追放」決議案을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 결석 3으로 可決하게되자 日本은 中共承認의 方向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하였다.

自民党内의 革新勢力을 포함하여 日本共産党 左派를 포함한 全野党이 留保없이 中共側 提案의 条文3原則을 지지하고 있으나, 自民党의 保守派로 이루어지는 主流勢力은 条文3原則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그 主要 理由는 台湾과 맺은 平和条約 폐기문제이었다. 自民党 主流가 우려하는 점은, 첫째 軍事的으로 台湾과의 1960年의 美·日安保条約과 1969年 「닉슨-佐藤 共同声明」에서 再確認된 「台湾地域에서의 平和와 安保의 維持는 日本의 安保에 가장 중요한 要因이다」라고 천명한 東아시아에서의 美·日安保体制에 위협을 준다고 본 것이다.(55) 둘째, 外交的으로 台湾에 있는 3,000名의 日本 거류민과 352개 日本商社에 대한 法的 保護를 박탈당하는 경우를 우려하고,56 세째, 経済的으로 1971年度 10억弗을 상회하는 貿易과 이로부터 연유하는 5억弗의 輸出超過利潤을 포기하는 결과를 우려했던 것이다.(57) 동시에 台湾에 投資된 外国投資 総額中 19%를 점유하는 6,800萬弗의 投資額에 대한 희생을 우려했던 것이다.(58) 네째, 만일 日本이 台湾과 締結한 平和条約에 대여 不法的인 해석을 내리게 되

는 경우 日本은 中共과의 戰爭状態의 종식과 関係正常化를 위하여 다시 새로운 平和条約을 締結해야 한다는 立場에 처하게 되는 문제이었다. 이런 경우 500억弗에 상당하는 戰爭賠償問題가 中共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었던 것이다. 1951年 中共의 最高人民裁判所 所長은 戰爭賠償額으로 500억弗을 산출한 바 있었던 것이다.(59) 1971年 10月 北京을 방문하고 돌아온 前日本外相은 中共이 日本으로부터 戰爭賠償額을 요구할 의도가 없는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日本政府는 그러한 中共政府側의 의도를 定式으로 통고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다섯째, 日本의 中国政策은 아직도 美国의 極東政策의 범주에서 이탈할 수 없는 状況이었기 때문에 美国政府의 中国問題에 대한 政策的 意図를 분명히 把握하기 前에 日本의 既存 中国政策, 즉 「두개의 中国」立場을 変化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1972年 2月에 発表된 美, 中共上海共同声明은 日本이 中共에 대한 外交承認政策으로 급전환시킨 主原因이 되었다. 同年 7月에 출범한 田中内閣은 中共承認原則을 밝히고(60) 日, 中共 双方이 実際 正常化 作業에 積極性을 띠게 됨으로써 同年 9月 田中首相의 北京訪問이 이루어지고 日, 中共共同声明이 調印 発表되었던 것이다. 本共同声明 本文은 9個項으로서 ① 両国間에 存在해온 非正常状態는 共同声明이 発表되는 날로부터 종료되며, ② 日本은 中共을 中国의 唯一合法政府로 承認하고, ③ 日本政府는 台湾이 中国의 不可分의 一部라는 中共側 立場을 이해하고 尊重하며, 포츠담宣言 제8항

에 바탕을 둔 立場을 견지하고. ④ 両国間에 外交関係를 수립하고 大使를 교환하며, ⑤ 中共은 戰爭賠償請求를 포기하며, ⑥平和5原則과 유엔憲章原則에 따른 항구 平和友好関係의 確立에 合意하고, ⑦ 両国은 어느 쪽도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覇権을 추구하지 않으며 第3国 혹은 第3国家群에 의한 覇権樹立도 반대하며, ⑧ 平和友好条約을 締結할 것에 合意하고, ⑨ 貿易, 海運, 航空, 漁業의 諸協定 交渉에 合意했다고 밝혔던 것이다.(61)

共同声明 調印 직후에 가진 記者会見에서 大平外相은 1952年에 台湾과 맺은 平和条約은 폐기되었음을 宣言하고 동시에 台北에 있는 日本大使館의 폐쇄를 発表했던 것이다.(62)

3. 日·中共平和条約 交渉

日·中共共同声明 第8次에 両国間의 友好増進을 위하여 平和友好条約을 締結할 것을 合意한 바 있다. 그러나 共同声明 発表後 日·中共関係 発展에 있어서 平和友好条約의 締結問題는 시급을 要하는 問題가 아니었고, 오히려 貿易, 海運, 航空 및 漁業 등에 関한 双務間의 行政協定 締結問題가 더욱 절박했던 것이다. 이러한 行政協定들이 1974年 가을까지 모두 締結된 뒤에 이르러 日·中共政府는 平和友好条約 締結交渉을 개시할 것에 동의하게 되었고 同年 11月 東京에서 첫번째 協商이 개시되었다.(63)

첫번째 交渉은 1974年 11月 13일 韓念龍 中共副外相이 海運協定을 調印하러 日本을 訪問한 期間에 가진 木村外相과 東郷外務次

官과의 会談에서 시작되었다(64) 이 会談에서 韓念龍은 平和友好条約은 1972年의 共同声明에 기초하여 成文되어야 하며 尖閣列島와 같은 領土紛争問題는 本 条約協商過程에서 除外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5) 韓副外相과 東卿外務次官과의 3次에 걸친 会談에서 両国은 平和友好条約 締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과 금후에는 通常外交経路를 통해 交涉을 진행시켜 条約文書를 작성할 것을 確認했던 것이다.

1974年 12月 田中内閣이 급작히 퇴진하고 三木内閣(1974-1976.12)이 들어서자 平和友好条約 締結展望은 불투명해 졌다. 그 理由는 三木内閣에는 福田副首相과 같은 親台湾派의 指導級 保守派 人士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2年 日・中共関係正常化過程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三木首相은 1974年 12月 15日 그의 首相 就任演説에서 中共과의 平和友好条約을 早期에 締結한 의도를 밝히고,(66) 1975年 1月 中旬에 中共側 招請으로 北京을 訪問하는 Shigem Hori 편에 이와같은 의도를 周首相에게 전달했다. 東京에 귀임한 Hori는 本 条約의 早期 締結에 낙관적인 立場을 취했다.(67) 같은 時期에 中共側으로부터의 反応도 낙관적이었다. 1975年 1月 17日 周首相은 3個月 이내에 本 条約이 締結될 수 있을 것으로 豫言한 바 있다.(68)

이러한 楽觀論 속에서 本 条約 締結을 위한 第2次 交涉은 1975年 1月 16日 東卿外務次官과 陳楚駐日本 中共大使間에 이루어

졌다. 이 会談에서 東卿次官은 本条約의 文書内容을 1972年의 日·中共共同声明 第6項에 명시된 平和共存5原則으로 하는 간략한 文書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反하여 陳大使는 1972年 共同声明의 全項目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第7項의 反覇権条項의 포함을 주장하였다.(69)

平和友好条約 締結을 위한 交渉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自民党内의 親台湾勢力들이 이를 저지하는 運動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75年 1月27日 이들은 三木首相에게 日本은 이미 1952年 4月28日에 台湾政府와 「平和条約」을 締結한 바 있기 때문에 日·中共間의 条約締結에 있어서 조양명칭으로부터 「平和」両字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70) 이에 대하여 三木首相은 日·中共間의 예정된 条約名称은 이미 日本議会의 両院에서 비준된 1972年 共同声明의 一部分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가 不可能하다고 이를 거부하였다.(71) 그러나 自民党内의 親台湾派들은 「反覇権条項」을 이유로 本条約의 締結을 反対하기 시작하였다.

中共은 1975年 2月14日에 개최된 東卿次官과 陳大使会談에서 日·中共平和友好条約에 1972年 共同声明 第7項의 反覇権条項을 포함시킬 것을 正式으로 제의하였다. 中共代表는 1972年 共同声明内容中 反覇権条項이 가장 중요한 条項이기 때문에 本条約에 기필코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72) 이로써 日·中共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에 있어서 反覇権条項이 가장 결정적인 争点으

로 부각되게 되었다.

中共이 이같이 反覇權条項의 삽입문제에 있어서 非妥協的 立場을 취하는데는 分明한 理由가 있다. 즉 中共이 1975年 1月에 개최된 第4次 人民代表者大会에서 새로운 中共 憲法에 反覇權主義를 채택한 以後 이는 1970年 中共外交政策의 基調가 되어 오고있는 것이다. 反覇權이란 美·蘇가 그들의 意思를 全世界에 강요하는 것을 反対한다는 뜻이다. 즉 中共은 美·蘇가 世界政治를 전단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実際 反覇權에 있어서의 対象国家는 蘇聯으로서, 蘇聯이 아시아集団安保体制로서 中共을 포위하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 反覇權主義가 의도하는 바다.(74)

平和友好条約 締結交渉은 1975年 5月16日 三木首相의 協商4原則의 発表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즉 三木首相은 平和友好条約의 早期締結 의도를 再確認하고 反覇權条項을 포함한 1972年 共同声明의 原則들이 尊重되어야 함을 밝혔던 것이다.(75) 동시에 三木首相은 오가와大使를 통하여 中共에게 反覇權主義를 条約 本文이 아닌 前文에 삽입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中共側은 계속적으로 条約 本文에 삽입할 것을 고집하였다.(76)

三木内閣은 결국 平和友好条約의 締結방법은 反覇權主義에 대한 中共側 제의를 받아 들이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協商戰略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戰略이란 反覇權条項을 条約 本文에 삽입하는 것으로서 中共이 反覇權原則에 대한 日本側 해석을 받아 들인다는 조건이다. 日本側 해석이란 反覇權主義는

一般的 平和原則으로서 어느 特定国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原則이라는 것이다. 三木首相은 이러한 새로운 立場을 1975年 6月 21日 이데官房長을 통해 「이데備忘録」 형식으로 発表하였다.⑺ 이러한 새로운 日本側 提案은 蘇聯에 대한 자극을 피하면서 本 条約을 締結시키려는 戦略으로 해석된다.⑱

이러한 새로운 戦略에 입각해서 日本政府는 보다 적극적인 立場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1975年 9月 7日 宮沢外相은 新聞記者会見을 통하여 第29次 유엔総会 開会時에 뉴욕에서 日・中共外相会談 開催를 제의한 사실과 동시에 이에 대한 中共側의 동의를 発表하였다.⑲

1975年 9月 24日 開催된 日，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을 위한 최초의 外相会談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外相은 反覇権主義에 대한 日本側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고 反覇権主義는 中国外交政策基調로서 이에 대한 변형된 의미로서 条約에 포함되는 경우 아무런 쓸모없는 条約이 되고 말 것임을 강조하고，中共側 主張의 反覇権条項의 포함없는 日・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보다 현존하는 1972年 共同声明을 견지하려는 것이 中共側 입장임을 밝힘으로써 協商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⑳

1976年 1月 8日 周恩来의 死亡과 同年 9月 9日 毛沢東의 死亡에 이어 새로운 華国鋒体制의 成立過程에서 경험하게 된 中共内部의 権力闘争과 1976年 2月부터 本格的으로 터지기 시작한 日本

의 록히드事件 규명에 따른 日本国内政治 危機 그리고 후속된 政權交替 속에서 日·中共間의 条約交渉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77年에 접어 들면서 日本国内政治와 中共国内政治의 安定은 日·中共間의 最大 현안문제인 平和友好条約 締結交渉問題가 다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日·中共関係의 새로운 접근 시도는 또한 日·蘇関係의 悪化에 자극을 받은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蘇聯은 北方領土問題에 대하여 계속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고 특히 蘇聯의 미그機 망명사건의 처리를 위요하여 日·蘇関係는 蘇聯이 2백해리 専管水域을 선포하고 対日漁業協定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자 더욱 日本의 반발을 유발하게 되었으며(81) 蘇聯 海軍力의 日本 近海 進出은 日本을 크게 자극하였다.

福田首相은 1977年 5月 中共을 방문한 山本社会党 中央執行副委員長편에 日本側이 中共側 主張대로 反覇權条項의 삽입을 수락할 의도가 있음을 日·中共友好協商 中共側 議長인 廖承志에게 통고하였다.(82) 또한 福田首相은 北京을 訪問하는 保利衆議院 議長을 통하여 条約締結 交渉의 신속한 再開意思를 전달할 뜻을 밝혔던 것이다.(83)

1977年 여름부터 福田首相은 自民党内의 条約反対 내지 慎重論者들에 대한 무마노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慎重論者들이 내세우는 우려중의 하나는 日本이 中共側에 偏向한다는 인상을 蘇聯에 준다는 점이며 또다른 우려는 毛 死亡後 中·蘇紛争이 점차 改善되는 경우 1950年 2月에 締結된 中·蘇友好同盟相互援助条

約內의 反日戰線의 형성이 또다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中共과 蘇聯이 中·蘇友好同盟相互援助条約을 경신할 것이냐 혹은 파기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1980年까지 日本은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을 맺지 말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84]

福田首相의 제1측근으로 알려진 園田直官房長官은 1977年 가을에 이르러 条約에 가장강력히 反対하고 있는 党內 保守派, 親台湾派, 및 慎重派들에 대한 설득 활동을 전개하고, 慎重派의 지도자인 岸前首相을 台湾에 파송하여 蔣経国 行政院長에게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이 締結된다 해도 台湾과의 関係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本 条約 締結이 가까운 장래에 不可避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85]

동시에 하또야마(鳩山威一郎) 外相은 1977年 11月 11日 日本은 中共과의 平和友好条約 締結時에 中·蘇友好同盟相互援助条約으로부터 日本의 帝国主義 復活에 반대하고 日本 또는 그 盟邦으로부터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侵略에 대항해서 서로 協力할 것을 다짐한 이른바 反日条項의 삭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86] 鳩山外相은 또한 1977年 9月 日本議員使節団을 맞는 자리에서 등소평副首相이 오는 1980年에 만료될 中·蘇同盟条約이 사실상 死文化되었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近来 냉각되어온 中·蘇関係를 감안해서 이같은 反日条項의 폐기를 中共側에 요구할 것을 밝혔던 것이다.[87]

福田内閣 취임이래 또하나의 重要問題는 経済問題였다. 美国과 欧洲共同市場의 保護主義 政策에 의하여 日本의 対外輸出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美貨의 価値暴落은 日本 円貨의 상대적 評価切上을 초래하여 対外 競争力의 심각한 弱化를 초래했던 것이다. 福田内閣은 日本 経済의 不況과 1978年度의 7% 経済成長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0억달러의 추가 海外需要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経済的 必要에서 1978年 2月 16日 北京에서 日本実業代表인 日·中共経済協会長 이나야마 요시히로(稲山嘉寛)와 中共政府間에 締結된 것이 日·中共貿易協定인 것이다. 本協定에 의해 両側은 中共의 第6次 5個年経済計劃이 끝나는 1985年까지 향후 8年間 2백억 달라의 交易을 약정한 것이다.[88] 中共은 日本으로부터 1백억弗 상당의 플랜트를 도입하고 日本은 이에 상당하는 原油와 石炭을 中共으로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섬유, 식품, 화학비료 및 기계류등 本協定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예상거래액까지 합치면 8년간의 両国貿易高는 약 400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89].

福田首相이 지난 内閣改編에서 園田를 新任 外相에 임명하면서 日·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交渉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園田外相은 1978年 3月 6日 衆議院에서 日·中共平和友好条約 協商을 再開시키려는 예비접촉이 사실상 완결 됐음을 증언하고, 2次에 걸친 韓念龍副外相과 佐藤正二駐北京 日本大使会談에서 条約文案中 反覇権

条項 삽입문제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 졌다고 증언하였다.[90]

福田首相은 1978年 3月 10日 北京을 訪問하는 公明党使節団을 통해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의 早期締結을 희망하는 親書를 전달하였다[91] 公明党使節団이 등소평과 가진 会談에서 은 本条約交渉을 위하여 園田外相의 北京訪問을 환영하었고, 廖承志 日·中共友好協議長은 (1) 中共은 日本과 平和友好条約締結을 시속 원하고 있으며, (2) 本条約은 第3国을 対抗하기 위한 条約이 아니며, 또한 日本과 中共은 覇権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며 동시에 第3国에 의한 覇権追求도 反対할 것이며, (3) 反覇権主義를 채택하는 것이 日·中共共同行動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며, 日本과 中共은 相互 内政不干渉을 추구할 것이며, (4) 福田首相의 早期締結 決心을 촉구하고 소노다外相의 北京訪問을 환영한다고 언급하였다.[92]

이러한 中共側의 反応을 배경으로 福田首相은 日·中共平和友好条約 早期締結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3月 23日 大平自民党 간사장에게 그의 의도를 전하고 日·中共交渉의 마지막 손질을 위해 園田外相을 4月中에 北京에 파견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93 동시에 27日에 있었던 與党 및 野党指導者들과의 一連의 会談에서 福田首相은 (1) 条約締結原則은 1972年 日·中共共同声明에 입각하며, (2) 日本政府는 日·中共関係를 위요한 情勢를 종합분석한 결과 協商再開가 최선의 방침임을 결정하였고, (3) 日·中共条約 締結은 日本이 中共에 外交的 발판을 굳히는데 중요하며, (4) 日, 中共条約은 아시아의 平和와 安全에 기여할 것이며, (5) 日本政府는 모

든 나라와 友好関係 維持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94)

이러한 福田首相의 적극적인 태도에 호응하여 3月26日 등소평 副首相은 北京訪問中인 日本 社会党使節団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만일 福田首相이 日·中共 平和友好条約을 締結하기로 결정하여 日本에서 調印式을 갖게 된다면 華国鋒主席아니면 自身이 직접 東京을 訪問하여 平和友好条約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95)

이와같은 福田首相과 등副首相들의 고무적인 態度表明으로서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의 締結을 위한 協商이 박두한 것으로 認識되어진 4月12日 100여척의 中共 漁船団이 日·中共領有権 紛争地域인 센가꾸(尖閣) 列島(96) 주변의 日本의 領海를 침범하는 事態가 発生하여, 協商再開를 서둘러온 日·中共間에 새로운 外交紛争을 야기하였다.(97)

中共漁船団에 의한 센가꾸列島 주변 日本領海를 침범한 事実은 日·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協商에 난관을 부여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日本政府가 本 条約締結에 결단력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일종의 協商圧力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日本側 항의에도 잔류하고 있던 中共漁船들이 4月16日 一方的으로 이 地域으로부터 撤収한 사실과 北京으로부터 中共政府의 관여없는 우발적 사고라는 公式解明이 있었고, 中共政府는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의 早期締結을 계속 희망하고 있다고 발표한 사실이다.(98)

이로써 日·中共平和友好条約 早期締結 可能性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드디어 日, 中共은 4年에 걸친 協商을 거쳐 1978年 8月 12日 平和友好条約에 調印하게 되었다. 本 条約은 前文과 本文 5個項으로 되어 있으며 第2項에 「条約 当事国은 그 어느나라도 아시아 太平洋地域과 그 밖의 世界의 다른 地域에서 覇権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反覇権에 관련된 第3国条項은 第4項에 「이 条約은 当事国関係 및 第3国에 대한 関係에 있어 그 어느 나라의 独立的인 立場에도 損傷을 주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는데 合意하게 된 것이다.

4. 交渉遅延 및 促進要因

오늘에 이르기까지 日, 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을 지연시킨 가장 核心的 争点은 反覇権条項으로서 그동안 中共側 要求대로 本 条項이 日本側에 받아 들여지기가 어려웠던 몇가지 理由가 있어 왔다.

첫째, 自民党内 三木首相의 勢力은 약했기 때문에 親台湾 保守派 議員들의 견제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福田首相 역시 自民党内 大平 및 田中등 적극론과 아시아研究会 및 青嵐会 등 慎重論의 対立 속에서 平和条約 早期締結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다.

둘째, 三木内閣과 福田内閣은 反覇権条項에 대한 分裂된 輿論에 의하여 制約을 받아왔다. 自民党内뿐만 아니라 野党内에서도 対立이 있어왔다. 日本 共産党은 反覇権条項을 反対해 왔으며, 社民党

은 단지 反覇権条項의 前部分만의 포함을 찬성했고, 社会党은 무조건 中共立場을 지지했던 것이다. 동시에 輿論에 지대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 毎日, 朝日 및 読売新聞등은 慎重을 기할 것과 中·蘇紛争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경고해 왔던 것이다.

세째, 蘇聯이 反覇権条項을 반대한 사실이다. 蘇聯은 日·中共平和条約보다 日·蘇条約 締結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무엇보다 日本이 反覇権条項을 수락하는 것은 中共의 対蘇政策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항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蘇聯의 反対는 분명히 日本의 条約反対勢力의 기반을 강화해 주었던 것이다.

네째, 反覇権条項의 포함에 대한 中共의 완강한 고집이었다. 中共으로서 反覇権主義는 9全大会以後 中共外交政策의 基調가 되어 있으며 이미 1972年 共同声明에 포함되었던 内容이라고 주장해 왔다. 蘇聯이 中共包囲 目的으로 아시아 集団安保体制를 추진하고 있는 이상 中共으로서 反覇権主義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中共의 완강한 態度는 協商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日·中共間 平和友好条約 締結의 절박성의 不在인 것이다. 1972년 共同声明에 근거하여 1974年까지 貿易, 航空, 航海 및 漁業協定을 맺은 후 日·中共間의 많은 実質的인 問題를 처리할 수 있었고 日·中共関係를 확대 발전시켜 오는데 별 커다란 지장이 없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日·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을 촉진시킨 要因도 지속적으로

작용해 결국 本条約의 締結을 보게 된 것이다.

첫째, 軍事安保的 次元에서 볼때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이 체결되면 東아시아의 国際体制는 美, 日·中共을 一方으로 하여 蘇聯은 다른 一方으로 하는 3対1의 対立으로 再編됨을 의미한다. 日本이나 中共은 日, 中共平和友好条約이 反蘇統一戦線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表面上으로 解明하고 있으나 実質的 次元에서 蘇聯의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의 勢力膨脹을 저지하는데 기여할 것은 명백한 일이다. 1978年 1月 26日 園田外相이 自民党 政策調整委에서 日·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은 「美国의 全般的인 世界戦略의 一環」이라고 언급한 것과, 1978年 3月 23日 등소평은 蘇聯勢力 膨脹에 대항하기 위하여 中共은 西洋에서는 美国 및 西欧諸国과 協力해야 하고 東洋에서는 日本과 協力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을 美日·中共의 反蘇戦略의 基調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둘째, 経済的 側面에서 볼때, 中共은 현재 経済発展과 近代化를 추진함에 있어 西方工業先進国家와 日本으로부터 플랜트輸入과 건설자재, 기술 및 자본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日本 역시 中共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工産品 輸出이나 資源保有国으로부터의 資源輸入의 길이 협착해 짐에 따라 中共에 대한 工産品 輸出과 中共으로부터의 原油 및 기타 資源輸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세째, 日本国内 政治的 次元에서 福田首相의 政治的 野心은 本条約 締結을 촉진시킨 重要한 要因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自民党 党首競争에 있어서 福田은 大平을 꺾기 위하여 大平의 対中共적극정책을 자신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条約締結을 成功시켜 大平을 승월하고 동시에 자신의 外交的 成功을 이룩하려했던 것이다. 福田은 자신의 首相再選의 최적 시기를 금년 12月로 보고 이를 可能하게 하기 위하여는 금년 가을에 衆議員選挙를 실시해야 하며, 앞당겨 総選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衆議院을 早期解散해야 하고, 衆議院 解散은 현재 衆議院이 休会中이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衆議院을 소집해야 하고, 衆議院을 늦어도 9月中에 소집하기 위하여 그 소집명목으로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의 批准을 내세우려 한 것이다. 이러한 政治時間表는 8月中으로의 平和友好条約 締結을의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日, 中共平和友好条約이 締結될 때까지 작용했던 促進要因과 遅延要因들은 条約締結 이후에도 日·中共関係 発展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며 両国間 関係의 内容과 水準을 결정해 줄 것으로 본다.

第四章 臺灣問題의 解決方式

1. 日本方式

中共은 日本의 佐藤內閣에게 中·日国交正常化 原則으로서 修交三原則을 提示하였다. 즉 中華人民共和国 政府가 中国의 唯一合法政府이며 台湾은 中国領土의 不可分의 部分이며 日本·台湾平和条約은 無効이며 페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原則이다.

그러나 中共은 佐藤政權이 물러나고 田中內閣이 수립되자 종래 취해 온 強硬態度를 대폭 완화하고 修交三原則 이행을 강요하지 않았다. 結局 中·日国交正常化 협상에서 修交三原則은 확인되었으나 周·田中共同声明은 日本·台湾平和条約의 페기문제에 대하여 言及하지 않았다. 결국 일본이 中共側 主張의 修交三原則을 받아들인 것은 北京의 強要라기보다 東京의 「進上」이라는 인상이 짙었다고 볼 수 있다.

周·田中共同声明 第3項에서 日本은 領土的 帰属에 관한 中共側 立場을 다만 「理解하고 尊重한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완전히 「受諾한다는 立場과 다소거리가 있는 表現으로서 台湾에 관한 日本側의 조심스러운 배려를 살필 수 있다. 동시에 이 問題에 대한 中共側의 大凡한 신축성 역시 엿볼 수 있다고 본다.

周·田中共同声明 第4項에 따라 東京 — 北京間 大使交換이 이루어지고, 東京 — 台北間의 外交関係는 형식상 소멸되고, 日本·

台湾平和条約은 오히라外相의 一方的 無効宣言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日本과 台湾과의 実質的 関係는 日·中共外交政常化 이후에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된 것으로 台北는 旧駐日大使舘을 대신하는 「東亜細亜関係協会」를, 그리고 日本은 旧駐台北大使舘을 대신하는 「日本交流協会」를 둠으로써 実質的인 領事業務를 담당해오고 있다.

2. 맨스필드方式과 잭슨方式

先例로서의 日本方式이외의 美·中共外交正常化 方案으로 두가지가 표현화되어 왔다. 하나는 「맨스필드 方式」이며 또 하나는 「잭슨 方式」이다.

맨스필드는 그가 美上院 民主党院内総務로 在職時 美国의 対中共 및 対台湾政策은 両立될 수 없으며 2個의 中国政策은 美国国家利益과 太平洋地域의 安全에 배치된다고 主張하면서 美·中共外交正常化 方案으로 유사한 類型을 주장해 왔다.(100) 즉 美国은 台湾과의 外交関係를 단절하고 美 台湾相互防衛条約을 폐기하면서 駐台湾美軍의 全面撤収와 더불어 中共과의 国交樹立을 해야 한다는 方式이다. 맨스필드 議員은 1976年 9月21日부터 10月12日까지 3주간에 걸친 中共訪問結果에 대해 上院外交委員会에 제출한 報告書에서 美国의 계속적인 中華民国承認政策과 軍援 및 合同軍事訓練등 防衛公約이 美·中共関係正常化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라고

지적하고 있다. 中共側은 美国의 対自由中国 防衛公約 지속은 中国內戰에 계속적으로 干与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中共側은 美·中共外交正常化를 위하여 美国이 台湾과의 外交関係를 청산하고 相互防衛公約을 폐기하며 台湾에 잔류하고 있는 2천여의 美軍을 撤収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01]

맨스필드 및 휴·스코트上院議員은 그들의 1976年 中共訪問 報告書에서 美国 — 台湾間의 相互防衛条約을 폐기한다고 하여도 台湾과 中国本土間의 平和는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中共이 台湾을 武力으로 해방시키고자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理由로 (1) 世界輿論의 悪化, (2) 台湾軍事力을 감안할 때 막대한 軍事的 희생의 不可避, (3) 日本再武装을 유발시킬 可能性, 그리고 (4) 美, 中共間協調体制의 붕괴를 들고 있다.[102]

그러나 「맨스필드方式」이 채택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日·中共修交時에 中共이 台湾問題에 상당히 現実的인 신축성을 보여주었음을 감안할 때 実質的으로 美·台湾関係는 단절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상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代案으로서의 「잭슨方式」은 北京에 大使舘을, 그리고 台北에 連絡事務所를 두도록 하는 現状態의 역전으로서 美国이 台湾과의 기존 防衛条約関係를 근본적으로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비교적 온건한 方式이다.[103]

中共은 美国과의 修交原則으로 美·台湾과의 外交関係断切, 美·

台湾防衛条約폐기, 그리고 駐台湾美軍撤収를 주장해 왔으나 카터行政府의 탄생을 전후하여 계속 워싱턴을 向해 国交正常化 추진을 위위한 協商意図의 신호를 非政府 水準에서 보내고 있다.

1977年 1月 20日 中共의 亜阿団結協会副会長 張香山이 北京을 訪問중인 日本公明党 党首 竹入義勝에게 「美国이 소련팽창주의에 대항하여 中共과 協力한다면 中共은 台湾問題를 해결함에 있어 美国의 立場을 존중하겠음」을 시사하고 日本方式을 채택하여 美·中共外交正常化를 종용한 바 있다.(104)

앞으로 채택가능성이 높은 美·中共修交方式은 이상 세가지 方式가운데 美国内 保守与論, 反蘇関係에서 야기될 問題点, 台湾의 미묘한 向背, 日本의 견제, 그리고 最近 張香山의 発言 등을 감안할 때 美国과 台湾과의 기존관계를 완전히 희생시키는 方式으로 美·中共国交正常化를 추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잭슨方式의 해결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며 또는 日本方式, 맨스필드方式, 잭슨方式이 배합된 方式이 될수도 있다고 본다. 어떠한 修交方式이건간에 台湾의 安全은 保障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第五章 韓半島 周邊情勢에 미치는 影響

1. 美·中共国交正常化가 韓半島 周辺情勢에 미치는 影響

美·中共国交正常化가 이루어지게 되는경우 美·中共間의 人的 交流 增大가 이루어지는 반면 中共은 美国으로부터 輸出入銀行借款 및 最恵国대우에 힘입어 対美輸出量의 급격한 증대를 볼 것이며 기타 経済協力의 增大現状을 초래할 것이다.

中共의 対蘇戦略的 位置는 강화될 것이며. 이로써 中蘇国境의 安定化에도 기여할것이며 東北亜와 東南亜地域安定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美国과 台湾과의 関係는 美·中共外交正常化의 方式에 의하여 결정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外交関係는 단절될 것이나 経済文化関係는 지속되면서 民間主導의 準外交関係로의 발전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駐台湾美軍의 撤收는 이행될 것이나 台湾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대한 美国의 公約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될 것으로 본다. 台湾의 外交的 弧立은 가중될 것으로 보며 台湾의 対蘇接近可能性은 하나의 現実問題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美·中共外交正常化 이후에도 台湾의 安全을 위한 美国의 公約이 確信될 때 台湾의 蘇聯接近은 制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美·中共外交正常化가 이룩되면 기존 美日軍事同盟関係의 변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日本의 外交 및 軍事面에서의 自主度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며, 日本은 台湾의 対蘇接近 可能性과 蘇聯의 해상으로부터의 威脅에 관심을 증대하면서 自体 軍事力 增加에 힘쓸 가능성이 높다.

中共・日本関係에 있어서 中・日競争은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센가꾸列島와 대륙붕문제를 둘러싼 中日紛争 가능성은 높으며 韓半島와 東南亜細亜에서 中日의 경쟁 역시 증대될 것으로 본다. 美・中共国交正常化가 韓半島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北京 - 平壤関係의 근본적 변화는 없겠으나 다소 냉각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평양 - 모스크바関係가 보다 접근될 가능성이 높다.

韓半島 平和安保 유지에 있어서 中共이 좀더 美国에 협조적일 수 있으며 日本의 対韓国接近誘因이 증대될 것으로 본다.

対美輸出에 있어서 韓国과 中共과의 경쟁은 치열화될 가능성은 높으며 中共의 분쟁도서 및 대륙붕문제에 대한 態度가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륙붕개발을 둘러싸고 韓国 - 日本 - 中共間의 분쟁가능성은 증대될 것으로 본다.

台湾에 의한 対蘇接近이 시도되는 경우 이것이 韓・蘇関係의 전망에 주는 영향은 미묘할 것으로 본다.

美・中共国交正常化 과정에서 美・中共間에 韓半島問題가 협의될 것이냐 혹은 国交正常化가 이루어진 후에 韓半島問題가 협의될 것이냐 하는 問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美・中共接近을 방해하기 위한 蘇聯側음모와 美・中共国交正常化

이후 이룩될 韓半島 現狀維持 및 固定化 可能性을 타파하기 위한 北韓側 음모로 감행될 수 있는 北韓의 対南武力侵略 가능성은 계속 경계되어야 할 것이다.

美·中共外交正常化가 이루어지는 경우 韓国과 台湾과의 기존 外交関係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느냐는 韓国外交가 당면하게 될 중요한 課題가 될 것이다.

現在의 韓国·台湾外交関係를 지속해야 할 것이냐 혹은 変化시켜 조정해야 할것이냐. 조정한다면 어떠한 方式과 内容이 될 것인가 하는 問題들은 政策担当者 뿐만 아니라 学界의 관심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 당면 연구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이 韓半島 周辺情勢에 미치는 영향

日·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이후 日·中共関係의 発展이 韓半島 周辺情勢에 미치는 安保 및 経済側面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은 美·中共外交正常化를 促進시킬 것이다.

둘째 日·中共平和友好条約은 韓半島 安定에 보다 肯定的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日本은 본래 韓半島의 現状安定을 바라고 있으며, 中共 역시 표면상으로 北韓을 지지하고 있으나 実質的으로 現状安定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評価되고 있기 때문이다.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四個国当事者会談을 위한 協商背景의

肯定的 성숙으로 볼 수도 있다.

셋째 向後 北京과 平壤間의 근본적 変化는 없겠으나 평양과 모스크바관계가 보다 接近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즉 소련으로부터의 北韓에 대한 軍事 및 経済支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東아시아 国際体制의 再調整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소련이나 北韓이 이러한 国際体制 再調整의 進展을 저해하기 위하여 韓半島에서의 緊張造成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렇기 때문에 日・中共平和友好条約 締結 이후의 東北亜 安定을 위하여 日本의 南北韓 等距離外交가 더욱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日本 - 北韓間의 経済協力과 人的交流가 증대될 것이며 점차 政府水準의 접촉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戦略的 思考의 性向은 앞으로 美・中共外交正常化 과정에서도 同質的으로 나타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中共은 韓・日大陸棚開発 특히 第7鉱区 開発에 대하여 더욱 강경히 제동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韓・日経済協力을 위하여 日・中経済協力을 희생하는 것보다 이의 逆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日本의 大陸棚開発動機는 中共으로부터의 원유수입증대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섯째 日・中共経済協力은 더욱 拡大될 것이며 이는 점차 中共의 輸出能力을 向上시킬 것으로 본다. 이로써 軽工業 및 労動集約的 輸出商品에 대한 中共과의 輸出競争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

나 中共은 現在 지속적인 国内需要의 증가로 수출여력이 없으며 労動者들의 賃金引上으로 国内需要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본다.

軍備에 대한 資源의 우선 배정으로 輸出商品의 急増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며 낮은 労動生産性, 製品의 質的 統制의 貧困 그리고 管理経営의 미숙으로 輸出先의 기호에 맞는 輸出商品의 開発에 한계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中共은 向後 数年間 韓国의 심각한 수출경쟁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보겠으나 이상의 制約要因을 극복하게 될 10여년 후의 中共은 韓国의 심각한 輸出競争国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長期的 対応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Richard M. Nixon, "Asia After Vietnam," Foreign Affairs, (Oct. 1967), pp. 111-125.

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194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p. 565-66.

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of Berlin (The Potsdam Conference) 1945, 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0, p. 1474 (Soviet Union), pp. 1555-56 (France).

4) Majorie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I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4, pp. 487-88.

5) Time, Jan. 9, 1950, pp. 9-10.

6)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XXII, 551 (Jan. 23, 1950), p. 116.

7) Mao Tse-Tung's Address at the 8th Meeting of Central People's Government, June 28, 1950. Cited from Hungdah Chiu (ed.), China and the Question of Taiwan, N.Y.: Praeger, 1973, p. 230.

8) China Handbook 1951, Taipei: China Publishing. Co., 1951, p. 494.

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d.), Treaties Between the Republic of China and Foreign States 1927-1961 (Rev. ed.), Taipei: The Commercial Press, Ltd., 1963, pp. 794-98.

10) 同 条約은 1954年12月2日 워싱톤에서 締結되고 1955年 2月9日 美上院의 비준을 받아 同年 3月3日 台北에서 批准書交換이 이루어짐으로써 効力을 발생하였다.

11) 美·中共 제네바大使級会談은 1955月8月1日부터 1957年12月12日까지 73次에 걸쳐 財産権問題 및 台湾問題 등에 관하여 会談하였고 바르샤바大使級会談은 1958年9月15日부터 1970年5月18日까지 12年間 63次에 걸쳐 진행되었다. 美·中共大使級会談은 美軍의 캄보디아進駐를 이유로 中共側이 同会談을 거부함으로써 중단되었다.

12) Richard M. Nixon, "Asia After Vietnam", Foreign Affairs, Vol.46, No.1(October, 1967)참조.

13) 外務部 外交研究院, 美·中共国交正常化와 対策, 外交研究院, 1976. P.3.

14) 이 時期에 美·中共関係改善을 促求한 主要 政治人들은 케네디, 제비트, 맥거번, 아서골버, 찰스요스트 및 헨리러지 등이다. 上掲書 참조.

15) 上掲書, P.4.

16) 上掲書

17) 上掲書

18) 上掲書

19) 上掲書

20) 上海共同声明全文, 国防大学院 安保問題研究所, 안보문제연구

資料集. 1972. 国防大学院. 1972. PP.42-45.

21) 美・中共間에 常駐 連絡事務所를 設置하는 問題는 1973年 2月 키신저의 北京訪問에서 両国間에 비로소 合意를 보아 実行하게 되었다.

22) 外務部 外交研究院. 美・中共基本関係資料. 外交研究院. 1976. P.24.

23) 그러나 美国은 台湾問題에 대한 中共의 立場을 이미 수락하였고 「닉슨 독트린」으로부터 美軍撤収를 이미 개시하고 있으므로 平和5原則의 수락에 의한 새로운 外交的 부담은 없으리라고 본다.

24) 金宗輝. 美・中共関係의 새로운 展開와 韓国. 外務部 外交研究院. 세미나発表論文. 1973. P.16.

25) 1973年2月22日 発表된 美・中共 共同声明. 外務部 外交研究院. 美・中共基本関係資料. PP.35-37.

26) 上掲書 참조.

27) Ralph N. Clough, "China's Foreign Policy with Particular Focus on Her Relations with United States", Asia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Seminar Service, Vol.1, No.5, 참조.

28) 朝鮮日報. 1977年6月29日字.

29) 닉슨大統領의 1971年 中共訪問 2個月前에 워싱톤에 부임해온 沈剣虹 中華民国 駐美大使는 만 6年째 교체되지 못하고

있다.

그 理由는 中共과의 関係를 의식하고 있는 美国政府가 中華民国 駐美大使 後任을 지난 2年間 거절해 왔기 때문이며, 동시에 美国政府 역시 같은 理由로 1974年에 부임한 駐台北 레오나드 엉거美国大使의 교체를 계속 보류해 오고 있다.

30) Henry M. Jackson, "China and American Policy", Report of Senator Jackson to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U.S. Senate, Washington, D.C: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참조.

31) 外務部 外交研究院, 美・中共基本関係資料, PP.6-7.

32) 東亜日報, 1977年2月 9日字.

33) 朝鮮日報, 1977年4月 9日字.

34) 朝鮮日報, 1977年4月13日字.

35) 外務部 外交研究院, 美・中共国交正常化와 対策, P.13.

36) 東亜日報, 1977年4月22日字.

37) 註 32참조.

38) 金宗輝, 前掲書, P.9.

39) China Yearbook 1957-1958, Taipei: 1958, P.182.

40) 中華人民共和国 条約集, 第7巻, P.197, 199, 201, Jerome Cohen(ed.), The Dynamics of China's Foreign Relations, Harvard East Asian Monograph, Cambridge:Harvard Univ. Press, 1970. P43 에서 再引用.

41) 金宗輝, 前揭書, P.15.

42) Cohen, Op. Cit., P.47.

43) 本貿易協定은 兩側 代表의 英文이름을 따서 L.T.貿易協定이라고 부른다.

44) 中央日報(台北), 1963年 8月21日字.

45) 中央日報(台北), 1963年 8月30日字.

46) 中央日報(台北), 1963年12月25日字.

47) 中央日報(台北), 1963年12月31日字.

48) 「吉田書簡」의 內容, 中央日報(台北) 1964年2月24日, 27日字; 読売新聞, 1965年8月5日字.

49) 金達中, "美·中共外交正常化問題", 中國問題, Vol.2, No.2 (1977.8), PP.169-192 참조.

50) 金宗輝, 前揭書, PP.18-19.

51) 人民日報, 1969年11月28日字.

52) 「닉슨·佐藤共同声明」, 第4項참조.

53) 金宗輝, 前揭書, P.20.

54) Peking Review, No.28(July 9, 1971), PP.20-21.

55) Gene T. Hsiao, "The Sino-Japanese Rapproachement: A Relationship of Ambivalance", in Gene T. Hsiao (ed.), Sino-American Detent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New York: Praeger, 1974. P.163.

56) 中央日報(台北), 1972年9月19日字.

57) Foreign Trade Quarterly(Taipei), No.33(March, 1972), PP.58-59.

58) 中央日報(台北), 1972年9月5日字.

59) Hsiao, Opcit, P.164.

60) Japan Times, July 6, 1972.

61) 共同声明의 英文, Peking Review, No.40(October 6, 1972), PP.12-13; Problems of Communism, No.21 (November-December, 1972), P.13; 中文, 人民日報, 1972年9月30日字.

62) Peking Review, No.40(October 6, 1972), P.15.

63) Hong N. Kim "Anti-Hegemonism and the Politics of the Sino-Japanese Peace Treaty-A Study in the Miki Government's China Policy-", Korea & World Affairs, Vol.1, No.4(Winter, 1977), PP.410-425참조.

64) 読売新聞, 1974年11月13日字.

65) Hong N. Kim, Op.cit., P.411,

66) 毎日新聞, 1974年12月14日 夕刊.

67) 朝日新聞, 1975年 1月22日字.

68) 朝日新聞, 1975年 1月17日字.

69) 朝日新聞, 1975年 2月11日字; Japan Times, Feb.15, 1975.

70) 日本経済新聞, 1975年2月16日字: 朝日新聞, 1975年2月8日字.

71) 朝日新聞. 1975年2月5日字 : Japan Times, Feb. 15, 1975.

72) 朝日新聞. 1975年2月15日字.

73) Harold C. Hinton, "The Soviet Campaign for Collective Security in Asia", Pacipic Community, January 1976, PP.147-161.

74) Joachim Glaubitz, "Anti-Hegemony Formulas in Chinese Foreign Policy", Asian Survey,(March 1976), PP.205-215 ;Steven I. Levine, "China and Superpowers:Politics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Winter 1975-1976), PP.637-657.

75) 朝日新聞. 1975年5月16日字 夕刊.

76) 読売新聞. 1975年6月16日字.

77) 読売新聞. 1975年6月22日字.

78) 1975年6月12日 안드라이 그로미코蘇聯外相은 모스크바 日本大使에게 中共이 日・中共 平和友好条約에 包含시키려는 反覇權主義에 경고하였다. 또한 1975年6月17日 蘇聯政府는 타스통신을 통하여 中共의 日・中共 平和友好条約을 통한 反蘇政策을 비난하였다.
日本経済. 1975年6月18日字.

79) 朝日新聞. 1975年8月13日字.

80) Japan Times, Sep. 26, 1975.

81) 南時旭, "日・中共関係", 東亜日報 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所 編, 中共 어제와 오늘, 東亜日報社, 1977. PP.331-2.

82) 上掲書, P.332.

83) 中央日報(서울), 1977年5月28日字.

84) 한국일보, 1977年11月15日字.

85) 中央日報(서울), 1977年11月19日字.

86) 東亜日報, 1977年11月14日字.

87) 東亜日報, 1977年11月14日字.

88) 朝日新聞, 1978年2月17日字; 中央日報(서울), 1978年 2月16日字.

89) 서울신문, 1978年2月23日字; 1977年의 日・中共貿易量은 총 35億弗로 日本은 5億弗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Korea Herald, 1978年1月10日字.

90) 読売新聞, 1978年3月6日字.

91) 朝鮮日報, 1978年3月11日字.

92) Korea Herald, 1978年3月12日字.

93) 東亜日報, 1978年3月24日字.

94) 朝鮮日報, 1978年3月28日字.

95) 東亜日報, 1978年3月27日字.

96) 센가꾸列島는 台湾과 오끼나와中間地域에 위치하고 台湾 東北쪽 100여해리에 위치한 산호초로된 무인도이다. 1968年 이

地域의 해저에 세계에서 가장 豊富한 原油가 매장되어 있다는 한 報告書가 발표되면서 日本·中共 및 台湾間에 領有権이 각각 주장되어 왔다.

97) 한국일보, 1978年4月14日字.

98) 東亜日報, 1978年4月17日字.

99) 周·田中共同声明全文, 国防大学院 安保問題研究所, 前掲書, PP.63-64.

100) 外務部 外交研究院, 美·中共基本関係資料, PP.79-83.

101) 한국일보, 1976年11月23日字.

102) 外務部, 中共情勢 1976年度, 外務部, 1977 참조.

103) 그러나 재슨議員의 표현에 유의할 必要가 있다. 즉 " We will honor our treaty with Taiwan as we do others, yet fundamentally the American commitment is to the people on Taiwan and not to any particular verbal formula…"는 美国이 台湾에 대하여 다른 형태의 공약으로 대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혹은 기존 美·台湾相互 防衛条約의 政治的 意味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外務部 外交研究院, 美·中共 基本関係資料, PP.69-77참조.

104) AP, January 22, 1977.

S U M M A R Y

TAIWAN: ITS DOMESTIC POLITICS AND THE PROSPECT FOR THE FUTURE

The study examines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in Taiwan. Through an analysis of various factors affecting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in Taiwan, the study purports to determine the future prospect of the Republic of China in Taiwan. It concludes that, barring unpredictable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Nationalist government in Taiwan will remain as an independent political entity separate from the mainland. The extent to which the Nationalist government can adjust itself to the political reality in Taiwan is the critical variable in this regard.

For the sake of analysis, the study is divided into four parts; historical background, political developments, economic growth, and the Taiwanes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first part dealing with historical background, the past history of the island of Taiwan is reviewed. This is

important to examine political ties between the island and the mainland, the legal statu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in Taiwan, and the nature of the Taiwanese indenpendence movement. The chapter finds that although the island had a long historical tie with the mainland it managed to develop its own identity quite distinct from that in the mainland. Beside the aborigines whose number is quite small and are of Malay ethnical group, most of the native Taiwanese are the descendants of the Chinese, including the Hakkas, who had migrated from the southern provinces of Kwangtung and Fuchien beginning in the 16th century. Although the Ch'ing court declared the island a part of its territory, its was not until the latter part of the 19th century shortly before the Sino-Japanese War that Taiwan officially became a province of China and the Ch'ing court exercised its sovereignty over the island. The Japanese victory, however, made Taiwan a colony of Japan for one hundred years to come until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aiwa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experienced rather impressive economic growth.

Political development in Taiwan since the arrival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from the mainland in 1949, the subject

of chapter 2, was marked by the slow attempt to reconcile the aspiration to recover the mainland from the Communists with the political reality in Taiwan. The Nationalist government held a nationwide election in the mainland in 1947 for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yuan, and the control yuan. When the Nationalist government moved to Taiwan, all of these three representative organs were moved to Taiwan together with most of their members. That these representative organs were composed of members elected in the mainland gave a very strong basis for the Nationalist claim that it was a legitimate government representing the whole China, not merely the island of Taiwan. As time passed, however, it became painfully clear that the Nationalist aspiration to recover the mainland was only a remote possiblity. Furthermore, and more importantly, the members of the three representative organs became aged quite rapidly and their number decreased to a dangerous proportion as many aged passed away. Need for reelection and/or supplementary election was strongly felt; yet, unless the Nationalist government gave up its claim that it represented the whole China, reelection in Taiwan was impossible. Although the Nationalist government finally held election in 1969 to

fill some vacancies in the three representative organs and two more since then, the national representative organs are still filled mostly with the old members elected in the mainland in 1947. This has made almost impossible for the native Taiwanese to move into the national elective offices. The native Taiwanese saw in the Nationalist government's reluctance to hold reelection an attempt to block or deny the chance to the native Taiwanese to participate in national politics. The Nationalist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was reluctant to held reelection in Taiwan for the fear that it might wipe out its claim to represent the whole China and that it might result in the massive participation of the native Taiwanese in national politics leading to the loss of power by the Nationalist Party.

Mr. Chiang Ching-kuo, the new president and son of the late generalissmo, has made several serious attempts to accomodate the native Taiwansese demand for participation in national politics; a number of native Taiwanese, including the new vice-president and former governor of the province of Taiwan, now hold important national positions and at the local level native Taiwanese control many elective and

executive positions. Although most of the native Taiwaness in the Nationalist government are technocrats and/or members of the Nationalist Party, their influence is increasing and is likely to further increase.

A series of setbacks in foreign policy including the Sino-American detente and the loss of the seat in the United Nations in the early 1970's dealt a severe blow to the Nationalist government. These setbacks were partly compensated by the remarkable record of economic growth that the Nationalist government has achieved. Careful economic planning, strong government support to export-oriented industries, relatively cheap labor, hardworking, and some luck produced a fastest economic growth in Taiwan. Yet, Taiwan's continued growth is greatly dependent on the fluctuation of international market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two largest trading partners for Taiwan. This is why Taiwan's future depends very much on the future development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the one hand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other.

Taiwanese independence movement is another factor which might affect the future of Taiwan. After a lengthy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vemen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goal of the movement is not entirely incompatible with the policy preferences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under the leadership of Mr. Chiang Ching-kuo. Unlike the 60s when Taiwanese independence movement spoke of throwing Nationalist government out of the island and establishing its own government, most of the Taiwanese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s now advocate change from within; they now emphasize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ruling Nationalist Party so that it can accomodate the demand by the native Taiwanese for ma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e ultimate goal/of the Taiwanese independence movement may be to take over power from the Nationalist government and Mr. Chiang will certainly do his best to see that this does not become a political reality. But the native Taiwanese are likely to prefer the Nationalist government to a communist government and they would not push their independence movement to the extent of destroying the Nationalist government only to be replaced by the communist rule.

The future of Taiwan, however distant it may be, will probably be an independent Taiwanese Republic of China with the Nationalist Party in power and the native Taiwanese participating

and sharing power with the "mainlanders" in government. The new independent Taiwanese Republic of China will have to cut many historical ties with the mainland China including formulation of a new constitution in accordance to which new government structures will have to be formed.

Sino-American Diplomatic Normalization and the Sino-Japanese Peace and Friendship Treaty, and Their Impacts on Future of Taiwan and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diplomatic recogni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expected to be carried out in 1979, and if not, in 1981 when the next administration is launched either by Jimmy Carter or any new political leadership. Such a diplomatic recogni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be implemented in a fashion that both the principles of the Shanghai Communique and the security of Taiwan war honored.

Significances of Sino-American diplomatic normalization are to strengthen strategic posi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vis-a-vis Soviet Union, thereby contribute to stability along the Sino-Soviet border as well as on Northeast Asia. It is expected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ould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ould take rather flexible attitude toward the Republic of Korea's policy for national reunification.

When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iplomatically, the Republic of China on Taiwan will be even more diplomatically isolated in the world community. Taipei also has to carry even more heavy defense burden militarily. Consequently, it is reasonably speculative that the Republic of China would discontinue the freeze in its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Peking-Pyongyang relations will not be drastically changed as a result of Washington-Peking diplomatic normalizatio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viet Union would instigate North Korea to initiate a limited military conflict against South Korea in order to undermine Sino-American rapproachement.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be increased substantially. Peking's export capability to the United States will be enhanced under the most favored nations clauses and credit arrangement from the United States Export and Import Bank. Consequentl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emerge as a serious export competitor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Finally, the Republic of Korea will face a diplomatic problem whether she would stick to the present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China or not.

The Sino-Japanese Peace and Freindship Treaty of August 1978, first of all, stimulates early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Washigton and Peking. It also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oviet Union's counter-measures against Sino-Japanese rapproachement are reasonably expected. Soviet Union's counter-measures are highly speculative at present, but they are likely (1) a rapproachement between Taipei and Moscow, (2) a rapproachement between Pyongyang and Moscow, and (3) an armed conflict in Korea.

In order to check possible Soviet Union-North Korea rapproachement, Japan will increasingly seek an equi-distance policy toward both Seoul and Pyongyang. Japan's cooperations and exchanges in economic and human resources areas with North Korea will increase. Contacts at the government level will be eventually made between Pyongyang and Tokyo. Such kind of developments will also happen in the process of Sino-American diplomatic normalizat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most likely oppose Japan-Republic of Korea joint explo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oil resources. Peking's objection is not only based on its policy to avoid any implication to recognize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based on the request from Pyongyang. The United States is also reluctant to push and assist Japan-Republic of Korea joint efforts for oil exploitation under the pressure from Peking.

Sino-Japanese economic cooperations will be greatly increased, and consequently improv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export capabili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labor-intentive and light industry. There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s export to the Japanese and United States markets.